

春亭 卞季良 선생 재조명 학술대회

조선 초  
문명전환과  
춘정 변계량의  
학술사적  
위상

김남이, 박병련, 이은영  
이종묵, 정출현, 천인석

春亭

卞季良

再照明 學術大會







## 개 회 사

오늘은 학자이자 스승으로 조선왕조의 기틀을 다지신 춘정 변계량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변정환 대구한의대학교 명예총장님, 변재일 국회의원님, 박일호 밀양시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춘정 변계량 선생은 권근 하륜과 함께 관각 3걸로 일컬어지는 조선 초의 대표적인 석학이시자, 시대의 스승이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조선의 문교를 관장하던 문형(文衡)의 소임을 20여 년간 맡으시면서 교린의 사명(辭命) 작성, 의례와 예악의 주관, 과거시험의 관장,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고려사의 개수(改修) 등 조선의 문물정비 정립과 인재양성, 관료등용 등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어 신홍왕조의 유교적 통치기반을 다지는데 크나큰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선생의 업적을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특히 주목할 것은 여말선초의 정치적 격변을 문화발전의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성군 세종의 즉위를 위해 노력하셨고, 군왕의 스승으로 유교문치 사상이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확립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께서는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개편을 주도하시고, 대제학의 소임을 맡아 학사들의 추천과 학문 도야를 관장하셨습니다. 선생께서 마련하신 사가독서(賜暇讀書)제도는 후의 호당(湖堂)제도로 이어지면서 젊은 학자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생께서는 신홍왕조였던 조선의 문화발전의 기틀을 닦으셨고, 조선 왕조 문화부흥의 토대를 마련하셨으니 가히 시대의 스승으로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선생의 위업은 인재양성을 본연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대구한의대학교와 밀양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밀양문화원과 청도문화원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학술대회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하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도모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대학의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사업)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고 향후 대학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대학 전체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변 창 훈





## 대 회 사

존경하는 학계와 유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밀양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밀양에서 태어나 우뚝한 학문세계와 시대정신을 성취하신 석학 춘정 변계량 선생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춘정 변계량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600년이 훨씬 전인 1369년, 밀양의 구령동(현재 초동면 신호리) 괘인정(掛印亭) 봉명대(奉命臺)에서 부친 검교공(檢校公) 옥난(玉蘭)과 모친 창녕 조(曹)씨 사이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4세 때 시(詩) 외우고 6세 때 시를 짓는 총명함을 나타냈으며, 14세 때인 고려 우왕 8년(1382)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뒤 17세라는 최연소 문과 급제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직에서 활동하며 보인 면면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태종과 세종의 시대를 도와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性理學)이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권근(權近), 하륜(河崙) 선생 등과 함께 노력하였으며, 조선 현실에 맞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을 경세(經世)의 요체(要諦)로 삼으셨으며 그 무엇보다 집현전의 설치 등 교육에 힘써 많은 젊은 인재를 길러내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명나라와의 까다로운 외교문서를 도맡아 작성하며 신생국 조선이 당면했던 문장화국(文章華國)의 난제를 몸소 실천하셨으나, 오히려 선생은 자신의 뛰어난 시문은 여사(餘事)로 자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춘정 변계량 선생이 우리 고향 밀양은 물론 조선의 찬란한 정신 문화를 꽃피우는데 끼친 영향은 조선 초기 최고였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밀양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영남의 큰 고을입니다. 점필재 김종직 선생을 비롯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춘정 변계량 선생이 우뚝한 좌표를 세워놓지 않으셨다면, 그런 후배들의 배출은 물론이고, 밀양이 전통문화의 도시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춘정 변계량 선생은 우리 밀양이 배출한 조선 지성사의 맨 앞자리에 위치하신 우뚝한 거봉이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춘정 변계량 선생의 학문세계와 시대정신이 오늘의 학술 대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여러분의 지혜와 혜안을 통해 춘정 변계량 선생의 참모습이 재조명되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새 모습으로 제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통과 현대, 윤리와 도덕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신문화가 꽃피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뜻 깊은 학술대회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유림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밀양시장 **박 일 호**





## 歡 迎 辭

燈火可親이라 讀書의 季節에 우리 大邱韓醫大學校와 密陽市가 共同으로 開催하는 ‘春亭 卞季良 先生 再照明 學術大會’에 參與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內外 貴賓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公私에 多忙하심에도 不拘하고 우리 大學을 방문하신 卞在一 國會議員님, 朴一浩 密陽市長님, 嶺南碩學 여러분, 春亭 先生의 學德을 기리기 위해 오랜 歲月 함께 研鑽하고 계시는 景賢契 會員 여러분, 그리고 校內外的 學術大會 關係者 여러분에게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春亭 卞季良 先生은 密陽 고을이 낳은 위대한 賢哲의 한 분이십니다. 곧 朝鮮朝 士林派의 宗匠이신 佔畢齋 金宗直 先生과 壬辰倭亂 당시 僧兵을 이끌고 救國의 先鋒에 서셨던 四溟堂 惟政 大禪師, 그리고 朝鮮 儒敎 文明의 泰斗이신 春亭 先生은 古今의 學人들로부터 尊崇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春亭 先生은 朝鮮時代 最初의 文衡으로서 큰 功績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後進養成과 官僚登用을 專擔하는 成均館大司成과 禮文館大提學을 겸함으로써 朝鮮朝 特有的 文衡制度의 鼻祖가 되셨던 것이다. 그와 아울러 先生은 高麗 末 朝鮮 初期에 鄭道傳 權近으로 이어지는 官人文學家의 代表的 人物로서 中國 明나라로 보내는 外交文書를 거의 專擔하여 지으셨습니다. 또한 太祖實錄 國朝寶鑑의 編纂과 高麗史 改修에 參與하셨으며 이러한 活動을 통해 館閣文字의 典型을 樹立하여 後世에 큰 影響을 끼치셨습니다. 그리고 先生은 集賢殿의 設置를 主唱하시고 이어 그 大提學에 올라 손수 많은 人才를 推薦하셨습니다. 뒤에 集賢殿 學士들이 儒敎國家 朝鮮의 礎石을 다졌던 것은 周知하는 바로 그 中心에 先生이 계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密陽 三賢 중에 佔畢齋 先生과 四溟堂 大禪師의 경우에는 佔畢齋研究所와 四溟堂紀念事業會에서 持續的으로 關聯 研究를 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春亭 先生의 경우에도 그 歷史的 位相에 相應하는 보다 深度 있는 研究를 持續하기 위해 關係者 여러분께서는 더욱 奮發하여 주실 것을 當付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論文 發表會에서 基調講演을 하실 朴丙鍊 教授님 이하 여러분의 그간의 勞苦에 致賀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內外 貴賓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8일

大邱韓醫大學校 名譽總長 卞 廷 煥



## 인 사 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한의대학교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구한의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대구한의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주관으로 '조선 초 문명전환과 춘정변계량의 학술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춘정 변계량 선생 재조명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대학 변창훈 총장님과 변정환 명예총장님, 그리고 박일호 밀양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조발표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병련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은 우리사회의 당면한 과제이며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기초교양대학모델로 선정된 이래로 '인문동기유발학기', '인문역량강화주간', '인문학 교과목 필수이수', '찾아가는 인문학 세미나' 등 재학생의 인문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인문학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사업단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오늘의 학술대회는 조선 최초의 문형이자 확고한 학술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변계량 선생의 유업과 시대정신을 공유하여 우리 삶의 성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및 국학연구원과 부산대학교 점필재 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문학 역량을 함께 제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다해주신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학문의 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대구한의대학교 CORE사업단

대구한의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春亭 卞季良 선생 재조명 학술대회  
조선 초 문명전환과 춘정 변계량의 학술사적 위상

|                |                                                    |                                       |
|----------------|----------------------------------------------------|---------------------------------------|
| 10:00 ~ 11:10  | 제1부 개회식                                            | 사회 : 조성제 교수(대구한의대학교)                  |
|                | 개회사                                                | 변창훈 총장(대구한의대학교)                       |
|                | 대회사                                                | 박일호 시장(밀양시)                           |
|                | 환영사                                                | 변정환 명예총장(대구한의대학교)                     |
|                | 축 사                                                | 변재일 국회의원                              |
|                | 인사말                                                | 황세진 교수(대구한의대학교 코어사업단장)                |
|                |                                                    | 천인석 교수(대구한의대학교 국학연구원장)                |
|                |                                                    | 정출현 교수(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장)                 |
|                | 기념촬영                                               | 내빈, 발표자, 토론자                          |
| 10:40 ~ 11:10  | 기조 발표                                              |                                       |
|                | [정치] 박병련(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조선 전기 통유(通儒)의 모델, 춘정 변계량 |                                       |
| 11:10 ~ 15:00  | 제2부 학술 발표                                          | 사회 : 변귀남 교수(대구한의대학교), 이승우 교수(대구한의대학교) |
| 11:10 ~ 12:10  | 오전 발표                                              |                                       |
|                | [생애] 정출현(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춘정 변계량의 문명 의식과 시대정신          |                                       |
|                | [사상] 천인석(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춘정 변계량의 사상적 특성           |                                       |
| 12:10 ~ 13:00  | 점심                                                 |                                       |
| 13:00 ~ 13:30  | 공연                                                 |                                       |
| 13: 30 ~ 15:00 | 오후 발표                                              |                                       |
|                | [교육] 이종묵(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춘정 변계량의 인재 양성 정책             |                                       |
|                | [외교] 이은영(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춘정 변계량의 표전(表箋) 제작과 대외관계    |                                       |
|                | [문학] 김남이(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춘정 변계량의 시대와 문학               |                                       |
| 15:10 ~ 17:00  | 제3부 종합 토론                                          | 좌장 : 이래종 교수(대구한의대학교)                  |
|                | 토론 : 이구의(경북대학교), 신상필(부산대학교), 김성우(대구한의대학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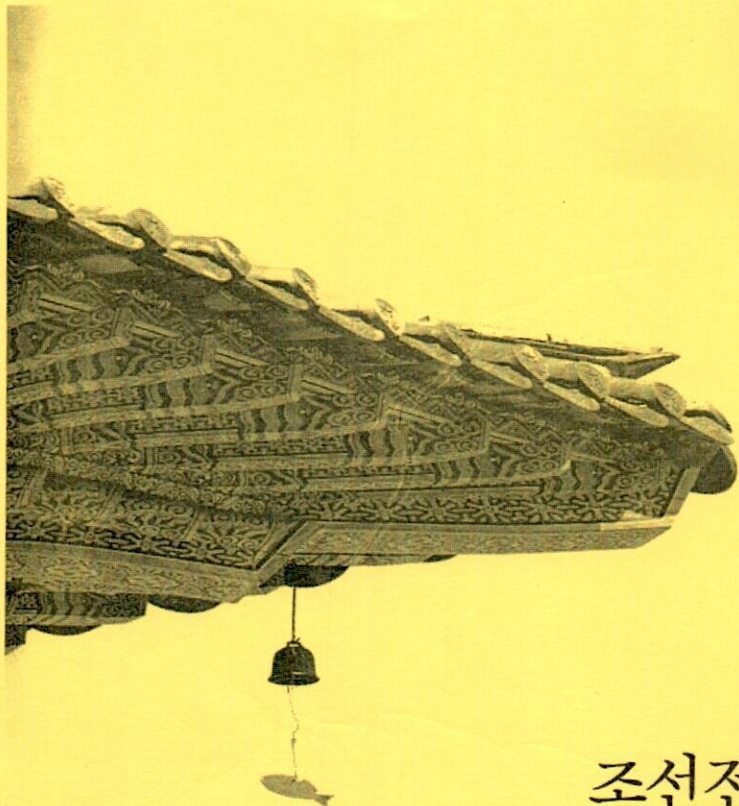
## 차 례

|                                                  |    |
|--------------------------------------------------|----|
| 조선전기 통유(通儒)의 모델, 춘정 변계량, 박병련(한국학중앙연구원) . . . . . | 1  |
| 춘정 변계량의 문명의식과 시대정신, 정출현(부산대학교) . . . . .         | 19 |
| 춘정 변계량의 사상적 특성, 천인석(대구한의대학교) . . . . .           | 41 |
| 춘정 변계량의 인재 양성 정책, 이종묵(서울대학교) . . . . .           | 63 |
| 춘정 변계량의 표전(表箋) 제작과 대외관계, 이은영(이화여자대학교) . . . . .  | 85 |
| 춘정 변계량의 시대와 문학, 김남이(부산대학교) . . . . .             | 99 |









조선전기 통유(通儒)의 모델,  
춘정 변계량



박 병 련 /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선전기 통유(通儒)의 모델, 춘정 변계량

박병련(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춘정 변계량과 그 시대의 사상지형
2. 융합(融合)과 회통(會通)의 학문
  - 1) 환경적 기반과 정치적 자산
  - 2) 학문의 방법과 독서의 범위
3. 춘정 정치사상의 기본 골격: 불변(不變)의 '도(道)'와 시의(時宜)의 '법(法)'
4. 춘정의 구체적 업적
  - 1) 대명(對明) 외교의 안정화
  - 2) 인재교육의 활성화와 공정한 선발의 제도화
  - 3) 국방정책의 일관성유지와 훈련체계의 정비
5. 맺는말: 정치의 목적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 1. 서론: 춘정 변계량과 그 시대의 사상지형

세종대왕의 시대에는 토론이 활발했음에도 왜 '당쟁(黨爭)'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세종대왕의 시대에는 어떻게 조선후기와 달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을까? 아직도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그저 단편적인 지식을 근거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듯 감추고 넘어 간다. 조선후기의 성리학자들은 세종시대의 업적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외면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면서 세종시대의 업적을 함께 이룬 인물들에 대해서는 주자학적 잣대로 높은 평가를 주저했다.

조선후기 이래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성리학적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한 평가는 오늘 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조선 역사에서 태종과 세종의 시대는 가장 정치가 성공한 시대임은 체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종대왕이 불교를 숭상한 것과

태종과 세종의 시대를 성공시킨 대신들이 대부분 불교에 관용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세종과 그 시대의 인물들을 평가하는데 인색했다. 춘정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고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춘정은 사대교린이라는 외교의 ‘틀’이 정착되어 가던 시대에 ‘외교문서’를 책임지고 대명(對明)관계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가 문형을 담당한 20년 동안, 문자(文字)로 인한 외교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후의 외교문서 작성의 전범(典範)을 마련했다.

‘대국(大國)을 섬기는 예를 진실로 신중히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혹독한 가뭄에 하늘에 비를 비는 문제가 일어나 ‘제후로서 하늘에 비를 비는 일은 참람(僭濫)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비를 비는 일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상시에는 제후라도 하늘에 비를 비는 것이 안 될 것이 없고’ 또 ‘우리나라의 시조는 단군(檀君)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 중국 천자가 지역을 나누어 봉(封)한 제후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를 천년이상 지속해 왔음’을 강조하는 인물이었다. 주(周) 무왕(武王)의 스승인 기자(箕子)도 봉함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선으로 온 것이었다<箕子廟碑銘>. 그에게서 ‘사대(事大)’는 시대의 현실이고 ‘자주(自主)’는 시대를 넘는 원칙이었다.

그는 명목적인 교의(敎義)나 형식적인 ‘말씀’에 자신을 묶어두는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도(道; 기본 원칙, 이론, 이념)와 법(法; 해결을 위한 방법과 도구, 기술, 자원동원)을 구분해서 볼 줄 알고, 문제 해결에 다양한 학문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진정한 통유(通儒)였다. 병진(兵陣)의 문제에도 정통하였는데, 이는 병법(兵法)을 천시했던 성리학 위주의 관료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책 없이 당했던 것과 대비된다. 성군(聖君) 세종마저도 학문에서는 일보를 양보했던 춘정의 이러한 사상은 한 시대를 규정했던 어떤 사상적 지형에서 가능했을까?

정도전의 구상을 조선초기의 일반적 사상지형으로 이해하는 것은 급진적이다. 그의 구상이 조선 건국에 참여한 특정 엘리트 정치인의 개인적 차원의 포부와 희망이 포함된 것이라면, 세종의 명으로 편찬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국가와 사회의 유교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세종시대의 최고 ‘지성’들의 ‘집단적 사고’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조선왕조 개창의 당위성과 정당성, 그리고 유구한 근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의 작업이기도 하면서 당시를 대표하는 엘리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창(窓)’이기도 하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당대 사상의 지형을 짐작할



수 있고, 신념체계를 알 수도 있으며, 정치상황의 이면(裏面)을 분석할 수 있는 열쇠도 갖고 있다. 나아가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하였다는 조선조 초기 유교수용의 수준과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 사상의 기층(基層)내지 고층(古層)과 어떠한 융화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용비어천가를 관통하는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 일변도가 아니다. 오히려 ‘용비어천가’에는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이나 심성론(心性論)이 수용된 흔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고대 유가정치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한다. 여기에는 개국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중국 주(周) 왕국의 건설과정을 묘사하고, 『서경(書經)』과 『시경(詩經)』에서 묘사된 유교적 정치를 모델로 한다. 중국 정치사에서 나타나는 명군(名君)들의 행위를 정당화된 것으로 인식하는데, 성리학자들이 비판하는 당 태종의 행적도 정당화의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처럼 ‘용비어천가(龍歌)’는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이며, 정통 또는 순정(純正) 성리학적 사유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순정 성리학과 어긋나는 사유방식의 수용은 ‘용비어천가’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왕도(王道)사상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왕패겸용(王霸兼用)의 시각과 불교는 물론 전통적인 신이(神異)신앙도 수용되고 있다. 다른 학문이나 사상을 배척하는 ‘도통(道統)’이나 ‘정학(正學)’적 사유를 강조하는 조선 후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용비어천가에는 한당 유학적인 사유가 강하고, 성리학적인 사유는 약하다. 특히 주역(周易), 서경(書經), 시경(詩經), 맹자(孟子) 등의 경학(經學)과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지식이 원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정의 학문과 행적도 이와 같은 문맥과 사상지형이 갖는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실하다 할 것이다.

조선 후기의 주자(朱子) 일존(一尊)의 교조주의적 관점은 지금처럼 여러 학문이 공존하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에서는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아직도 우리 학계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주자학적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마치 그러한 평가가 영원불변인 것처럼 끊임없이 재생산 된다. 우리나라 경향(京鄕)의 주자학으로 유명한 양반 족보에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 맞서서 전사한 사람은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려운 것은 그 ‘말’과 ‘글’이 실상을 왜곡하거나 은폐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sup>1</sup>

<sup>1</sup>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유명한 학자의 ‘문인 만들기’가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족보의 변조도 무수히 이루어진 것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럼에도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계속 ‘거짓’이 학자들의 손에서 재생산 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거짓’의 끊임없는 재생산이 ‘사실’로 정착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 은폐와 묵인(默認)은 널리 활용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춘정의 시대와 춘정의 학문, 그리고 정치와 백성을 바라보는 춘정의 안목은 되돌아 봐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당면한 문제 역시 형상은 달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춘정이 살았던 시대는 한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결정하는 상위문맥(上位文脈: context)이 고려시대와 다르게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었다. 조선 초기는 고려사회의 유풍(遺風)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였다. 예를 들면, 불교의 영향은 관료사회와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성리학을 국가이데올로기로 내세웠음에도 태조와 세종, 세조는 불교를 독실히 신앙했다. 태종 역시 만년에는 불교를 존숭했을 정도다. 따라서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율곡(栗谷) 이이(李珣), 나아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나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등의 시대에 형성된 상위문맥을 전제로 춘정 변계량의 사상이나 행적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 2. 융합(融合)과 회통(會通)의 학문

### 1) 환경적 기반과 정치적 자산

춘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의 철인(哲人)들이 도를 닦아 세상을 구제함이 비록 혹 같지 않았다 해도 그 요점이 근거하는 것은 모두 이 마음을 확충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유(儒)·불(佛)·도(道) 삼교(三教)에서 찾아보아도 대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춘정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교정치의 원칙적 과정을 수도(修道)와 제세(濟世)라는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대치하고, 수도(修道)를 유교의 범주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위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와 도가(道家)에서도 그 길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는 정도전과 달리 유, 불, 도 삼교의 교훈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회통(會通)하고 보완(補完)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춘정의 이러한 사상적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가설이 설정될 수 있는데, 태어난 고향인 밀양의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춘정의 가문은 6대조 태학진사 변고적(卞高迪)이 밀양으로 처음 이거(移居)했는데,



부친 변옥란(卞玉蘭)대에 이르러 가문 번성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태조 때에 외직(外職)으로 청주와 충주의 목사를 지냈고, 내직(內職)으로 호조, 이조, 병조의 판서를 지낸 고관이었다. 천품이 강명(剛明)하면서도 인자하여 태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고향에서도 효성과 우애로 칭송을 받았다(卒記). 춘정은 밀양도호부 부서(府西)의 상서 초동면 구령(龜齡)촌에서 변옥란(卞玉蘭)의 3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밀양부의 초동(初同) 구령촌은 옛 신라의 영역이었지만 외가인 창녕지역은 가야의 영역으로 서로 가까이 이웃하고 있다. 신라의 문화와 가야의 문화가 오랫동안 교섭하고 동화(同化)되면서 정착된 지역이었다. 구령촌의 진산(鎭山)은 덕대산(德大山)인데 높이는 600미터 중반이지만 걸치는 지역은 매우 넓은, 특징 있는 산으로 넓은 못(國農沼)과 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낙동강이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곳이기도 하다. 신라 탈해왕(脫解王) 11년에 왕실의 귀척(貴戚)이었던 박씨 세력이 수종(隨從)세력을 이끌고 온 이래 밀양의 세족(世族)들은 오랜 기반을 바탕으로 고급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춘정의 장인인 경상도절제사 박언충(朴彦忠)가문이 그러한 예다. 박언충의 아우 박홍신(朴弘信)은 무장(武將)으로 태종의 충애를 받았는데, 좌군지병마사(左軍知兵馬使)의 직위로 형을 따라 대마도 정벌전에 참가하여 앞장서 돌격하다가 전사했다(彝尊錄). 박홍신의 사위가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1389~1456)로 춘정과는 사촌 동서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이 박홍신의 외손자다.

춘정의 바로 이웃 마을에는 고려의 절신(節臣) 송은(松隱) 박익(朴翊)의 아들이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문생인 우당(憂堂) 박유(朴融) 형제가 새로이 터전을 잡아 와서 춘정을 선배로 모시고 교류했다.<sup>2</sup> 신라문화와 가야 문화의 융합, 산과 들, 강의 공존과 보완, 전통적 세족들의 결혼을 통한 결합이라는 구령촌의 일상(日常) 세계가 춘정 사유의 원형(原型)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을까?

변옥란의 첫째 부인은 창녕성씨 전객부령(典客副令) 성공필(成公弼)의 딸이고, 두 번째 부인은 창녕조씨 제위보(濟危寶) 부사(副使) 조석(曹碩)의 딸이었다. 성(成)씨와 조(曹)씨 모두 밀양의 이웃인 창녕의 대성(大姓)으로 일찍부터 상경 종사한 가문이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성석린(成石璘) 형제들과, 좌정승 조익청(曹益淸), 시중 조민수(曹敏修)등으로 중앙정계에서도 정치적 지분이 상당했던 가문이었다.

<sup>2</sup> 춘정을 기리는 비각은 우당(憂堂)과 인당(忍堂) 박소(朴昭)의 후손들과 창녕조씨 등, 이웃 사족들이 힘을 합쳐 건립했다.



춘당(春堂) 변중량(卞仲良)은 성씨부인 소생이고 춘정은 조씨부인의 소생이다. 성씨 가문과 조씨 가문은 원래 밀양 창녕지역에서는 성석린 형제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조광한(曹匡漢) 등, 문한(文翰)으로 이름난 인물이 많아 ‘머리 좋은’ 가문으로 소문이 났는데, 춘정 형제들도 어렸을 적부터 두각을 드러내었다. 그 가운데서도 춘정의 천재성은 일찍부터 드러났다. 4세에 옛 시를 외웠고, 6세에 시를 지었으며, 14세(1382, 우왕8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세에는 생원시에도 합격했다. 다시 17세의 나이로 대과(大科)에 합격하였다. 뛰어난 자질은 다음세대의 문형을 잡았던 권제(權跽)가 ‘타고난 자질이 밝고 민첩하며(天資明敏).’, ‘천성이 본래 총명하고 잘 깨달았다(性本聰悟).’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당시의 공론(公論)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진사시의 동방(同榜)에 후일의 태종 이방원이 춘정 보다 2세 위인 16세로 합격한 것이다. 이 동방의 인연은 함께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권근(權近), 하륜(河崧) 등 당대의 대학자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태종이 춘정의 천재성을 일찍부터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인연은 춘정이 자신의 학문과 경륜을 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춘정의 형 춘당 변중량(卞仲良) 역시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 하였고, 태조 이성계의 큰 형인 이원계(李元桂)의 사위가 되었다. 춘당의 모친은 성공필의 딸이었는데, 춘당의 외조모는 충주지씨로 재상 지윤(池淵)의 질녀였고, 태종의 큰 형인 이방우(李芳雨)의 부인과 정종(定宗:李芳果)의 빈(嬪)인 충주지씨와는 사촌 간 이었다. 이러한 인연은 태조 이성계의 개국과 함께 왕실의 인척이 되었고, 출세 길이 보장되었음에도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일파로 몰려 사형 당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정국에 대한 소신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이 춘정을 이 사건에 연루시키지 않고 끝까지 보호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깊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 준다. 태종의 춘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는 사례는 매우 많다.

춘정의 시대는 아직 고려의 유습(遺習)이 많이 남아 남녀 사이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춘정의 여동생은 불미스런 일을 저지르고 춘정을 역모로 몰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춘정이 아들을 얻지 못해 여러 번 장가를 든 일로 대간이 탄핵을 할 때도 태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춘정이 겨우 얻은 아들(=英壽)이 모친의 신분<sup>3</sup>으로 불이익을 받

<sup>3</sup> 춘정의 첫 번째 부인은 철원부사 권총(權總)의 딸로 조승(趙乘)에게 시집 간 딸 하나를 두고 세상을 떠났으며, 두 번째 부인은 오씨(吳氏)인데,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다가 난산(難産)으로 세상을 떠났다.<祭吳氏文>. 세 번째 부인이 동향(同鄉)의 박씨부인이고, 이 외에도 한 번의 장가를 더 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권씨부인과 박씨부인만 기록하고 있다.<행장(行狀)>. 아마



지 않도록 바로 사정(司正)의 벼슬을 내리고, 춘정의 제사를 받들도록 한 것도 태종, 세종 양대(兩代)에 걸친 신뢰와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춘정이 태종을 “신을 대함에 功(공)이 없는데도 총애 하시고,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춘정 스스로가 느낀 바를 말한 것이다.

태종이 춘정을 세자 양녕대군의 빈객으로 삼아 보도하게 했고, 또 폐세자의 결단을 내리고,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과 세종으로의 선위(禪位)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도 깊이 관여하게 하였는데, 태종의 무거운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춘정 역시 조선의 개국에 대해서는 스승인 목은과 포은, 그리고 형인 춘당의 노선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가 태조 원년에서 5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병을 칭탁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태조 5년 여름에 이르러 비로소 교서감승지제교(校書監丞知製敎)라는 문한직에 취임하였는데, 아마도 깊이 따르는 스승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출사(出仕)와 왕자 이방원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보면, 그는 고려의 역사를 부정하는 정도전 등의 입장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고,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단절’이 아니라 역사적인 ‘연속’과 ‘계승’의 관점에서 서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학문의 방법과 독서의 범위

춘정의 학문은 ‘정밀하면서도 넓었다(精博)’<權踈 撰 舊序>. 독서의 범위는 성리학을 포함한 문, 사, 철의 영역은 물론, 불교, 도가, 병가 등 제가(諸家)의 학문을 널리 섭렵하고 요점을 잡았다. 널리 배우고 광범위한 독서를 하되 ‘요점’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했다. ‘학문의 방법은 요점을 알려고 힘쓰는 것’이며,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많이 배웠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경전해석에서도 여러 논의를 섭렵함은 물론 맥락과 시대상황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춘정이 진법(陣法)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자, 공자가 “조두(俎豆)에 대한 일은 일찍이 들은 바 있지만, 군대의 일은 배우지 못했다.”<衛靈公>고 말한 것과 맹자가 “내가 진(陣)을 잘 치며 내가 전쟁을 잘 한다고 하면 큰 죄인이다.”

도 유교적인 관습과 당시의 재산 분제 관습으로 보면, 권씨부인이 갖고 온 재산은 조승(趙乘)의 부인이 승계하고, 하나 뿐인 아들인 변영수(卞英壽)가 춘정의 제사를 받들면서 부터 박씨부인의 아들로 인정되며 밀양 청도지역에 있는 박씨 부인의 재산을 승계한 것이 아닌가 한다.

<盡心章句 下>라고 말한 것을 들어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춘정의 답론(答論)은 그의 학문하는 방법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춘정은 성현의 말 한 구절에만 매달려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학문태도가 아니라고 한다. 위 영공(衛靈公)은 무도한 임금으로 공자를 대하여 대뜸 진법을 물은 것은 그가 전쟁을 좋아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공자가 ‘배우지 않았다’고 답하고는 바로 떠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陣說問答>

맹자의 시대는 천하가 바야흐로 전쟁하는 일이 급해서 성과 땅을 다투면서 사람을 죽여 들판에 가득하게 하고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진 것이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맹자의 말씀은 그 시대를 구제(救濟)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병진(兵陣)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는 공자와 맹자의 말 한마디만 뚝 떼어서 해석할 일은 아니고 다른 성현들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우는 사람은 (경전을 대할 때)마땅히 선입견을 버리고 뜻을 다하여 그 취지를 살펴야지 한 마디 말을 가지고 대뜸 정론(定論)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다. 사마양저(司馬穰苴)의 병법에 말하기를,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고, 나라가 비록 강대해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으며, 호안국(胡安國)은 말하기를 ‘병(兵)을 좋아해서는 안 되니,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속할 줄을 몰라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 재앙이 있게 된다. 또한 (병은)미워해서도 안 되니, 병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병권을 넘겨주는 화(禍)가 있게 된다.’ 하였으니 그 말뜻이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또 억누르고 높이며, 가볍고 무거운 것을 분별하고 있다. ‘그대의 군대를 잘 다스리시오.’라고 한 말은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고(告)한 것이었고, ‘육군(六軍)을 강성(强盛)하게 하시오.’라고 한 말은 소공(召公)이 강왕(康王)에게 경계한 것이었다. 주공, 소공의 큰 가르침과 공자, 맹자의 올바른 말씀을 참고하고, 아울러 사마씨와 호씨의 설을 생각해 보면 옛 어진 이들이 군사를 논한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춘정은 병법서와 경전, 역사서를 넘나드는 방대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독득(獨得)의 경지에 이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의 독서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서오경(四書五經)은 물론 『성리대전』(당시에는 처음 들어왔던 책),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演義)』, 호안국(胡安國)의 『춘추전』, 주희(朱熹)의 『통감강목(通鑑綱目)』, 우리나라 사서(史書)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 도가(道家)의 양생서인 이봉비



(李鵬飛)의 『삼원참찬연수(三元參贊延壽)』, 손진인(孫眞人)의 『양생(養生)』, 유가사상이 바탕에 있는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司馬法)』 등이 드러나고 있고, 그 외 각종의 도참(圖讖)과 비기(秘記) 뿐 아니라 불교의 경전, 참선의 세계 뿐 아니라 병진(兵陣)과 병법(兵法)에 관한 서적도 넓고 깊게 섭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춘정의 성리학에 관한 문제의식은 문제의 요점을 꿰뚫고 있어 피상적인 지식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 ① 개와 소의 성(性)은 사람의 성과 같은가?
- ② 이른바, 중(中)은 심(心)을 말한 것인가? 성(性)을 말한 것인가?
- ③ 증자(曾子)가 『대학(大學)』을 지으면서 성(性)을 말하지 않고, 자사(子思)가 『중용(中庸)』을 지으면서 심(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 ④ 성악설(性惡說)은 순자(荀子)가 말하였고, 선악혼동설(善惡混同說)은 양주(楊朱)가 말했으며, 성삼품론(性三品論)은 한유(韓愈)가 말했는데, 세 사람 모두 맹자의 뒤에 태어났으므로 성선설(性善說)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이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등이다. 그는 경전해석에서 맥락을 무시한 해석을 반대하고, 성현의 말씀이라도 그러한 말이 있게 된 배경과 맥락을 살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다만 그는 성리학으로 모든 분야를 수렴하는 성리학이나 주자학 독존(獨尊)에 따르는 수양이나 정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봉비(李鵬飛)의 <삼원참찬연수(三元參贊延壽)>나 손진인의 <양생(養生)> 등의 글이 비록 자기 소견에 따라 논하여 치우치거나 순수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사람에게 적지 않게 유의하니, 모두 상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永樂十九年封事)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도가류의 수련법도 도움이 된다고 군주에게 권하기도 하면서도 세종이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열중할 때는 성리학에 관한 글을 보기를 권하기도 한다<세종 3년 11월 7일>. <연경사법화법석제문(演慶寺法華法席祭文)>, <감로사중창원문(甘露寺重創願文)>, <태상왕진언법석제문(太上王眞言法席祭文)> 등의 글 뿐 아니라 도교에 관련된 <청사(靑詞)>와 <기우제문(祈雨祭文)>도 작성했다. 이런 글들은 성리학적 기준으로 문집을 재단했을 때는 모두 삭제되었던 글들이다. 성리학의 교조성이 문명이나 문화에 대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춘정이 20여년에 걸쳐 국가의 문형(文衡)을 담당하였는데, ‘귀신과 부처를 섬기고, 하늘에 제사지낸’ 것으로 후학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춘정이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불교를 신앙했던’ 당시의 많은 사대부들과 달리 소신에 따라 구애(拘礙)당하지 않고 처신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배우는 자는 성현의 말씀에 대해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뜻을 쏟아 그 의미를 살피야지 한 마디 말만 가지고 대뜸 정론(定論)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라는 춘정의 비판적 독서법은 성현의 가르침을 언제나 ‘조선의 현실’에 조응(照應)시키면서 때에 적실한 해석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학문하는 태도의 핵심이라 할만하다.

### 3. 춘정 정치사상의 기본 골격: 불변(不變)의 ‘도(道)’와 시의(時宜)의 ‘법(法)’

앞에서 보았듯이 춘정은 국가경영은 물론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도 어떤 학문은 특별히 배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의 ‘수도제세(修道濟世)’의 ‘도(道)’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즉 나라를 경영하는 ‘도’, 군사를 움직이는 ‘도’,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도’와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특정한 ‘이념적인 도’에 의지하여 모든 구체적 사물을 연역적으로 이해하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들과 달랐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독선적 ‘의리’를 현실 정치에 관철하려 하는 주자(朱子)적인 ‘행도(行道)’의 역할을 자임했다면, 춘정은 현실적 문제 그 자체에서 ‘도’를 찾고자 하는 공자적인 ‘구도(求道)’에 방점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스스로 ‘도’나 ‘의리(義理)’를 투철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에서 ‘행도(行道)’하겠다는 태도는 ‘독선(獨善)’을 배태한다. 노론의 ‘도’와 소론의 ‘도’, 남인의 ‘도’가 서로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된 주자학이 아닌가? 조선의 당쟁은 자신들의 ‘도’와 ‘의리’를 앞세워 탐욕과 권력욕을 호도(糊塗)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와 비교해 보면, 춘정은 ‘구도(求道)’하는 학자에 가깝다. 문제가 생기면 스승에게 묻고, 전적(典籍)에서 찾으며, 동료와 토론하는 세종시대의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끊임없이 조선의 현실에 맞는 제도와 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젊어서 본 과거의 답안인 전시(殿試)의 대책(對策)에서 이미 이러한 생각의 골격이 드러난다.



“다스리는 도리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다스리는 법은 때에 맞추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도를 마음에 근본하지 않으면 정치하는 바탕을 만들 수 없고, 법을 때에 맞게 만들지 않으면 정치하는 도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치도(治道)를 만들고, 때에 맞추어 치법(治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요점은 집중(執中)에 있고, 집중의 요점은 정일(精一)을 버리고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교의 십육(十六) 자(字) 심법에 대한 춘정의 이해다. 후일 전시에서 대책(對策)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보다 간결하고 요점적인 춘정의 관점이 드러난다.

“제도의 손익(損益)은 시대에 따라 같지 않다. 그런데 시끄럽게 이것저것 관례를 끌어다 대는 바람에 제도를 제정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선왕(先王)의 도리에 합치되면서도 세속의 시의(時宜)에 맞는 한 시대의 법을 만들어 영원히 유지하고 따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도(道)와 세속의 시의(時宜)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선왕의 도는 세속적 시의에 맞는 법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도는 법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에 그 구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옛날 제왕이 법을 만들 때, 반드시 시의(時宜)에 따름으로서 한 시대가 흥할 때 마다 반드시 그 시대의 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다스리는 도리는 한 가지”라고 보았다. 이 말은 성인이 세운 법이라도 시대와 장소가 달라지면 달리 입법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즉 입법은 단순히 옛날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입법한 내용을 탐구하고, 인심과 풍속에 맞는지 살피고, 시중(時中)을 참작하여, 시공간의 구체적 현실에 적실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유교적 교의의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執中)’에 대한 춘정의 이해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요순(堯舜)의 시대와 하(夏), 상(商), 주(周)의 삼대(三代)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모두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든 것은 ‘시의(時宜)’에 맞는 자기 시대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이해했다. 아마도 춘정은 경전 가운데서도 『중용(中庸)』을 더욱 철저하게 공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존심(存心)과 순시(順時)를 ‘중(中)’으로 연결하는 독특한 이해를 하고, 이를 정치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다.<殿試對策>

이러한 이해방식은 군주권에 대한 관점에서도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과 대립한다. 공자가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으면서 잘 다스린 사람은 순(舜) 임금이로다! 어찌



다스렸던고 하니 스스로 겸손하게 남면(南面)하고 있었을 따름이로다.<衛靈公>”라고 한 후, 군주의 무위이치(無爲而治)는 유가(儒家)의 이상적인 정치리더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정도전이 이에 근거하여 재상중심(宰相中心)의 정치론을 주창하고, 군주의 임무는 ‘재상 한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에 있는(在擇一相)’것으로 말했다. 춘정은 본인의 지론(持論)에 입각하여 이에 대해 반론했다.

“임금의 직책은 재상 한 사람만 잘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 백관(百官)과 만사(萬事)가 모두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훌륭한 인물을 얻으려 노력하다가 훌륭한 인물을 얻으면 편안히 앉아서 장구한 치세와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옛날에는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날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즉, 요순의 시대에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개국 초의 조선에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권력과 이익의 칼자루는 하루라도 아랫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외롭고 신하는 많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외로운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아래로 넘겨서야 되겠습니까?<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

이처럼 춘정은 재상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군주중심의 현실주의 정치관으로 정도전의 논리를 반박한다. 그는 유가정치의 이상으로 제시되는 군주의 ‘무위이치’를 조선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대안으로 ‘부지런 함(勤勉)’을 내세우며 논거(論據)를 제시한다. “천도(天道)는 부지런하여 만물을 생겨나게 하며, 왕도(王道)는 부지런함으로 모든 공적(功績)을 이루는 것”이며, “우(禹)왕은 나랏일을 부지런히 하였고, 문왕(文王)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할 틈도 없이 일을 하여 만민을 융화시켰으며, 세상을 소강(小康)으로 끌어올린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의 임금들도 모두 부지런함으로 업적을 이룩했습니다.<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라고 하면서 ‘공기남면(恭己南面)’한 요와 순이 아니라, 밤낮으로 치수사업에 헌신한 우(禹)임금을 성군(聖君)의 모델로 제시한다. 그는 인(仁)을 왕덕(王德)의 체(體)로 보고 명(明)을 용(用)으로 보면서, 부지런함(勤)을 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면서 근(勤)이야말로 천도의 ‘쉽 없이 운행하는(健)’것을 본받는 도리라고 설파한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제에 당면하여 일관되게 나타난다.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은 유교정치사상의 저류(低流)가운데 하나인데, 춘정은 ‘인사(人事)’에 대한 반

응'과 '기수(氣數)로 인해 우연히 일어나는 변화'를 구분하여,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도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가 기왕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음을 보여 주는 한 사례다. 나아가 그는 천견(天譴)에 대하여 그냥 “반성하고 두려워하며 식사를 줄이는 자책(自責)”으로 끝내면 ‘일에는 도움이 안 되고 건강만 해치게 된다고’하면서 ‘치도(治道)를 강론하여 나라의 근본을 바로 하고’, ‘군법을 엄중히 하고’ ‘인심을 숙연히 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데, 한 가지만 아는 오만한 유학자와는 바탕부터 다른 통유(通儒)의 모습을 잘 드러내어 보인다.

#### 4. 춘정의 구체적 업적

춘정의 업적은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조선의 전례(典禮)를 정비하고, 사전(祀典)에 사용하는 축문(祝文)과 제문(祭文)의 기본 형식을 정했으며, 종묘(宗廟)의 제의(祭儀)와 산천제(山川祭) 등, 국가 의전(儀典)을 정하는데 관련한 것은 문형으로서의 업무에 속한다 해도 악가(樂歌)의 창제와 같은 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가운데서도 춘정이 지은 <하성명가(賀聖明歌)>는 명나라의 사신이 들고는 좋아하여 그 가사(歌詞)를 베껴 가기도 했다. 가히 통유(通儒)의 진면목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춘정의 업적은 많아서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큰 범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 1) 대명(對明) 외교의 안정화

조선초기 명과의 외교에서 춘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물에서 금과 은을 빼고 포자(布子)로 대체하는 일이었다. 조선 초기의 대명외교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태조 때, 표전(表箋)문제로 정도전을 소환하려는 명에 대해 요동정벌을 계획하기도 하였고, 명나라에 간 사신이 체포되어 귀양가서 죽는 사건도 발생했다. 세종 때에 대명관계는 안정적이 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조공(朝貢)관계와 사신대접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다. 조선이 바치는 공물(貢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금과 은(金銀)이었다. 공물에서 금은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하고, 대신 어떤 물품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황희(黃喜), 맹사성(孟思誠), 윤희(尹淮)는 마필(馬匹)과 포자(布子), 유후지(油厚紙)를, 허조(許稠)와 정초(鄭招)는 파필과 포자



만을, 춘정은 포자만 보내자고 하였는데, 결국 춘정의 의견대로 표문을 올려, 명의 허락을 받고 영구히 공물 목록에서 삭제했다.<行狀>.

이처럼 세종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대명외교에서도 사신접대와 조공의 문제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사신접대와 표전문에 있어서 학문적 능력은 국격(國格)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순조로운 외교관계에 필수적이었다. 특히 명나라와의 안정된 외교관계의 구축 없는 조선의 발전은 바라기 어려웠다. 특히 춘정이 ‘사정을 곡진(曲盡)하게 표현한 빼어난 문장’으로 금은(金銀)의 조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조선의 부담을 크게 경감한 외교적 성과였고, 이후의 국력신장에 큰 보탬이 되었다. 양촌(陽村)과 춘정(春亭)으로 이어지는 문형(文衡)들이 조선 초기 사대외교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 2) 인재교육의 활성화와 공정한 선발의 제도화

세종 2년(1420) 세종은 춘정의 건의를 받아들여 집현전을 재정비하였다. 세종은 고려 때부터 제도는 있었으나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던 집현전(集賢殿)을 대궐 안에다 두고, 문관 가운데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 젊은 인재를 발탁하여 집현전 관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경전과 역사를 연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였는데,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 참여하는 등의 임무가 부여되어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이 되었다. 춘정은 집현전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제학이 되어 ‘새로운 조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집현전의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춘정의 추천이 있어야 했던’<行狀>4에서도 그의 역할을 알 수 있다. 그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았다. “학교의 성쇠(盛衰)에 따라 세도(世道)의 척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정치가 좋아지거나 나빠졌다.”는 역사인식에서 ‘원점(圓點)의 법’을 강화하여 태학(太學)의 생원들은 300점을 채워야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는 ‘어떤’ 재능을 갖춘 인재인가를 중시했다. 문관은 경학(經學)과 아울러 예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했고, 무관의 경우에는 병략(兵略)에 통하고 충의(忠義)에 독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제도의 개편에서 권근과 함께 ‘제파(製派)’의 중심이었고, 정책과정에서 ‘윤대(輪對)의 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춘정은 집현전의 설치와 활성화를 통하여 세종 초기의 문운(文運)을 일으키

4 같은 시대를 산 정척(鄭陟)이 지었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높다.

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문형을 맡은 20여년, 사대(事大)하고 교린(交隣)하는 문서가 모두 공의 손에서 나왔는데, 조정에서는 언제나 표현된 말이 빈틈없고 절실한 것을 칭송했다. 다섯 번 회시(會試)를 주관하고, 세 번 사마시(司馬試)를 주관하였으며, 두 번 친시(親試)의 독권관(讀券官)이 되었는데, 그 선발함이 하나같이 지극히 공정하였다. 그리고 과장(科場) 주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응시자의 부정을 금하여 고려조의 어지러운 습속을 혁파하고 만대(萬代)에 이어갈 과장의 법을 바르게 하니, 선비들이 모두 복종했다.”<行狀>

춘정이 과거를 공정하게 관장한 <실록(實錄)>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태종 14년(1414)의 회시(會試)인데, 공정하게 선발한 시험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월 26일자). 나아가 과거합격자가 학문을 게을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춘추과(春秋科試)’와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제도도 그의 건의에 따라 만들어 졌다. 『효행록(孝行錄)』의 간행도 그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 3) 국방정책의 일관성유지와 훈련체계의 정비

세종 10년(1428), 국내외가 군사, 외교적으로 안정되자, 시위군사(侍衛軍士)에게 시위하는 업무 대신에 농사(農事)에 전념하게 하자, 춘정이 시위군사는 본래 불의(不意)의 사변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안정(安靜)함을 믿고, 적을 막는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시위군사를 설치한 것은 밖을 방어하고 안의 예측하지 못한 사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요사이 안과 밖이 무사하다고 하여 외방의 시위군사들을 혹은 농사철이라서, 혹은 흉년이라서, 혹은 추위와 더위 때문에 번을 서지 않게 하며----오로지 농사일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백성을 구휼코자 하는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재화(災禍)와 환란(患亂)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어찌 안정(安靜)함만을 믿고 수비와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다른 방식으로 구휼해야 합니다.”(4월 27일 조)

춘정은 일시적인 재변(災變) 때문에 경솔하게 정책의 일관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정책이 정해지면 웬만한 상황의 변동이 있어도 지켜가야만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제왕이 천하국가를 다스릴 때, 지켜야 할 규범을 세우고 시행하여 구 규모가 이미 정해졌으면, 비록 재변이 생겨도 또한 마땅히 한결같이 지켜서 유구한 효과를 기다려야지 가볍게 바꾸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

이러한 춘정의 생각은 호패법(號牌法)의 실시 문제에서도 ‘백성이 꺼리는 일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법이 있고, 백성이 좋아하더라도 실행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정은 기근(饑饉)때라도 군사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조선 전기의 군사훈련 체제를 정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은 정도전의 진법을 대체하고, 공적인 군제개편에 맞는 새로운 진법을 만들도록 했고, 춘정이 오진법(五陣法)을 만들어 올렸다.

“상왕(上王)이 참찬 변계량에게 명하여 옛 제도를 살펴서 진법을 만들게 했다. 왕은 대궐 안에서 그린 진법 한 축(軸)을 내어 주었다. 변계량이 참고하고 연구해서 오진법을 만들어 올리니 훈련관으로 하여금 이 진법에 의거하여 교습(敎習)하게 하였다.”<세종 3년 5월18일>

춘정의 오진법은 정도전의 <진법(陣法)>에 비해 향상된 전술과 전법(戰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병략(兵略)에 정통했던 춘정이 왜구들의 침략과 약탈이 심해지자 홀로 대마도 정벌을 건의하여 성공한 것도 그가 일반 문사(文士)의 범주를 벗어난 인물이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다. 그의 장인인 절제사 박언충(朴彦忠)이 동생 박홍신(朴弘信)을 데리고 적극적으로 정벌에 참여한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도 30년 간 먹을 양식을 비축하지 못하면 나라 구실을 못한다고 하면서 제언(堤堰)의 축조(築造)와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경작지를 넓힐 것을 건의했는데, 국가멸망의 중요 원인을 재정의 고갈에서 찾는 그의 인식과도 관계가 있다.<請築堤堰上書>

이상 몇 가지 범주에서 춘정의 업적을 간략히 개관했는데, ‘넓고 정밀한(博精)’ 학문과 여러 방면에서 대체(大體)와 요점(要點)을 파악하고 있는 ‘통유(通儒)’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리학이나 주자학만을 고집한 수많은 유학자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고, 세종시대의 성치(盛治)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 5. 맺는말: 정치의 목적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춘정은 스스로를 ‘성품이 곧아서 세상에 아부하지 못한다.’<태종, 12년 6월 26일>고 했는데, 자신의 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유학(儒學)에서는 ‘자기를 속임이 없는 것(毋自欺)’을 중하게 여기는데, 춘정의 일상이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말을 바꾸지 않았다. ‘하늘이 군주를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며, ‘추위와 더위를 가릴 것 없이 분주하게 일하여 일 년 내내 윗사람을 섬기는데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면서 ‘백성의 살림을 일으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 수단으로 농사를 힘쓰고, 제방과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농지를 늘리고, 유희인력을 동원하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춘정은 현실과 조응(照應)하지 못하는 고정적인 경전해석을 싫어했다. ‘국가를 유지하는 길은 양식을 풍족하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有國之道 莫先於足食)’라고 하였는데, 굶는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고려가 망한 원인도 ‘재정을 남용하여 창고가 바닥난 것’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가와 학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유학에 경도되지 않았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종교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았다. 백성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나라의 공간을 채우는 일이라면 유교적 교의(敎義)에 반대 되는 것이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든 간에, 심지어는 유교에서 이단(異端)으로 보는 사상이든 효과가 있다면 가리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춘정의 사상과 활동은 당시의 ‘부유한 환경에서 성리학적 교육만을 전수(專修)받아’ 과거로 출사한 젊은 관료들의 눈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들의 춘정에 대한 평가가 <실록>에 남아 있는데, 오늘 날의 눈으로는 ‘우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유학에 통달한 석학으로 선도(仙道)를 수련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수륙제(水陸齋)를 베푸는 것’과 ‘귀신을 섬기고 부처를 받들며’, ‘하늘에 절하는 일’등을 지적한다. 대체로 춘정의 종교와 제천(祭天)의식에 관계된 것이다.

“변계량이 부처에 혹하고 신(神)에 아첨하며, 하늘에 배례하고 별에 배례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심지어 동국(東國)에서 하늘에 제사할 수 있다는 설(說)을 힘써 주장하니, 분수를 범하고 예를 잃음을 알고 있으면서 억지 글로서 옳은 이치를 빼앗으려 한 것뿐이다.<卒記>”

이것은 춘정의 자주(自主)의식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관(史官)들도 태종의 대마도 정벌이 춘정의 건의를 따른 것이라 평가하고, 외교문서 작성을 전담하여 외교관계를 안정시킨 것과 공정한 인재 선발 등에 대해서는 칭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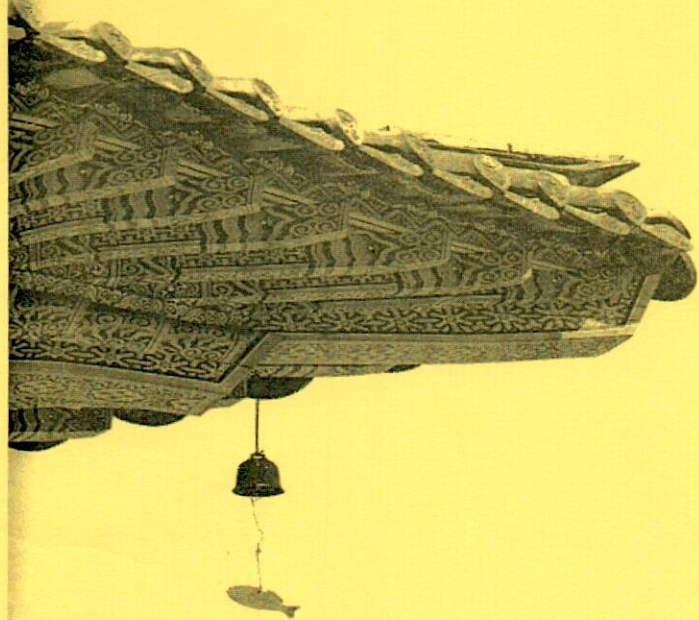
“변계량이 거의 20년 동안 문형을 맡아 사대(事大)하고 교린(交隣)하는 사명(詞命)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고, 과거를 주관하여 선비를 뽑는데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하여 전조(前朝)의 함부로 부정(不正)하게 하던 습속(習俗)을 다 고쳤다. 일을 의논하고 의문을 해결하는데 이따금 다른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다.”<세종 12년 4월 24일>

춘정은 전통시대에는 드물게 보는 ‘열린 사고’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교적 이상과 조선의 현실 사이에서 ‘적실한(中)’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무엇보다도 ‘부지런 해야만(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특색 있는 학자 정치가였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신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라(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는 『중용』의 격언을 ‘이는 잠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盖言須臾之不可不勤也)’는 뜻이라고 해석한 것은 그의 ‘근면함’을 보는 사상적 기초가 탄탄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유·불·도는 물론 문학, 병법, 음악, 고금의 역사 등에 널리 통했고, 이런 열린 학문을 기초로 “큰일에 처하여 크게 의심스러운 것을 결단함에 있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동료들이 처음에는 실정에 어둡다고 의심했지만 끝내는 그 견해의 탁월함에 복종하게 만들었던 창의적인 사고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춘정이 자기시대의 정치를 ‘성치(盛治)’가 되도록 크게 기여한 점은 그가 가졌던 ‘통유(通儒)’의 자질과 학문에 기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말과 글만 저작하는 선비는 비판할 곳이 별로 없지만, 정치라는 복잡계(複雜界) 안에서 경륜을 발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기는 어렵다. 춘정은 그런 평가에 흔들리는 인물이 아니었다. 춘정이 갖는 ‘통유(通儒)’의 모델은 어쩌면 민주사회라는 현대의 정치가에게서 더욱 기대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춘정을 재조명해 보는 중요한 이유도 오늘날 사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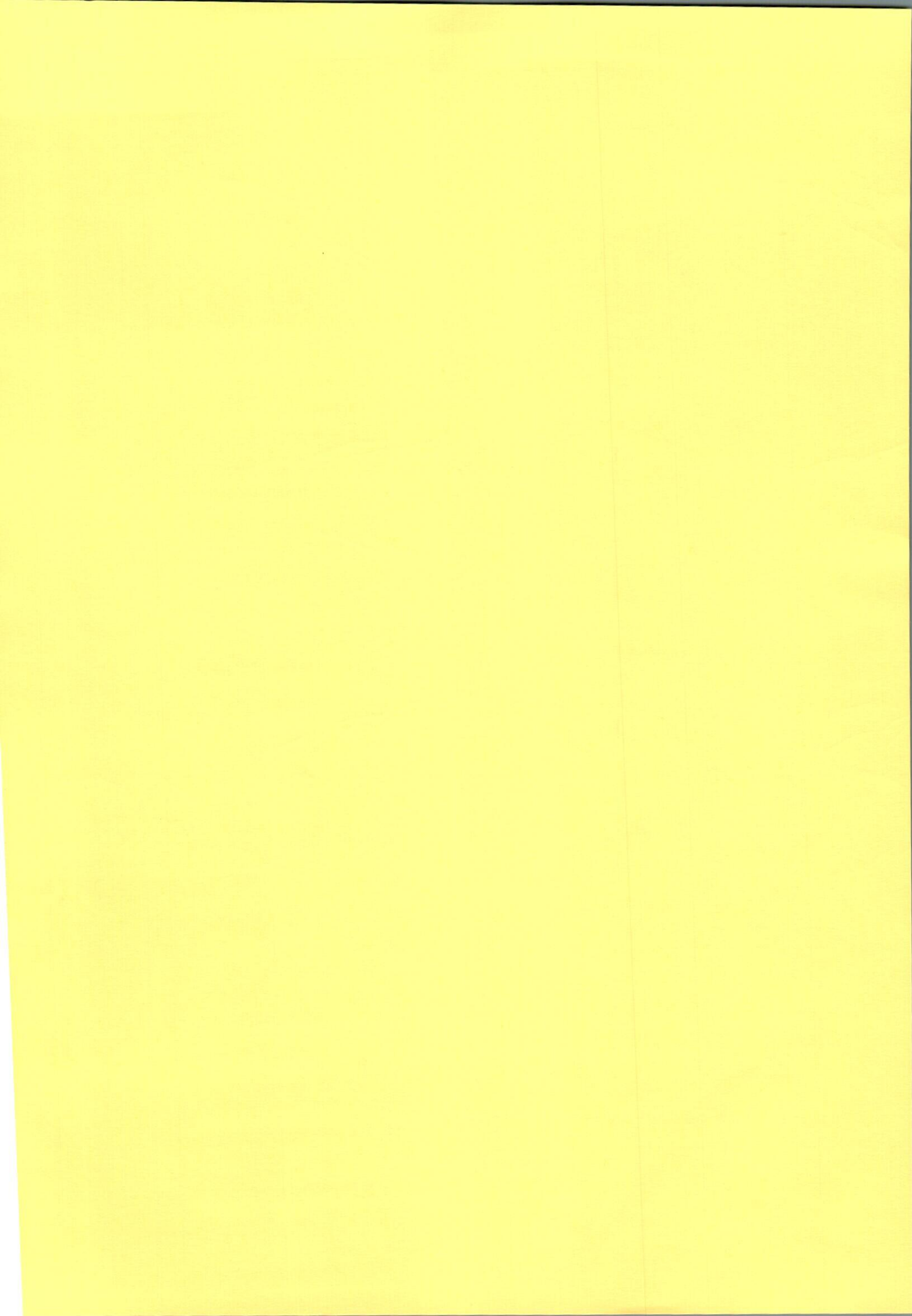


춘정 변계량의  
문명의식과 시대정신



정 출 현 / 부산대학교





# 춘정 변계량의 문명의식과 시대정신

정출현(부산대 한문학과)

1. 머리말: 창업(創業)과 지수(持守)의 어려움
2. 춘정의 현실인식: ‘삼봉(三峰)’과 건국이념의 실제
3. 춘정의 문명의식: ‘단군(檀君)’과 동인의식(東人意識)의 발현
4. 춘정의 시대정신: ‘제천(祭天)’과 성교자유(聲敎自由)의 실천
5. 맺음말: 춘정이 세종과 함께 도모한 꿈의 복원을 위해

## 1. 머리말: 창업(創業)과 지수(持守)의 어려움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은 고려 우왕 8년(1382) 14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3년 후 대과에 합격했다. 불과 17세라는, 아마도 역대 최연소 합격자로 기록될 수 있을 터였다.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조선 건국 초기 예전(禮典)의 정비에 온힘을 쏟아 부었던 춘정은 세종 12년(1430) 4월 23일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춘정이 활동했던 그 기간은, 이른바 여말선초라고 불리는 일대 격변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왕조의 교체라는 정치사적 의미를 넘어선다. 천 년 넘게 유지해왔던 불교국가가 인류사 최초의 실험이라 할 수 있는, 유교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를 겪어가면서 춘정이 간직하고 있던 문명의 이상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시대적 비전은 어디로 향해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문명의식’과 ‘시대정신’이라 명명하기로 한다.<sup>1</sup>

<sup>1</sup> 본 발표문에서 사용하는 文明이란 용어는, 일본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영어의 civilization을 ‘文明’으로 번역한 그것과 차이를 갖는다. 그때의 그것은 전근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던 ‘文明’이란 개념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문명이란 “나타난 용이 지상에 있으며 천하가 문



기실, 춘정이 그런 역사전환기에 모색하고 있던 자기 정체성의 좌표를 정확하게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그의 앞 세대와 뒤 세대의 현실인식과 견줘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 세대의 현실인식으로서 “원나라가 천하를 소유해 사해가 이미 하나를 이루었으니, 혼돈(混沌)의 소용돌이에 창조의 약동은 중화(中華)와 변방(邊方)의 차이가 없다.”<sup>2</sup>고 선언했던 대선배 이색(李穡, 1328~1396)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 시대에 대한 그런 태도는 그의 제자인 정도전과 권근, 그리고 하륜과 변계량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동인의식(東人意識)’과 ‘문명의식(文明意識)’으로 발양되었다. 실제로 뒤의 세대인 신숙주(申叔舟, 1417~1475)는 “나라 다스린 지 33년, 우리 문명을 한강 북쪽에 여섯도다.”<sup>3</sup>라며 자신의 시대를 한양, 곧 새로 건국한 조선에 문명을 열어간 시대라고 자부하고 있었다.<sup>4</sup>

춘정 변계량은 바로 이러한 선배 이색과 후배 신숙주를 연결해주는 시대를 살았다. 보다 좁혀서 말한다면, 고려 말기 이색의 제자였던 권근(權近, 1352~1409)·하륜(河崙, 1347~1416)과 조선 전기 신숙주의 부친인 신장(申穡, 1382~1433) 사이에 위치했다.<sup>5</sup> 춘정 변계량은 하륜의 직계 후배이자 신장의 직계 선배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주로 활동한 시대는 태종 치세 후반부와 세종 치세 전반부였다.<sup>6</sup> 우리들은 그 시기를 흔히

명한다.[見龍在田, 天下文明]”(『주역』 乾卦文言)은 말이 함축하고 있듯, 堯舜禹湯文武와 같은 聖王이 이어가며 인간 세상에 드리워준 밝은 빛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時代精神이란 독일의 철학자 J.G.헤르더가 1769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 ‘Zeitgeist’을 번역한 것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춘정 변계량이 조선 건국 초기에 추구했던 시대적 지향·전망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2 李穡, 『牧隱文稿』 권7, 「益齋先生亂藁序」 “元有天下, 四海既一, 三光五嶽之氣, 渾淪磅礴, 動盪發越, 無中華邊遠之異.”

3 申叔舟, 『保閑齋集』 권4, 「和御製詩韻」 “垂衣三十又三年, 開我文明漢水陽. 盛德在人知幾許. 臣民沒世尙神傷.”

4 여말선초를 문명사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임형택, 「고려말 문인지식층의 東人意識과 文明意識: 목은 문학의 논리와 성격에 관한 서설」, 『실사구시의 한국학』(창작과비평사, 2000)과 「文明 개념과 한국의 역사 전환: 14세기 말과 20세기 전후」,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 지성사를 읽다』(돌베개, 2009), 그리고 정경주, 「조선조 禮樂文明과 점필재 김종직의 위상」, 『동양한문학연구』 26집(동양한문학회, 2008)에서 제기된 바 있다.

5 춘정이 권근과 하륜을 존중하며 그들의 업적을 계승하고자 했고, 자신이 맡고 있던 문형의 자리를 신숙주의 부친 申穡에게 넘겨주고자 했다. 申穡보다 尹淮의 문예가 우월하다는 당대의 평판에도 불구하고, 춘정의 이런 선택은 뒷날 윤희와 사사건건 어긋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춘정의 후대적 평가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종실록』 세종 5년 6월 23일 기사 참조.

6 춘정은 태종 9년 藝文館提學과 同知經筵事에 임명되고, 마침내 태종 17년 藝文館大提學과 禮曹判



‘조선 초기’로 통칭하고 있지만, 두 시대는 변별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춘정 스스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했다.

|                   |                               |
|-------------------|-------------------------------|
| 華山南漢水北, 朝鮮勝地.     | 화산 남쪽, 한강의 북쪽, 조선의 아름다운 땅,    |
| 白玉京黃金闕, 平夷通達.     | 백옥 같은 서울, 황금 같은 대궐, 사통팔방의 거리. |
| 鳳峙龍翔, 天作形勢, 經經陰陽. | 용봉이 날듯, 하늘이 지어낸 형세요 음양의 조화로다. |
| 偉 都邑 景 其何如?       | 아, 한양 도읍의 광경, 그 모습 어떠합니까.     |
| 太祖太宗, 創業胎謀, [再唱]  | 태조와 태종, 창업하고 물려주신 계책. [再唱]    |
| 偉 持守 景 其何如?       | 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광경, 그 모습 어떠합니까. |

- 〈화산별곡(華山別曲)〉 제1장

세종 7년 4월 2일, 연향(宴享)에 사용하기 위해 춘정이 지어올린 악장 <화산별곡(華山別曲)>의 첫 번째 장이다. 전반부에서는 새로운 도읍지 한양의 약동하는 모습을 감격 어린 어조로 노래한 뒤, 후반부에서는 그와 같은 조선을 창업한 태조·태종의 계책과 그것을 이어받아 守成의 치세를 열어가고 있는 세종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춘정은 태종에서 세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예문관대제학과 예조판서라는 중책을 맡아 창업과 수성에 부합하는 예악문물의 기틀을 구축해갔다.

이처럼 춘정은 자신의 시대가 ‘창업’에서 ‘수성’으로 넘어가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었고,<sup>7</sup> 그런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그 부합하는 문명의식과 시대정신을 펼쳐갔다. 때론 그의 문명의식과 시대정신이 당대의 보편적 흐름과 어긋난다거나 ‘고집(固執)’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시대에 대한 현실인식이 ‘명확하고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시류(時流)에 편승하지 않던 독창적이고도 도드라진 면모이기도 했다. 언바, 오늘날 춘정의 문명의식과 시대정신을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2. 춘정의 현실인식: ‘삼봉(三峰)’과 건국이념의 실제

書에 올랐다. 이후 세종의 시대에도 文衡으로 활동하며, 조선 초기의 문물과 예악을 정비하는 주역으로 활동했다.

- 7 세종이 즉위한 직후에 올린 「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에서 “대체로 하늘이 창업의 임금을 낼 때 반드시 수성의 임금도 내십니다. 우리 태조는 창업만 하시었고 우리 전하께서는 수성만 하시었으며, 우리 상왕 전하께서는 창업과 수성을 겸하시었습니다. 창업할 때에는 진취성이 귀중하고 수성할 때에는 안정성이 귀중한데, 그 시세 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며 창업과 수성의 시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① 현재, 춘정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시조가 세 수 전하고 있다.<sup>8</sup> 그의 작품은 30여 종이 넘는 가집(歌集)에 실려 전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불렸다. 시조라는 갈래가 주로 사대부들의 유흥 공간에서 불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춘정의 작품은 그만큼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전, 길재(吉再)라든가 원천석(元天錫)의 시조와 같이 고려의 망국을 회고하던 유형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내히 죠타 하고 늬 슬흔 일 흐지 말며  
 늬이 한다 하고 義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는 天性을 직회여 삼긴대로 흐리라.

- 『진본(珍本) 청구영언(靑丘永言)』

노랫말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며 내건 유교문명의 비전을 쉬운 말로 풀어내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경구, 곧 공자가 『논어, 안연』에서는 중궁(仲弓)에게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을 일러줄 때 사용했고, 『논어, 위령공』에서는 자공(子貢)에게 평생 실천해야 할 서(恕)를 풀이하는 데 사용했던 구절로부터 시작한다. 공자가 제창했던 유가의 핵심적 개념이다.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간결하면서도 친근하게 또는 단호하면서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춘정이 평생 가슴에 품었던 국가 비전이 담겨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리학의 이념에 기반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건국 주역들의 한결 같은 꿈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때 그와 같은 유교문명 국가를 설계했던 한 이상주의자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은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길 때, 새 궁궐을 조성하는 일도 주관했다. 그리하여 경복궁 원편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을 모시는 ‘사직단(社稷壇)’을 세움으로써 새로운 도읍의 기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

<sup>8</sup> 시조집에 변계량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시조는 뒤에 소개할 작품 외에도 “巖畔雪中孤竹 반갑고도 반가왜라, 問노라 저 孤竹아 孤竹君의 네 엇던 인다, 首陽産 萬古淸風에 夷齊를 본듯 흐여라.”[靑丘永言 洪氏本]와 “治天下 五十年에 不知왜라 天下事를, 億兆蒼生이 戴己를 願흐느냐, 康衢에 聞童謠흐니 太平인가 흐노라.”[靑丘永言 六堂本] 등 2수가 더 있다. 하지만 현전하는 시조집을 볼 때 전자는 대부분 徐甄이 작자로 되어 있고, 후자는 대부분 成守琛이 작자로 되어 있다.

곳을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단(四端)의 대문으로 들렀으니,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은 유교적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회구했던 것이다.

정도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던 그런 유교문명은, 춘정이 “천성을 지키며 사는 것”을 노래했던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창업’을 주도했던 정도전과 ‘수성’을 도모하고 있는 춘정의 현실인식과 그 실천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유교문명의 구현은 아름답게 제시되는 달콤한 ‘이상(理想)’이 아니라 피 터지게 싸워가며 구축해야 하는 뼈 아픈 ‘현실(現實)’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도전이 조선의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공자가 가장 존경하던, 주공(周公)이 설계한 주(周) 나라였다. 한양을 건설할 때도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를 준거로 삼았고, 조선이란 나라의 국가 체제 및 운영 방식도 『주례』를 표준으로 삼았다.<sup>9</sup> 성인의 계보를 잇는 주공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그 책은 하나의 이상국가를 모델로 담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어긋나게 마련이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이상과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 또한 그러했다. 더욱이 불교국가를 유지해온 오랜 시간의 축적을 권력의 힘으로 단박에 유교문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 점에서 불교를 믿고 하늘에 제사 지내던 춘정을 두고 “문(文)을 말은 대신임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귀신을 섬기고 부처를 받들었으며, 하늘에 제사하는 일까지 하지 않는 바가 없어 식자들의 조롱을 받았다.”<sup>10</sup>고 평가했지만, 그건 결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있었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전통적인 사생관(死生觀)을 비판하고 있는 식자들이 오히려 위선적인 포즈가 아니었을까? 적어도 30대 전반까지 고려 사회를 온몸으로 겪어왔던 춘정은 자신의 몸에 각인되어 있던 감성과 습속에 솔직했고, 그런 태도는 춘정의 현실인식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sup>11</sup>

② 그런 현실인식을 견지했던 춘정은 자기 선배이자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던 삼봉 정도전의 현실인식과 사뭇 달랐다. 정도전이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지어 불교를 극력 배척했던 것과 달리 춘정은 독실하게 불교를 믿었다는 사실은 단적인 사례일 것이

<sup>9</sup> 조선의 건국과 주나라, 곧 『주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인용, 『주나라와 조선』(창해, 2016)을 참조할 것.

<sup>10</sup> 『세종실록』 세종 12년 4월 23일 「변계량 졸기」 “然以主文大臣, 貪生畏死, 事神事佛, 至於拜天, 靡所不爲, 識者譏之.”

<sup>11</sup> 춘정의 이런 면모를 주자학적 경세사상과 비주자학적 경세사상의 雜糅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김홍경, 「변계량의 경세사상연구」, 『유교사상연구』 4집(1991), 40면.



다.<sup>12</sup> 춘정은 지난날 정도전이 구축해 놓은 제도나 구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치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날카롭게 대립되었던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인재 선발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정도전이 과거시험의 초장(初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경(講經)’을 ‘제술(製述)’로 되돌리려는 문제였다.

“신이 과거를 두 번이나 관장하였사온데, 강경(講經)의 법은 실상 옳지 못합니다. 지금의 유자(儒者)들은 구두(口讀)하는 데 구속을 받아, 한갓 외우는 것으로만 업을 삼는 까닭으로 그 기질이 고체(固滯)되고 사부(詞賦)에 능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시관(試官)이 과거 보는 선비를 면대(面對)하게 되니, 어찌 사심(私心)이 없겠습니까. 고려 때에 봉미(封彌)의 법을 만든 것은 이 때문입니다. 권근(權近)이 항상 이 폐단을 걱정하여 글을 올려 폐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상왕이 이 청을 좇으셨더니, 정유년(태종 17년, 1417)에 한두 사람의 문신의 제책을 써서 다시 이 법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에 활 쏘는 것은 장난의 일로서 사람들이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안의 자제(子弟)들이 문과(文科)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여 모두 무거(武擧)에 쏠리게 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13</sup>

춘정은 직접 과거를 주관하면서 절감하게 된 두 가지 폐단을 들어, 강경(講經)의 폐지를 주장했다. 하나는 경서의 본뜻보다 외우는 것만 능사로 삼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시관 앞에서 직접 외우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 정도전은 경서를 완벽하게 외움으로써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경지를 꿈꿨겠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 젊은 유생들은 입으로만 달달 외울 뿐이고 시험의 부정은 점차 만연하고 있었다. 춘정이 경서의 속뜻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술(製述)로 바뀌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였다.

과거를 둘러싼 그런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건국과 함께 제시된 과거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계는 1392년 7월 17일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거행한 뒤, 일주일 뒤에 즉위교서를 반포했다. 정도전이 지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과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조항이었다. 문과와 무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약속. 중앙과 지방, 그 모든 곳에서 인재를 고루 육성하겠다는 의지. 공적제도[公擧]를 사적 관계[私恩]로 전락시켜버린 고려왕조의 과거제에 대한 비판. 모두

12 실제로 춘정은 儒者 그것도 主文者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仙道와 佛敎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사 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쉽사리 굽히지 않았다. 『세종실록』 세종 8년 21일 기사 참조.

13 『세종실록』 즉위년 12월 13일.

새 나라를 이끌어갈 문무 관료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겠다는 정책의 천명이었다.

그런 개혁적 조치에는 음풍농월(吟風弄月)로 비취질 법한 시문(詩文) 창작의 능력보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필요한 사서오경(四書五經)의 체득 정도를 중시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제도 개혁의 맨 끝에 적혀 있는 “감시(監試)는 폐지한다.”라는 구절은 가히 혁명적 조처였다. 유교지식이 절대적 학문권력으로 전환되는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지배계층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춘정 또한 그런 시대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초장에서의 강경(講經)을 제술(製述)로 바꾸려고 했던 까닭은 앞에서 든 폐단과 함께 대외관계를 위해서도 사장(詞章) 능력의 향상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근의 견해를 끌어오는가 하면, “정도전이 처음으로 진사과를 폐지하고 생원시에 합하니, 이색(李穡)이 이를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鄭道傳始廢進士, 合於生員試, 李穡甚恨之.]”<sup>14</sup>라며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춘정 자신이 살아 있는 기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주장대로 강경 대신 제술이 채택되는 성취를 맛보기도 했다.<sup>15</sup>

③ 다음, 국가 운영 주체에 있어서도 춘정은 정도전과 극명하게 갈렸다. 다시 말해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일까를 둘러싼 이견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도전은 재상정치(宰相政治)라는 정치적 이상을 추구했다. 그에 반해 춘정은 전제왕권(專制王權)의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춘정이 태종의 구언(求言)에 지어 올린 봉서(封書) 내용은 그 대표적인 발언으로 자주 인용된다.

신은 임금의 직책은 정승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면 백관(百官)과 만사(萬事)가 제각기 타당성을 얻는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훌륭한 사람을 얻으려고 고심하다가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편안히 앉아서 장구한 치세와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옛날에는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은·주 삼대(三代)의 백성은 정직한 도리로 산 자들이었고, 성왕(成王)을 보필한 주공(周公)은 충성스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언비어의 번고를 면치 못해 천하가 뒤숭숭하여 왕실이 흔들릴 뻔했는데, 후세로 내려와서 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삼

<sup>14</sup> 『세종실록』 즉위년 12월 13일.

<sup>15</sup> 조선 전기 講經과 製述을 둘러싼 논의는 이종목, 「조선 전기 문예정책과 관각문인의 문학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4: 문학사상편』(한국국학진흥원, 2006)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가 권력은 천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이고, 이익은 천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권력과 이익의 칼자루는 하루라도 아랫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임금은 외롭고 신하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권력과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아래로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sup>16</sup>

태종 15년(1415) 여름의 가뭄은 무척 극심했다. “요사이 오랫동안 가뭄어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sup>17</sup>는 태종의 말처럼, 그해 6월에는 종묘와 명산대천에 비를 빌고, 육선(肉膳)을 거두고 술도 끊고, 여무(女巫)에게 백악산에 가서 비를 빌게 하고, 시정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하고, 한강에서 일본식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구언의 전지를 내렸는데, 위의 인용문은 그에 대한 춘정의 대답이다. 그 절박했던 만큼, 그 대안도 구체적이다. 먼저 ‘몸조섭을 신중히 할 것[慎調攝]’을 시작으로 하여 ‘천명의 터를 닦을 것[基天命]’, ‘자문을 널리 받을 것[廣咨訪]’, ‘사대를 신중히 할 것[慎事大]’,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厚民生]’,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하들을 제대로 통솔할 것[御群臣]’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인용은 그 마지막 항목의 첫 구절이다. 이런 춘정의 주장은 재상중심론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웠던 정도전의 정국운영 원칙이나 방식<sup>18</sup>과 완전하게 다르다. 정도전이 태조 3년(1394)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편찬하면서, 『주례』의 육전체제를 전범으로 삼아 통치이념과 통치조직을 체계화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는 그곳의 「치전(治典), 총서(總序)」에서 재상중심론 또는 군신공치론(君臣共治論)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강조했다.

「치전(治典)」은 총재(冢宰)가 관장하는 것이다. 사도(司徒) 이하가 모두 총재의 소속이니, 「교전(敎典)」 이하 또한 총재의 직책인 것이다. 총재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육전(六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라는 것은 위로는 군부(君父)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百官)을 통솔하며 만민(萬民)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한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

<sup>16</sup> 『춘정집』 권6,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

<sup>17</sup> 『태종실록』 태종 15년 6월 14일.

<sup>18</sup> 한영우가 정도전의 정치사상을 재상중심주의로 규정한 이래, 그의 주장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서울대출판부, 1973) 참조.

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다. 이처럼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相)이라 하니, 즉 보상(輔相)한다는 뜻이다.<sup>19</sup>

앞서 인용한 춘정의 군주-신하의 관계와 얼마나 다른가는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전제군주체제 아래에서 ‘재상중심론’ 또는 ‘신권론’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비판은 경청할 필요가 충분하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정의 군신관이 정도전이 구상하고 있던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 설정과는 매우 다른 지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왕권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실권을 잡으려 했다.”거나 “제2인자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했다.”는 명분을 끌어대며 정도전을 참살했던 태종의 왕권 강화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도전이 꿈꾸었던 이상주의가 건국 초기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겪어가면서 점차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나름의 현실적 방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1</sup> 더욱이 춘정 자신이 막강한 신하의 권력에 의해 고려 왕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도했던 바, 제어장치 없는 신권의 강화는 경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춘정의 그런 정국 운영 구상은 위에 거론한 봉서(封書) 가운데 ‘자문을 널리 받을 것[廣咨訪]’의 조항에서 일정정도 드러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금의 자문에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학술기관인 집현전(集賢殿)의 설치를 세종 2년에 건의했던바, 그것은 새로운 왕권강화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기획의 일환이었다.

### 3. 춘정의 문명의식: ‘단군(檀君)’과 동인의식(東人意識)의 발현

㉠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건국한 새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짓고자 했다. 예전의 ‘고조선(古朝鮮)’을 잇겠다는 의미에서였다. 물론 그때의 조선은 환웅의 아들 단군이

<sup>19</sup> 정도전, 『朝鮮經國典』 上卷, 「治典 總序」

<sup>20</sup> 박홍규·방상근, 「정도전의 ‘재상주의론’ 재검토」, 『대한정치학회보』 제15집 3호(대한정치학회, 2008.2) 참조.

<sup>21</sup> 최연식, 「여말선초의 권력 구상: 왕권론, 신권론, 군신공치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한국정치학회, 1998) 43-44면.



세운 ‘단군조선’이 아니라 주(周)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으로 보내 제후에 봉했다는 ‘기자조선’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기자가 무왕에게 가르쳐주어 주나라의 정치적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땅에서 직접 실천했다는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이상을 재현해보겠다는 건국 주역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정도전은 그런 사실을 이렇게 천명했다.

지금 천자(天子, 明太祖)가 “오직 조선(朝鮮)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구원하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고 명하였다. 아마 주(周) 무왕(武王)이 기자(箕子)에게 명하던 것으로 전하에게 명한 것이니, 이름이 이미 바르고 말이 이미 순조롭다.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洪範)을 설명하고 홍범의 뜻을 부연하여 8조의 가르침을 지어서 나라 안에 실시하니,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조선이란 이름이 천하 후세에 이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善政)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sup>22</sup>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가 베풀었던 선정을 마땅히 펼쳐야 한다는 선언에서 정도전의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물론 그렇다고 단군조선을 세운 단군의 존재가 완전 무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단군과 기자는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부터, 다시 말해 고려 말 원의 복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슬로건으로 종종 활용되었던 바,<sup>23</sup> 조선의 건국 이후에는 평양부윤으로 하여금 단군과 기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임무로 정해두기도 했다.<sup>24</sup> 그 이후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는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단군은 기자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되거나 제사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정종(定宗)의 즉위교서를 보면, 문선왕(文宣王)과 기자에 대한 제사만 언급되고 있을 뿐 단군은 거론되고 있지 않다.<sup>25</sup>

건국 초기 단군은 기자에 비해 그다지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태종

<sup>22</sup> 정도전, 『朝鮮經國典』 上, 「國號」

<sup>23</sup> 『태조실록』 1권 「총서」 12월 “(이성계가) 金州와 復州 등지에 榜文을 포고하기를, ‘본국은 堯帝와 같이 建國했으며, 周武王이 箕子를 조선에 封侯하여 영토를 주어 서쪽으로 遼河에 이르렀으며 대대로 강토를 지켜왔다.’”

<sup>24</sup> 『태조실록』 태조 1년 8월 11일. “禮曹典書 趙璞은 “조선의 檀君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天命을 받은 임금이고, 箕子는 처음으로 教化를 일으킨 임금이니,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sup>25</sup> 『태조실록』 태조 7년 9월 12일.

12년 단군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예조우참의(禮曹右參議) 허조(許稠)가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자의 사당을 둘러보고 돌아온 뒤였다. 그때 사행에서 만났던 명나라 이부상서 건의(蹇義)는 “기자의 후손이 있는지?”,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등을 물어왔던 바, 그런 깊은 관심을 태종에게 전달했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요임금에게 제사 지내는 명나라의 예법에 준하여, 조정에서 관원을 파견해 기자 사당에서 제사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륜(河崙)이 예전에 단군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건의했던 사실이 새삼 환기되면서, 예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올렸다.

기자의 제사는 마땅히 사전(祀典)에 신고, 춘추(春秋)에 제사를 드리어 숭덕(崇德)의 의를 밝히야 합니다. 또 단군(檀君)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한 사당[廟]에 제사지내야 합니다.<sup>26</sup>

태종 12년 국가적 차원에서 기자 사당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단군에게도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조처와 함께 제사 드리는 시기가 춘추로 정해지고, 다음해인 태종 13년에는 이들에 대한 제사가 중사(中祀)에 정식으로 등재되고, 그 다음해인 태종 14년에는 격식에 맞는 제사의(祭祀儀)가 갖추지게 되었다.<sup>27</sup> 그렇더라도 제사의 중심은 여전히 기자였다. 단군은 기자 사당 한 모서리에 모셔져 있었을 뿐이니,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온 사온서주부(司醢暑主簿) 정척(鄭陟)은 “기자의 신위는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고, 단군(檀君) 신위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자가 주벽(主壁)이고, 단군은 종향(從享)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척은 격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건의를 올렸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단군은 요 임금과 같은 시대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국호를 조선이라 하신 분이요, 기자는 주나라 무왕의 명을 받아 조선에 봉해진 분입니다. 햇수를 따지면 요임금에서 무왕까지가 무려 1,230여 년입니다. 그러니 기자의 신위를 북쪽에 모시고, 단군의 신위를 동쪽에 배향한 것은 실로 나라를 세워 후세에 전한 일의 선후에 있어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의 생각에는 단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위를 남향하도록 하여 제사를 받들면 제사 의식에 합당할까 합니다.”<sup>28</sup>

26 『태종실록』 태종 12년 6월 6일.

27 『태종실록』 태종 12년 7월 17일, 태종 13년 11월 4일, 태종 14년 9월 8일,

28 『세종실록』 세종 7년 9월 25일.



세종은 정척의 글을 예조에 내려, 그대로 이행하도록 분부했다. 실제로 세종대에 비로소 사직과 종묘와 같은 <대사(大祀)>에 이은 <중사(中祀)>의 대상으로 ‘풍운뢰우(風雲雷雨)’와 ‘악·해·독(嶽海瀆)’, 그리고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와 “문선왕(文宣王)→조선(朝鮮) 단군→후조선(後朝鮮) 기자→고려 시조(高麗) 시조”의 위차가 정립되었다.<sup>29</sup> 이처럼 단군이 동방의 시조로서 자신의 자리를 잡기까지, 공을 세운 인물로는 하륜(河崙)과 정척(鄭陟)이 직접 드러나 있다.<sup>30</sup>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은 춘정의 스승이자 제자였던바, 태종 7년 예조참의(禮曹參議)를 거쳐 태종 17년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낸 춘정이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일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춘정이 단군의 존재를 강조했던 까닭은 곧바로 조선의 국왕은 중국 내의 제후와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인식, 곧 조선은 독자적인 성교(聲敎)를 펼칠 자유가 있는 자주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동인의식(東人意識)으로 나아가는 주요 거점이었던 것이다.

② 물론 춘정이 단군을 우리 동방의 시조임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의 동인의식(東人意識)이 민족사의 기원을 독자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역시 건국의 주역인 정도전과 같이,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중화와 더불어 짝을 이루게 된 것이 기자의 교화 덕분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의 교화만 강조하는 ‘중화적 문명의식(文明意識)’을 넘어서서 민족사의 기원인 단군으로 표상되는 ‘자주적 동인의식(東人意識)’이 결합된 조선 중심의 문명의식을 구상하고자 했던 것이다. 단군에 대한 춘정의 그런 생각을 직접 읽어보자.

우리 동방은 단군(檀君)이 시조인데, 대개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자가 분봉(分封)한 나라가 아닙니다. 단군이 내려온 것이 당요(唐堯)의 무진년(戊辰年)에 있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3천여 년이 됩니다.<sup>31</sup>

<sup>29</sup> 『세종실록』 128권, 「辨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세종의 제안과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등의 지지를 받아 ‘기자조선’을 ‘후조선’으로 바꿔 명명하고 있는 점이다. 단군과 기자의 위차가 국호로도 확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세종실록』 세종 12년 4월 8일 기사 참조.

<sup>30</sup> 정척은 뒷날 대제학의 직임을 맡기도 하거니와 춘정의 遺稿를 편찬하고 行狀도 쓰는 등 『春亭集』 발간을 주관했던 守門弟子였다.

<sup>31</sup> 『태종실록』 태종 16년 6월 1일.

춘정이 단군을 주목했던 까닭은 분명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조선은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의 후예이지, 중국 천자가 분봉(分封)한 제후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기자의 교화로부터 중국과 견줄 만한 문명의식을 자부하는 한편 단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 지식인들은 이율배반적인 ‘중화의식’과 ‘동인의식’이 절묘하게 동서(同棲)하는 조선적 문명의식의 논리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기는 세종 1년, 판한성부사 권홍(權弘)이 상소를 올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상소 내용은 이러했다.

기자(箕子)는 현인으로 천하 만세가 다 같이 공경하고 사모하는 바이며, 우리 공부자(孔夫子)도 은나라에 세 어진 이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방의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중국과 견줄 수 있는 것은, 기자가 이 땅에 봉해져서 8조의 교훈을 베푼 까닭이니, 동방에 끼친 공이 매우 대단합니다. 태조께서 개국하시고 으뜸으로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선성(先聖)에 대한 존숭이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묘소에 비석이 없어 공덕을 현양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신에게 명하여 비문을 지어서 묘소 아래에 세워 후세에 알리도록 하옵소서.<sup>32</sup>

세종은 기자의 묘소는 세대가 오래 되어 믿기 어려우니, 비문을 지어 사당 앞에 세우게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비문은 곧바로 지어지지 않았다. 분부가 내려진지 10년이 지난 세종 10년 4월 29일이 되어서야 지어 바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리 늦어졌을까? 되짚어보면, 그 기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자와 단군을 둘러싸고 누가 제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세종 7년 정책의 건의에 의해, 단군이 기자의 사당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사당을 지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 춘정은 세종의 분부에도 불구하고 단군과 기자의 위치를 둘러싼 분분한 논란 때문에 비문의 작성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7년 9월 단군 사당을 별도로 지어 제사를 지내라는 분부가 내려지고 난 뒤에도 사태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세종 9년 단군과 기자의 묘제를 다시 의논하라고 예조에 전지를 내린다. 그리고 세종 10년 1월 26일, 기자의 비문을 묘 앞에 세울 것인가 사당 앞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 논란을 벌인다. 결국 사당 앞에 세우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절차가 쉽지만은 않았다.

어찌되었든, 그런 논란이 모두 정리된 뒤에 다시 춘정에게 기자의 비문을 쓰도록

<sup>32</sup> 『세종실록』 세종 1년 2월 25일.



했다. 우여곡절을 끝에 춘정이 지은 기자의 비문은 이러했다.

거룩하다, 천하의 안위(安危) 그 한 몸에 달려 있었네. 거두어 동쪽으로 오시니, 하늘이 그를 우리의 스승으로 하셨도다. 팔조(八條)의 그 법으로 가르치고 다스렸네. 우매한 자 뉘 아니 밝아지며, 유약한 자 뉘 아니 강해지리. 길에 흘린 물건을 줍지 않는다고 『한서(漢書)』는 칭찬하였고, 동이(東夷)를 중화(中華)로 변화시켰다고 당나라의 비석에 쓰여 있네. 부지런히 힘쓰시는 우리 임금, 꿰어진 학문을 크게 다시 이으시니, 마음은 그 이치에 합치하고 몸으로는 그 법을 실천하시네. 부왕(父王)께서 시작하시고 사왕(嗣王)이 이으시니, 사당집 날아갈 듯 장엄하네.<sup>33</sup>

#### 4. 춘정의 시대정신: '제천(祭天)'과 성교자유(聲敎自由)의 실천

㉠ 세종 12년 4월 23일, 춘정이 62세를 일기로 삶을 마쳤다. 그리고 『세종실록』에는 졸기(卒記)가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다음 구절이 흥미롭게 읽힌다.

관우군부사 변계량(卞季良)이 죽었다. 계량의 자는 거경(巨卿)이요, 호는 춘정(春亭)이니, 밀양부(密陽府) 사람 옥란(玉蘭)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네 살 때 고시대구(古詩對句)를 외고, 여섯 살 때 벌써 글귀를 지었다. (중략) 계량이 문형(文衡)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맡아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사명(詞命)이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시험을 관장하여 선비를 뽑는 데 있어 언제나 매우 공정하게 하여, 전조(前朝)의 멋대로 부정(不正)을 자행하던 관습을 모두 고쳤다. 일을 의논하고 의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종종 보통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문(文)을 맡은 대신으로서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귀신을 섬기고 부처를 받들었으며, 하늘에 절하는 일까지 하여서 하지 않는 바가 없었으니, 식자(識者)들이 그를 나무랐다.<sup>34</sup>

대부분의 졸기가 그러하듯, 간단한 인물정보와 함께 어려서의 명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인물이라면, 어찌 범상할 수 있었겠는가? 실제로 그는 고려 말부터 세종 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에서 활동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적으로는 예조판서와 함께 조선 최초의 문형(文衡)을 20년 동안 맡아왔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건국 초

33 『春亭集』 권12, 「箕子墓碑銘 并序」. 이 비문은 『세종실록』 세종 10년 4월 29일의 기사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

34 『세종실록』 세종 12년 4월 23일.

기에 불거지는 까다로운 외교문서와 예법의 문제를 도맡아 처리했던 것인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재양성이다.

여말선초라는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인재를 잃어야 했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여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하여 춘정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육성하는 학술기관인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상 잡무로부터 벗어나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를 많은 논란 끝에 도입했으며, 기존 관원들도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에 힘쓰도록 정례적으로 치르는 시험 제도를 만들었다. 위의 줄기 가운데 인재선발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여, 고려 왕조의 폐단을 혁신했다는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구절, 곧 “종종 보통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의견을 내었다.”는 기록이 눈길을 끈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얼핏, 엉뚱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아니면, 반대다. 당대적 시류(時流)에 편승하거나 못사람의 견해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견지했다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읽든 그런 평가가 뒤이어 거론되고 있는 사실, 곧 춘정이 귀신과 불교를 섬기고, 심지어 하늘에 제사까지 지냈다는 사실과 관련된 평가임에는 분명하다. 유교문명 국가를 표방하며 건국한 조선의 전례(典禮)를 책임지고 있는 예문관대제학이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불교를 믿고 있었으니, 그런 평가를 들을 만도 했다. 더욱이 하늘에 제사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명나라에 사대(事大)의 예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고자 했던 조선의 건국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참람한 사안이었다.

하늘에 제사지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천자만이 가지고 있어,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는 감히 거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찍이 노나라 계씨(季氏)가 참람하게 태산에 여제(旅祭)를 지내려 하자, 공자가 “태산이 임방(林放)만 못하다더냐.”[曾謂泰山不如林放乎, 『논어, 八佾』]라고 제자 염유(冉有)를 꾸짖은 이래, 그건 불변의 진리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춘정은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과는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지낼 수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쳤다. 실제로 위의 줄기 가운데 생략된 부분에도 춘정의 그런 주장이 직접 인용되고 있다. 을미년(태종 15년, 1415)의 가뭄이 극심하자, “우리나라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 비록 예(禮)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일이 절박하니 원단(圓壇)에 기도하소서.[本國祭天, 雖云非禮, 事既迫切, 請禱圓壇.]”라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태종은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튿날 정말 큰비



가 내렸다고 한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때문에 그날의 사건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심지어 국고문헌에까지 실렸을 정도다.

태종 15년 상이 큰 가뭄으로 매일 한 가지 반찬만 먹고, 피약별 아래 나앉아 있다가 병에 걸려 한참 만에 회복되었다. [보론] 5월 초10일은 태종의 기일이다. 당시 태종이 위독했는데 하늘에서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내외의 산천에서 두루 기도를 드리려 하였다. 상이 그를 걱정하며 말하기를 “가뭄이 이처럼 심하니, 백성들은 어찌 살아날까? 내 마땅히 하늘에 고하여 즉시 단비가 내리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상이 승하하였는데, 도성 일원에는 큰비가 내리고 마침내 풍년까지 들었다. 이후부터 태종이 승하한 날에 비가 오지 않은 해가 없어, 사람들은 그 비를 ‘태종비[太宗雨]’라 불렀다.<sup>35</sup>

그 유명한 ‘태종비’의 유래이다. 이후, 민간의 세시풍속에서 사실처럼 전승되어 왔던 것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문인들은 전고(典故)로 활용할 정도였다. 이처럼 효험을 보기도 했던, 하늘에 비를 기원하는 의식을 조선에서 행할 수 있다고 춘정이 주장했던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 우리의 조상인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우리는 오랫동안 제천의식을 치러왔다. 둘째, 조선은 중국이 다스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교(聲敎)의 자유를 명나라 태조로부터 허락받은 바 있다. 셋째, 정상적이지 않은 변란에는 권도(權道)로서 대처할 수 있는 법이다. 그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자.

하늘에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디만, 그러나 1천여 년이 되도록 이를 고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태조강헌대왕(太祖康憲大王)이 또한 이를 따라 더욱 공근(恭謹)하였으니, 신은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단군은 해외에 나라를 세워 박략(朴略)하고 글이 적고 중국과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찍이 군신의 예를 차리지 않았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에 이르러서 은(殷)나라의 태사(太師)를 신하로 삼지 아니하고 조선에 봉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행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중국과 통하여 임금과 신하의 분수에 찬연하게 질서가 있으니, 법도를 넘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은 말하기를, 천자는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山川)에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예의 대체(大體)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제후로서 하늘에 제사한 경우도 또한 있었다.<sup>36</sup>

35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 제10. “十五年, 上以大旱, 日御一膳, 或露坐日中, 以致違豫, 久乃平復. [補] 五月初十日, 太宗忌辰也. 當太宗惟幾之日, 天久不雨, 內外山川禱祠將遍, 上憂之曰, 亢旱如此, 民何以活. 我當上告于天, 卽降甘雨也. 翌日上賓而都內大雨, 遂致豐稔. 自是, 是日無歲不雨, 人謂之太宗雨.”

36 『태종실록』 태종 16년 6월 1일.

② 물론 춘정의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명나라에 대한 군신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점, 예가 아니면 하늘이 흠향하지 않으리라는 것, 등등.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의 건국이념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춘정 혼자 앞서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 들지 않았다. 심지어 미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지금 말이지만, 하늘에 기도한다고 비가 올 이치가 있겠는가? 하지만 춘정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하늘에 빈다고 해도 비가 온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빌지도 않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건 이치에 맞는가?”라고. 그러고 보면, 그 말이 보다 적실한 듯도 하다.

하지만 춘정이 제천(祭天)의 실시를 그토록 당당하고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끝내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의 춘정 발언이 중요하다.

변계량은 “우리나라가 멀리 해외(海外)에 있어서 중국의 제후와 같지 않기 때문에 고황제(高皇帝)가 조서하기를, ‘천조지설(天造地設) 하였으니 스스로 성교(聲敎)를 하라.’ 하였고, 또한 지난 조정의 왕씨(王氏)가 이미 이 예를 행하였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이 예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전하가 덕을 닦아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이 지극하더라도 반드시 하늘에 비는 일이 있는 연후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였다.<sup>37</sup>

춘정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명 태조 주원장에게 허락 받았던 ‘성교(聲敎)의 자유’를 들어서 조선에서는 중국 안의 제후국과 달리 독자적인 교화를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조 1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올 때, 태조 이성계는 백관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 맞이하였다. 그때, 조임은 다음과 같은 명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달했다.

우리 중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혼단(驛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sup>38</sup>

37 『태종실록』 태종 17년 12월 4일.



고려, 곧 조선은 중국과 산과 바다로 가로 막힌 별도의 지역이라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교(聲敎)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이런 태도는 태조 이성계가 왕자의 난을 거치고 난 뒤, 만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종 1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나갔던 김사형(金士衡)·하륜(河崙)·설장수(設長壽)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돌아왔다. 정종(定宗)도 면복(冕服) 차림으로 친히 나가 맞이했다. 명나라에서 보내온 자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건문(建文) 원년 4월 25일에 조선국에서 자문(咨文)한 것에 준하면, “본국 왕이 연로하고 병들어 이미 아들 모(某)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게 하고, 자문으로 청하노니 주문(奏聞)하여 시행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이달 26일 이른 아침에 본부(本部) 상서(尙書) 진적(陳迪) 등의 관원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니, “이미 태조황제(太祖皇帝)께서 본국에 조유(詔諭)하기를, ‘의례(儀禮)는 본국의 풍속에 따르고, 법은 예전 법을 지키며, 스스로 성교(聲敎)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으니, 금후에도 그 나라 사무는 또한 스스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상량 합의하여 이자(移咨)하는 것이니, 조험(照驗)하여 시행하도록 하라.<sup>39</sup>

조선 건국 직후, 명나라와 조선은 엄연하게 다른 독립 국가로서 자국의 풍습에 맞는 독자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 명 태조의 말대로, “사대의 예의만 제대로 갖춘다면!” 그전 앞서 중화문명의 직접적인 교화라는 맥락에서 강조했던 기자의 존재에 더하여 동방의 시조로서 단군을 끌어들이던, 그리하여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 두 인물을 모순되지 않게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던 춘정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더욱이, 그런 성교자유(聲敎自由)의 자문을 받아오는 사신의 행렬에 하륜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춘정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국가 주도의 단군제사를 건의했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춘정의 그런 시대정신은 세종과도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춘정과 세종은 다음과 같은 공감을 주고받고 있었다.

[1] 상이 변계량을 불러 이르기를, “『시경』 「빈풍(邇風)」과 『서경』 「무일(無逸)」에 농사짓는 어려움이 모두 실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습은 중국과 다르다. 민간의 생업(生業)의

38 『태도실록』 태조 1년 11월 27일.

39 『정종실록』 정종 1년 6월 27일.

어려움과 요역(徭役)의 고초를 경들이 달마다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경계하는 말까지 곁들여서 올리도록 하라.”하였다.<sup>40</sup>

[2] 임금의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雅樂은 본디 우리나라의 聲音이 아니고 중국의 성음인데,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므로 제사에 연주하여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는 鄉樂을 듣고, 죽은 뒤에는 雅樂을 연주하니 어찌된 셈이냐.” 하였다.<sup>41</sup>

세종도 춘정과 같이 중국의 풍습과 조선의 풍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상의 제사에 듣도 보도 못한 중국의 아악(雅樂) 대신에 살아생전 즐기던 우리의 향악(鄉樂)을 연주해야 옳다던, 세종의 주장이 싱그럽기 그지없다. 그러기에 서로 자국의 현실에 맞는 성교(聲敎)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뒷날,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云云”하며 독자적인 성교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자적 문자인 ‘훈민정음(언문)’의 창제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세종 10년 진주 지역에서 발생한 패륜, 곧 김화(金禾)라는 자의 살부(殺父)를 보고 받은 춘정은 곧바로 『효행록』을 편찬하여 전국에 반포하자고 건의한다. 세종은 그런 건의를 흔쾌하게 받아들였고, 그건 『삼강행실도』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가운데 하나가 백성의 교화에 있었던 바, 우리글을 창제한 뒤 가장 먼저 착수하고자 했던 작업이 『삼강행실도』의 언해(諺解)였음은 우연이 아니다. 조선의 말과 글을 통한 조선 백성의 교화, 곧 조선의 독자적인 성교(聲敎)를 춘정과 세종은 함께 꿈꾸었던 것이다.

춘정과 세종의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던 그때 그들의 주장은, 춘정의 죽음과 함께 점차 역사의 뒤편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주자주의(朱子主義)의 대대적인 확산과 그에 따른 경직된 사대주의(事大主義)의 풍조와 함께 밀려드는 당대 시류(時流)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했던 것이다.

## 5. 맺음말: 춘정이 세종과 함께 도모한 꿈의 복원을 위해

춘정의 활동 무대는 창업의 시대였던 태종 치세 후반과 수성의 시대였던 세종 치

<sup>40</sup> 『국조보감』 세종 6년.

<sup>41</sup> 『세종실록』 세종 12년 9월 己酉.



세 전반이다. 태종을 이어받은 세종이 부왕의 삼년상을 마치고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를 펼치기 시작하던 무렵, 세종은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주로 조부 태조와 부친 태종을 위한 악장을 짓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치를 노래에 담아내는 악장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예문관 대제학을 맡고 있던 변계량의 몫이었다. 세종 7년, 변계량이 지은 악장 <화산별곡(華山別曲)>은 그렇게 해서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려 때부터 널리 불려오던 노래 <한림별곡>의 가락에 얹어 불렸다.<sup>42</sup>

모두 8장으로 구성된 그 노래에는 세종의 치세 7년간의 업적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당당한 어조로 담겨 있다. 제1장은 한양 도읍의 광경, 그리고 태조·태종의 창업에 이은 세종의 지수(持守) 광경[太祖太宗 創業貽謀 / 偉 持守 景其何如], 제2장은 대마도 정벌을 통한 변경의 평안, 그리고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의 눈부신 성과[至誠至孝 陸隣以道 / 偉 兩得 景其何如], 제3장은 학문의 진흥, 그리고 집현전(集賢殿) 설치로 대변되는 우문(右文) 정치의 구현[天縱之聖 學問之美 / 偉 古今 景其何如], 제4장은 국방의 준비, 그리고 강무(講武)를 통한 철저한 방어 준비[長慮却顧 安不忘危 / 偉 豫備 景其何如], 제5장은 무일(無逸)의 정치, 그리고 고금을 살펴 밤낮없이 부지런한 정치[天生聖主 以惠東人 / 偉 千歲乙 世伊小西], 제6장은 한양의 장관, 그리고 경회루를 비롯한 신선 사는 모습[蓬萊方丈 瀛洲三山 / 偉 何代可覓], 제7장은 연희의 기쁨, 그리고 부모와 신하와 백성이 함께 즐기는 모습[天生聖主 父母同仁 / 偉 萬歲乙 世伊小西], 제8장은 완전한 정치, 그리고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복돋는 정치의 구현[華山漢水 朝鮮王業 / 偉 竝久 景其何如]<sup>43</sup> 등이 차례로 노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산별곡>에 열거되고 있는 세종 초반의 정치적 치적은 곧바로 춘정 자신이 함께 한 업적이기도 하다. 모든 사건에 춘정의 손길과 숨결이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춘정의 죽음은 주자주의와 사대주의라는 시류(時流)를 만나서 점차 잊혀지고 말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 성종 13년(1482) 7월 18일, 오랜만에 춘정의 이름이 조정에서 거론되었다.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그때,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보자는 임숙(任淑)의 상소문을 의논해보라고 대소신료를 불러 모은 자리였다. 하지만 논의는 싱겁게 끝나고 만다. “태종 때 변계량의 주장은 비례(非禮)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취할 만하지 못합니다.”[太宗朝卞季良之議, 不知陷於非禮, 不足取法.]”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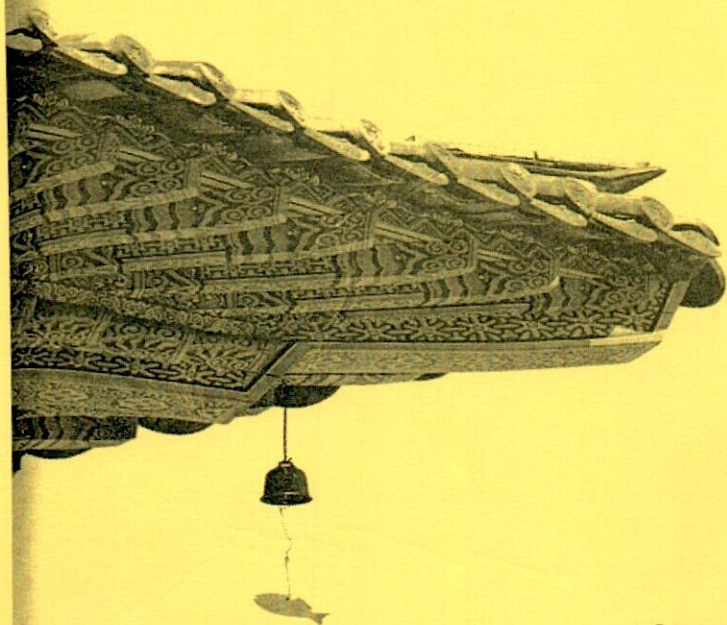
<sup>42</sup> 손태룡, 「변계량의 악가 창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40권(한국음악사학회, 2008)

<sup>43</sup> 김승우, 「경기체가 <화산별곡>의 제작 배경과 구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32(한국어문학회, 2016) 183-184면.

그리하여 푸른 하늘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원하던, 우리의 유구한 제천의식은 ‘비례(非禮)’라는 한 마디로 폐기되어 버렸다. 정말, 백성의 굶주림보다 중국에 대한 사대가 소중했던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지금이야말로 지난 시절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던 춘정의 아름다운 꿈을 다시금 음미하며 되살려야 할 때일 것이다.







# 춘정 변계량의 사상적 특성



천 인 석 / 대구한의대학교





# 춘정 변계량의 사상적 특성

천인석(대구한의대 기초교양대학)

1. 들어가며
2. 여말선초 성리학의 적전
  - 1) 사승관계와 수학
  - 2) 한당유학과 도교와 불교에 대한 비판
3. 주자 성리학의 수용과 활용
  - 1) 中論
  - 2) 心性論
4. 전통사상의 계승
  - 1) 주재자로서 天 의식
  - 2) 제천 의례
  - 3) 단군, 기자의 계승
  - 4) 인정과 애민사상(민생의식)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철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그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거나 거슬리면서 한 사람의 철학이 정립된다. 춘정 변계량(1369-1430)은 여말선초라는 한국사상사에서 가장 치열한 격변의 시기에 살았으며, 그가 살았던 시대의 학문과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중 한 분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의 격변은 동아시아 문명의 일대전환과도 맞물려있으며, 문예부흥이라는 인류문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사상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말선초의 사상계는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한 시대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관학인 유교와 국교인 불교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공존하였으며, 사상적으로 불교가 우위를 점하던 시대에서 철학적 儒學인 性理學이 佛教와 道教 및 淫祀로 불리던 여러 토속적인 종교사상을 배척하고 독존하는 시대로 변화한 사상적으로 독특한 시기라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한국철학계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이전 의천이나 지눌 같은 승려들이 활약하던 고려불교철학의 전성기에 대한 관심이나, 정암 조광조의 도학정신이나 퇴계 이황, 율곡 이이의 조선성리학의 성숙하고, 독창적인 이론체계가 수립된 시대의 논쟁에 대한 관심에 대한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시대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그 시대 학자들의 철학사상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연구 성과도 많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변계량을 비롯한 당시 학자들의 업적과 사상사적 의의에 대하여 저평가된 것에 대한 지적은 학계의 공통된 견해라고 볼 수 있 것이다.

본고에서는 변계량의 사상적 특성을 당시 일반적인 성리학자들과의 차이점을 고찰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변계량 철학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관료 유학자들의 사상과 그 의의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로잡는데 일정부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 결과로 세종시대 성리학의 특성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에 근본원리를 조화 속에 밝히려는 관심과 심성론의 소박한 근원성의 확신과 실천적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sup>1</sup>는 점을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춘정의 철학사상의 특징은 한대적 인식과 주자학적 인식, 그리고 心學적 인식이 하나의 사상체계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는 연구결과가 있다.

춘정은 조선 초기 시대에 대하여 태조시대는 창업의 시대이고, 태종대는 창업과 수성을 병행했던 시대이며, 세종대는 수성에 전념해야 되는 시대로 이해했다.<sup>3</sup> 이러한 시대 구분은 그의 사상의 변화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천재적 자질을 보였으며, 진사·생원·양과는 물론이고 대과인 문과까지 소년 등과하여 일찍부터 관료에 들어가는 입신의 길을 걸으며 꿈을 키웠으나 격변을 겪은 태조때까지의 청년기는 개혁적인 성리학자였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주역으로 활동했던 태종대의 장년기는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천년왕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세종을 성군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1 금장대, 『朝鮮前期의 儒學思想』, 서울대출판부, 2003 초판2쇄, 120쪽.

2 김홍경, 「卞季良의 哲學思想 研究」, 민족문화 제14집, 132쪽.

3 『春亭集』 卷7 封事·上書, 「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 我太祖專於創業 我殿下專於守成 我上王殿下則兼乎創業與守成矣 創業之時 貴乎進取 守成之日 貴乎安靜 時勢然也

노년기의 꿈이었을 것이다. 그때에는 온건한 조화론자로서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는 이념과 제도를 확고히 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상적 특성은 당대의 수많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논쟁 속에서 그가 선택한 노선을 분석함으로써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 2. 여말선초 성리학의 적전

### 1) 사승관계와 수학

한 인물의 사상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변계량은 고려 귀족의 후예로 성품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다. 이러한 천재성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거장들로부터 두루 학문을 물려받았다. 그가 탐구한 학문은 바로 성현의 학문이며, 그 주된 내용은 성리의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배운 경서는 ‘사서’가 그 중심을 되었으며, 그 중에서 주자가 학자들의 ‘입덕지문’이라고 불렀던 『대학』과 주자가 최후까지 주석을 수정했던 『중용』이다. 『대학』은 그 내용이 ‘경’을 바탕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공을 이룩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중용』에서는 사람이 천도인 ‘誠’을 목표로 중화를 이룩하여, 천지만물과 더불어 하나가되는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춘정의 제자 鄭陟이 쓴 행장과 후학인 안지의 『춘정집』 발문 내용과 스승 권근의 아들이자 그와 절친했던 권제의 문집 서문을 보면 그의 사승관계의 대체를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그의 학문적 경향성과 업적의 개략도 가늠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그가 여말 선초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적전임을 분명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리학자로부터 수학한 춘정의 사상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의 사상은 문형으로서 이룩한 여러 문화 활동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실체화되었음도 확인 할 수 있다.

공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리(性理)를 연구하는 것을 일로 삼아 날마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양촌(陽村) 권근(權近) 제현의 문하에 노닐었으니, 사우(師友) 연원(淵源)의 바름을 얻어 전문이 더욱 넓고 조예가 더욱 깊었다.<sup>4</sup>

<sup>4</sup> 『春亭集』 부록, 「行狀(鄭陟)」, 公自幼聰明絕人 好學不倦 以研窮性理爲務 日遊圃隱 牧隱 陶隱 陽村 諸賢之門 得師友淵源之正 所聞益廣 所造益深



춘정 변계량 선생은 본래 성품이 총명하고 행실이 범상치 않았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지은 시 가운데 놀라운 구절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경이롭게 여기었고, 장성하자 성현(聖賢)의 학문을 탐구하고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뜻을 연구하였으며 널리 여러 서적을 열람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 그래서 시문(詩文)으로 발로된 것들이 쇠소리 같은 음률이 나고 깨끗한 옥처럼 화려하였는데, 이는 바로 근원이 깊은 물이 멀리 흐르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찌 장구(章句)를 꾸미고 수를 놓기만 하였겠는가. 더구나 근래 대국(大國)에 보내는 표문(表文)이나 전문(箋文)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는데 더욱더 정교하여 중국의 문인들도 보고 감탄하였으니, 나라를 빛낸 문장이라고 할 만하고 후인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sup>5</sup>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명민(明敏)하고 학문이 정박(精博)하여 약관(弱冠) 이전에 포은(圃隱), 도은(陶隱)과 나의 선친(先親)인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제공(諸公)들에게 매우 칭찬을 받았으므로 화려한 명성이 날로 퍼져 갔다. 이로 말미암아 여유롭게 임금의 곁에서 항상 글 짓는 일을 맡았으므로 일시의 외교 문서가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는데 그 문장이 단아하고 고상하였다. 특히 시를 잘 지어 깨끗하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담박하면서도 천근하지 않았으니, 제공(諸公)들의 경지에 올라갔고 고인의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만하다.<sup>6</sup>

춘정은 스승들 모두 주자학에 정통한 성리학자이며, 춘정은 그들로부터 이어 받은 성리사상 기초한 사상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약관이전에 진사시와 생원시는 물론이고,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다. 그리고 학문의 범위가 경학 이학 문학, 의학, 진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으며, 동시에 정밀함까지 갖추었다. 특히 시문에 뛰어났으며, 문형으로서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인 표문(表文)과 전문(箋文) 대부분을 그의 손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공헌하였다.

5 『春亭集』 「舊跋(安止)」, 春亭卞先生性本聰悟 舉止不凡 髫髻之年 已有警句 人皆驚異之 及長 樂探聖賢之窟 研窮庸學之旨 博覽群書 頗有所得 故其發而爲詩文者 金聲其律 玉潔其華 正猶源深而流長 根固而條達 豈徒絺章繪句 含英摘藻而已哉 況邇來事大表箋 皆出其手 尤爲精切 中朝文人 亦見而歎之 可謂華國之文章 宜爲後人之楷範

6 『春亭集』 「舊序(權躋)」, 春亭卞先生天資明敏 學問精博 年未弱冠 師事圃隱 陶隱及我先人陽村文忠公 大爲諸公稱賞 華聞日播 由是優遊侍從 恒任文翰 一時辭命 多出其手 而文辭典雅高妙 尤長於詩 清而不苦 淡而不淺 可謂升諸公之室堂 而無讓於古人之作者矣

## 2) 한당유학과 도교와 불교에 대한 비판

성리학은 이 세상의 근원인 하늘의 근거를 밝히고, 인간의 본질인 본성의 근거를 밝히는데 그 특성이 있다. 천(天)과 인(人)의 ‘소이연(所以然)’을 규명하여, 인륜을 그 극한에 이를 때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당위로 생각했던 ‘인의예지’의 근거를 밝히는 철학적 유학이다. 그러므로 이단적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당연히 이 세상의 본체와 인간의 본성을 다르게 보는 불교와 도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천명과 인성에 대한 철학적 규명이 없이 경전에 대한 문자학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시문을 즐기며 정치제도와 형식적 의례에 관심을 두며, 이단인 노불과 공존했던 한당의 유학도 철저하게 비판한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훈고학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의 사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말선초 성리학의 적전인 변계량은 ‘성리학자답게 도통의 정맥을 이어 받아 불교와 도교는 물론이고 한당유학조차 이단으로 비판하였다.

다음의 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춘정은 한당의 학자들을 폄하하는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나아가 治國平天下의 도리는 聖學에 있음을 강조하고 사장학을 다시 한번 비판한다.

수많은 시냇물이 날마다 흘러드니  
끝도 없이 망망하여 건널 곳이 없구나  
세도가 날마다 내리막길 접어드니  
이제는 글러져 부지하기 어렵구나  
시끄럽게 이단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무지한 대중들이 의심을 품는다네  
어허 한나라 당나라 학자들이  
결국에는 고사의 웃음거리 되었구나  
치국이고 평천하고 성학에 담겼는데  
문장을 잘 해서 어디에 쓸 것인고

百川日流下  
蕩然無津涯  
世道日以降  
矣難扶持  
囂囂異端起  
貿貿衆心疑  
嗟彼漢唐子  
竟爲高士嗤  
治平在聖學  
焉用詞章爲<sup>7</sup>

“우리 임금님을 공리(功利), 형명(刑名)의 잡술에 빠지거나, 구두(句讀)나 사장(詞章)의 소기(小技)에 종사하여 신심성명(身心性命)의 학문을 몰랐던 한당(漢唐)의 임금들과

7 『春亭集』 卷1 詩, 夜坐有感(六首), 五首



비교해 말할 수 없습니다.”<sup>8</sup> 이 글에서 공리 형명의 잡술은 법가 황노술 따위의 제자학과 여러 방술을 가리키며, 구두는 훈고학을 가리킨다. 춘정은 법가와 황노술등의 제자학과 여러 잡가와 잡술에 빠지거나 유학중에서도 훈고학과 사장학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한당시대의 왕들도 폄하하였다. 이는 그가 성리학자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나아가 조선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그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정의 이단사상에 대한 관점, 특히 불교를 대하는 생각과 자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것은 춘정사상에 대한 연구나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다. 춘정의 불교에 대한 사상적 입장은 분명하다. 다만 현실의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춘정사상에서 여러 사회혼란의 원인을 다양한 이단사상의 출현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노장철학과 불교를 힘주어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치에 맞는 듯 하지만 실은 도리에 맞지 않는 사이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맹자가 양주와 목적을 비판하듯이 노불을 비판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한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다.

|                          |                     |
|--------------------------|---------------------|
| 붉은색과 자주색 곡식 싹과 강아지풀      | 朱紫與苗莠               |
| 모든 사이비는 누구나 미워하지         | 惡似而實非               |
| 부처와 노자가 세상에 출현해서         | 佛老出于世               |
| 백성들의 뒤흔든 도리를 더욱 혼란시켰지    | 駸駸亂民彝               |
| 고상한 이야기가 조금은 이치에 맞는 듯하지만 | 談玄稍近理               |
| 대중들이 귀의할 지표가 어두워졌다네      | 衆心昧所歸               |
| 그들의 서적을 누가 불태우나          | 誰能火其書               |
| 대도는 별다른 갈림길이 없다네         | 大道無他歧               |
| 다시금 경전의 가르침으로 복귀하면 되니    | 反經而已矣 <sup>9</sup>  |
| 맹자의 이 말씀 그야말로 거의 맞는구나    | 斯言其庶幾 <sup>10</sup> |

### 3. 주자 성리학의 수용과 활용

#### 1) 中論

8 『春亭集』 卷1 詩, 「盆池貯寒泉詩(并序)」, 視彼漢唐人主。或狃於功利刑名之難。或事於句讀詞章之末。而不知身心性命之學者。不可同日語矣。

9 『孟子』 「盡心 下」 君子反經而已矣 經正則庶民興 庶民興 斯無邪慝矣

10 『春亭集』 卷1 詩 夜坐有感(六首), 六首

주자 성리학의 핵심은 우주자연관으로서의 天卽理와 인성론으로서의 性卽理이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한 경전은 『周易』과 『中庸』이다. 이 두 경전에 핵심내용은 天人合一 사상이다. 주자의 철학사상 중에서 춘정이 가장 충실하게 수용한 것은 中에 대한 사상이다. 그리고 앞에서 밝혔듯이 증용은 춘정이 가장 중요시했던 경서이다. 中庸 序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 윤집궐중의 ‘執中’을 유정유일의 정과 일을 역대 성왕인 요순우의 전수 ‘심법’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건중 건극을 은탕과 주무왕의 전수 심법으로 생각했다. 중을 서경에 나오는 성왕인 이제삼왕의 상전 심법으로 간주한 것이다. ‘중’은 과불급이 없는 사리의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극’은 지극한 것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본받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과 ‘극’은 명칭은 다르지만 그 의미와 경지는 두 개로 볼 수 없는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인도의 극치요 만세의 표준이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집중의 집을 개인의 주체적 노력으로 건중의 건을 사회적 징험으로 조화롭게 연계하였다.

그러므로 춘정사상의 핵심은 중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춘정의 ‘중’은 不偏 不倚와 無過不及의 뜻 외에 지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아울러 ‘精’을 ‘택선’으로 보고 ‘一’은 ‘고집’으로 보아 『서경』과 『증용』의 ‘중’을 연결시켰다. 그리고 舜에서 비롯된 ‘執中’의 요체로써 만세의 성인들이 서로 전해주었던 ‘심학’으로 파악하였다.<sup>11</sup> 그리고 정일의 공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경’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경은 일신의 주재요 만사의 근본이며, ‘성학’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여기에 춘정 사상을 알 수 있는 핵심용어들인 성학 과 심학과 심법이 중과 정일과 경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순수한 일념으로 중도를 지키는 것은 요 임금, 순 임금, 우 임금이 서로 전수한 심법이고, 중도와 표준을 세운 것은 상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이 서로 전수한 심법입니다. 정(精)이라는 것은 선(善)을 택한 것이고 일(一)이라는 것은 견지하는 것입니다. 정(精)으로 위태롭기 쉬운 인심(人心)과 희미해지기 쉬운 도심(道心)을 살피고 일(一)로 바른 본심을 지키는 것이니, 중도를 견지하는 공부는 이것뿐입니다. 자신을 근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집(執)이라고 말한 것이고 서민에게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건(建)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中)은 과하거나 불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극(極)은 지극하다는 뜻이니, 표준이라는 명칭입니다. 그 명칭의 뜻은 물론 같지 않으나 과하거나 불급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

11 『春亭集』 卷8, 殿試對策 并題, 「存心出治之道立法定制之宜」, 精一二字 始發於舜 又爲執中之要而實萬世聖聖相傳之心學也

12 상동, 敬者 一身之主宰 萬事之根本 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欲致精一之功者 又必自敬始



문에 인도(人道)의 극치이자 천하 만세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사리의 지극히 당연한 것을 중(中)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를 법받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극(極)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中)과 극(極)이 다르다고 하여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이 알 수 없습니다.<sup>13</sup>

## 2) 心性論

춘정은 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심성론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심과 성은 천하의 본이다’(心也性也 天下之大本也)라고 할만큼 심성을 근본문제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治道を 행하는 것은 心에 근본한다’(爲治之道 本於心)하여 경세의 근본문제의 소재도 심에 있다고 보았다.

먼저 심과 성의 관계를 저수지와 샘의 관계로 설명한다. 즉 심은 저수지요 성은 샘이다. 심속에 구비된 리가 바로 성이라고 한다. 심의 형태와 기능이 허령한 것으로 파악하여 천하만물의 이치를 심속에서 통섭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심통성정론을 수용하고 허령지각설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자의 심성론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의 체는 성이요, 용의 효과는 사육으로 치닫지 않고, 심이 感而遂通한다면 참천지 찬화육하는 치중화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대체로 연못은 비유하자면 심(心)이고 샘물은 비유하자면 심 속에 갖추어져 있는 이치인데, 이것이 이른바 성(性)입니다. 이미 ‘저장한다’고 말하였으니, 샘물이 차근차근 웅덩이를 채우고 나아간다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가 이미 말의 표면에 넘쳐 흘렀습니다. 대체로 허령(虛靈)한 심(心) 속에 천하 만물의 이치가 총괄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맑은 연못 속에 위로 하늘과 태양, 아래로 술, 대, 꽃, 풀 들의 모양이 비치는 것이나 같습니다. 연못이 이미 가득히 차고 나면 쉬지 않고 흘러 사해(四海)에 도달하여 만물을 적셔 주는데, 이는 마치 심(心)이 느끼어 통하면 만사(萬事)를 관리하고 만국(萬國)을 통치하여 그 효과가 천지와 같이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데 이르고야 마니, 심(心)의 체용(體用)이 본래 이러합니다. 사육에 빠지지 않고 심덕(心德)을 보존하는 것은 샘물을 저장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sup>14</sup>

13 상동, 精一執中 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 精者 擇善也 一者 固執也 精以察夫危微之間 一以守其本心之正 執中之功 如是而已 本諸身而謂之執 徵諸庶民而謂之建 中則無過不及之謂 極則至極之義 標準之名也 此其名義 固有不同 然由其無過不及 所以爲人道之至 而天下萬世之標準也 自事理當然之至而謂之中 自人所取則 無以復加而謂之極耳 若以中與極爲有異 而欲折衷乎二者 則非臣之所知也

14 『春亭集』 卷1 詩, 「盆池貯寒泉詩」, 盖池比則心也 泉比則心所具之理 性之謂也 既曰貯之 則其盈科而進 終必至於海者 固已溢於言表矣 夫心之虛靈而天下萬物之理 統於其中者 卽池之澄明 而上之天

“성(性)은 도(道)의 형체이고 심(心)은 성(性)의 성곽이다.”라는 소강절의 심성론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性)이 발로되어 정(情)이 되고 심(心)이 발로되어 의(意)가 된다.” 하였는데, 심(心)과 성(性)을 과연 둘로 분리할 수 있는가? 또 말하기를, “심(心)이 고요할 때 성(性)이다.” 하였고, 또 장횡거의 “심(心)이 성정(性情)을 통괄(統括)한다.”는 심통성정론도 소개하고 성(性)과 심(心)이 과연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sup>15</sup>

책문제에서 심성론에 대하여 공자의 성상근설,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양웅의 성선악혼설, 한유의 성삼품설을 아우르는 성론 전체에 대하여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를 통하여 심성론에 대한 선유들의 학설에 대하여 모두 꿰뚫어 보아야 할 것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자가 수용한 심성론으로 춘정이 선유들의 심성관계론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전통사상의 계승

##### 1) 주재자로서 天 의식

그는 주자성리학의 기본적 성격인 우주론과 자연관에 있어서의 ‘天卽理’에 입각한 이기론과, 인간관 수양론의 근거인 ‘性卽理’의 심성론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성리학 본체론에 있어서 그 정점인 ‘太極’에 관한 춘정의 언급은 문집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은 무엇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성리학에 있어서 ‘태극론’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회재 이언적이 망재 망기당과의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태극론의 정립 결과 유교의 ‘태극’이 불교의 ‘공’과 노장의 ‘무’와 다른 진정한 존재세계의 본체로 고정되었다. 그 후부터 더 이상 불교나 도교가 유교와 공존할 수 있는 교학이 아니라 배척해야 하는 이단사상으로 취급되었다. 춘정의 시대는 아직 이러한 분위기가 아

日 下之松竹花卉 輝映其間者也 池既盈矣 流動不息 放乎四海 灌溉萬物者 卽心之感而遂通 宰制萬事 統理萬國 其效至於參天地贊化育而後已焉者也 心之體用 固如此矣 不以私欲汨之 以全其德者 貯之之謂也

15 『春亭集』卷8 策問題, 「心與性」, 先儒謂性者 道之形體 心者 性之郭郭 又謂性發爲情 心發爲意 心與性 果可歧而二之歟 謂心靜時是性 又謂心統性情 性與心 果可合而爲一歟



나라 고려 말 사회의 분위기가 이어진 시대였다. 춘정의 주자학 이해와 수용의 정도가 아직 철저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는 더욱 엄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분명한 것은 춘정의 천관을 검토해보면 ‘천의 주재자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춘정도 천(天)이라는 것은 이치일 뿐이다.(天者 理而已矣)<sup>16</sup> 는 주자의 천관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즉 이법으로서의 천을 인정하고 있다. 천이 이치일 뿐이라는 말은 맹자 양혜왕장 하의 樂天 畏天에 나오는 천에 대한 주자의 주석이다. 이와 같은 천의 해석은 종교적 관념이 완전히 배제되고 우주만물의 근거 즉 본체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하늘의 의미를 살펴보면 本體로서의 理의 의미를 지닌 天은 찾기 힘들다.

하늘이 보우하여 큰 복이 이르고<sup>17</sup>

하늘의 재앙 두려워하고 사람의 곤궁 불쌍히 여겨<sup>18</sup>

아, 하늘의 마음은 인애하시어 민이 하고자 함을 반드시 따르나이다 ...

인심의 불화를 초래하여 어그러진 기운이 허물을 불렀나이다<sup>19</sup>

지금의 이 한재(旱災)는 지난해부터 금년에 이르렀나이다 ... 나의 덕이 미치지 못했으므로 상제가赫然히 임하게 되었나이다. 이에 준엄하게 꾸짖어 고하심은 인애가 매우 깊었기 때문이었나이다.

아, 하늘과 사람은 본디 한 기운으로 통하므로

지성이 있으면 반드시 이르나이다

일념이 상제의 마음에 통함은

참으로 털끝만큼 어긋남도 없나이다<sup>20</sup>

전하께서 재앙을 당하자 두려워하여 반성하고 근신하시니,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과 백성을 염려하는 의의가 지극하셨습니다.<sup>21</sup>

16 『春亭集』卷5 記, 「樂天亭記」, 天者 理而已矣

17 『春亭續集』卷1 樂章, 「宴享歌」(甲辰十二月(1424), 天所佑福來崇

18 『春亭續集』卷1 樂章, 「華山曲」(乙巳四月(1425.4), 懼天災閔人窮

19 『春亭集』卷11 祭文·祝文, 「祈雨雩社圓壇祭文」(3), 於天心之仁愛兮 民所欲之必從 ... 致人心之不和兮 召乖氣之愆忒

20 『春亭集』卷11 祭文·祝文, 「祈雨雩社圓壇祭文」(4), 維茲之旱兮 自往歲以迄今 ... 由予德之不類兮 上帝赫其有臨 茲謹告之聿嚴兮 蓋仁愛之孔深 ... 嗚呼天之與人本一氣兮 有至誠則必格 嗟一念之微于帝心兮 諒無間於毫髮

21 『春亭集』卷7 封事·上書,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 殿下遇災而懼 修省戒謹 敬天之誠至矣 勤民之義盡矣

이와 같이 춘정이 말하는 천은 형이상학적 원리를 말하는 경우에만 천즉리 즉 理로서의 천의 의미를 지닐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동중서의 ‘天心仁愛人君’<sup>22</sup>과 같은 주재자로서 천덕을 행하는 順天者에게 복을 주고 逆天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천이다. 춘정이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는 천은 제천의례의 대상으로의 천이며, 단군의 所從來로서의 천이다. 즉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예의 무천의 제천행사에 등장하는 천은 모두 단군에서 유래된 한국의 천이다.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天은 ‘我是皇天之子(天帝之子)’로 주몽의 혈연적 부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不樂世位(崩)’라고 할 때 黃龍이 와서 황룡을 타고 昇天하였다고 표현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늘의 아들이자 본래의 고향인 아버지의 고향, 즉 하늘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세자인 儒留王에게 고명하여 ‘以道興治’의 이념을 전했다. 즉 무력이 아닌 도로써 난세가 아닌 治世를 일으키라는 당부인 것이다. 이 도의 구체적 내용은 광개토왕의 주요 정벌대상이었던 ‘倭賊’과 ‘百殘’이라는 호칭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왜적의 적은 ‘仁을 해친자’요, 백잔의 잔은 ‘義를 해친자’다. 천자인 주몽을 계승한 광개토대왕이 仁義를 덕을 해치고 침략하고 배반한 왜와 백제라는 ‘殘賊之國’을 征伐한 것일 뿐 평화를 깨고, 영토 확장을 도모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sup>23</sup> 이렇게 본다면 ‘이도흥치’의 도는 ‘인의’와 다름 아니다. 그의 연호가 ‘永樂’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주몽의 아버지인 天은 단군신화 속에 단군의 아버지인 桓雄天王의 의미를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계량이 “우리 동방의 시조는 단군(檀君)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셨지 천자께서 지역을 나누어 봉한 것이 아닙니다.”<sup>24</sup> 라고 단군을 거명한 것도 이러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은 아버지인 환웅천왕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인 춘정이 주재자적 천관념을 지니고 활약한 것은 한국 전통의 천관념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樂天亭’의 낙천의 명칭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樂天知命 故不憂’에서 기원한 것이다. 낙천은 聖人の 盡性之事라고 주자가 설명하는 내용이다. 춘정은 이 낙천을 맹자의 낙천으로 설명하고 있다.

“큰 나라이면서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이고, 작은 나라이

22 『春亭集』 卷7 封事·上書, 「永樂十九年月日封事」

23 줄저, 『한국사상의 이해』, 116쪽, 대구한의대 출판부, 2014.

24 『春亭集』 卷7 封事·上書,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 吾東方 檀君始祖也 盖自天而降焉



면서 큰 나라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니,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보전합니다.”<sup>25</sup>

조선이 비록 중국에 사대해야 하는 나라요 畏天하고 나라를 보전해야 하는 작은 나라지만,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포부는 천하를 보전하는 樂天하는 자로서 그 속에는 천자국이라는 속마음이 포함된 것이다.

춘정이 「樂天亭記」에서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풍속이 우(虞)의 요임금의 문화, 주(周) 나라 무왕과 무왕의 시대의 문화와 비교할 만하다’<sup>26</sup>고 읊은 것은 단군과 주몽, 광개토왕의 천에서 비롯된 성인문화를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의 표현일 것이다.

천명이 끊임없이 유행하고 유행하여, 수없는 만물이 성장하나, 사람만 신령함을 타고나서 인의예지 사덕을 온전히 갖추었다...미덕을 좋아하는 건 타고난 몇몇한 도리이라, 중화나 동이가 차이가 없다네...이 마음을 확충해서 극도에 다다르면 요순시대 군민으로 만들 수 있다네.<sup>27</sup>

춘정의 조선에 대한 자부심은 ‘維天命辭’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난다. 중국과 조선이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조선의 임금을 요순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존감을 풍기고 있다.

## 2) 제천의례의 시행

춘정은 제천 의례를 시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이다. 그의 사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예조판서 변계량은 태종실록 17년(1417년) 윤5월 5일 庚申에는 ‘우사에 비를 빌자(雩祀祈雨)’, 이 해 8월 17일 庚子에는 ‘원단제(圓壇祭)’, 12월 4일 乙酉에는 ‘예로써 기천영명의 실상을 삼는다(禮爲祈天永命之實)’라고 하며 폐지된 제천의례를 되살리고 다시 시행하자는 건의를 올린다.

제천의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 封事(태종실록 16년 6월 1일 신유)」 封事에서 조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맹자』 양혜왕 하, 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樂天者 保天下 畏天者 保其國

26 『春亭集』 卷5 記, 「樂天亭記」, 我朝鮮風化之美 比擬虞周

27 『春亭集』 卷1 辭, 「維天命辭」, 維天命之不已兮 生萬物其紛然 惟人得其靈秀兮 乃四德之純全...秉彝之好懿德兮 無間於夷夏 ... 或天地之相參兮

첫째, 우리 동방의 시조는 단군이며, 하늘에서 탄강하셨다.

우리 동방의 시조는 단군(檀君)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셨지 천자께서 지역을 나누어 봉한 것이 아닙니다. 단군은 요(堯)임금 무진년에 하늘에서 탄강하셨는데, 지금 3천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예가 어느 시대에 비롯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또한 천여 년 이상이나 개정하지 않았고, 우리 태조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도 그대로 인습(因襲)하여 더욱더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우리 동방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어 폐지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sup>28</sup>

춘정은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즉 성인이며, 스스로 국가를 세운 천자 임금이다. 중국의 천자가 땅을 나누어 봉해준 제후가 아니다.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해는 중국의 첫임금<sup>29</sup>인 요와 동시대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역사는 중국과 같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천의례는 시행 된지 천년이 넘는 민족의 전통문화이다. 그러므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단군은 해외(海外)에 나라를 세워서 질박하고 문명이 부족하여 중국과 왕래하지 않아 군신(君臣)의 예를 나눈 적이 없었다. 주(周) 나라 무왕(武王) 때에 이르러 신하로 굴복하지 않은 은(殷) 나라 태사(太師)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였으니, 그 뜻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예를 행할 수 있었지만, 그 뒤로는 중국과 왕래하여 군신의 분수가 뚜렷하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천자는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절의 대체상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제후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었다. 노(魯) 나라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은 주공(周公)에게 큰 공이 있기 때문에 성왕(成王)이 허용한 것이며, 기(杞) 나라와 송(宋) 나라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은 그의 선대 조상의 기운이 하늘과 통하였기 때문이었다. 기 나라는 작은 나라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였으나 선대의 조상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노나라는 제후였으나 천자가 허용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니, 이는 예절의 곡절상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sup>30</sup>

<sup>28</sup> 『春亭集』 卷7 封事·上書,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태종실록 16년 6월 1일 신유)」, 吾東方 檀君始祖也 盖自天而降焉 非天子分封之也 檀君之降 在帝堯之戊辰歲 迄今三千餘禩矣 祀天之禮 不知始於何代 然亦千有餘年 未之或改也 我太祖康獻大王 亦因之而益致勤焉 臣以爲吾東方有祀天之理而不可廢也

<sup>29</sup> 『書經』은 경서이며 중국고대 성왕 이제삼왕에 대한 기록이다. 堯가 바로 첫째 임금이다. 그 후 사마천 『사기』에는 삼황오제의 전설이 「오제본기」에 수록되었다.

<sup>30</sup> 『春亭集』 卷7 封事·上書,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태종실록 16년 6월 1일 신유)」, 或曰



춘정은 제천폐지론자의 근거인 ‘천자는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를 지낸다’는 『예기』 「왕제」편의 내용을 근거로의 예의 차등론을 주장하지만 그에 대하여 반박의 글을 제시하며 그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한다. 제천폐지론자들은 명과 사대교린의 외교를 앞세워 圓丘에서 圓壇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제천의례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춘정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명(明) 나라 고황제(高皇帝)께서 반란의 무리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법도를 창제하고 옛것을 새롭게 바꾸다가, 현릉(玄陵 공민왕(恭愍王))이 귀의(歸依)한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조서(詔書)를 하달하여 우리 조정의 일을 두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세밀히 갖추어졌으니, 참으로 만리 밖을 훤히 내다보는 바가 마치 일월(日月)이 위에서 비추는 것 같았으므로 우리 조정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일에 대해서도 필시 틀림없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뒤 고황제께서 “의절은 본래의 풍속을 따르고 법은 옛날의 법을 지킨다.”고 허용하셨으니, 대개 해외의 나라가 처음에는 하늘의 명을 받았을 터이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지 오래되어 그 예를 변경할 수 없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제사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제사의 예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옛날의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로 말씀드리건대, 우리 조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예를 선대에서 찾아보면 천여 년을 거쳤으므로 그 기가 하늘과 통한 지 오래되었고, 고황제께서도 벌써 허용하셨으며 우리 태조께서도 그대로 인습하여 더욱더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신이 우리 동방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어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sup>31</sup>

셋째, 명나라에서도 허락하였다. 의절은 본래의 풍속을 따르고, 법은 옛날의 법조문을 지킨다(儀從本俗 法守舊章).

檀君國於海外 朴畧少文 不與中國通焉 未嘗爲君臣之禮矣 至周武王不臣殷太師 而封之朝鮮 意可見矣 此祀天之禮 得以行之也 厥後通於中國 君臣之分 燦然有倫 不可得而踰也 臣曰 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 此則禮之大體然也 然以諸侯而祭天者 亦有之矣 魯之郊天 成王以周公有大勳勞而賜之也 杞宋之郊天 以其先世祖宗之氣 嘗與天通也 杞之爲杞 微乎微者 以先世而祭天矣 魯雖侯國 以天子許之而祭天矣 此則禮之曲折然也

31 『春亭集』卷7 封事·上書,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태종실록 16년 6월 1일 신유)」, 高皇帝削平僭亂 混一夷夏 創制立法 革古鼎新 乃嘉玄陵歸附之誠 特降詔書 歷言我朝之事 如示諸掌 纖悉備具 眞所謂明見萬里之外 若日月之照臨者也 我朝祭天之事 亦必知之無疑也 厥後乃許儀從本俗 法守舊章 其意蓋謂海外之邦 始也受命於天 其祀天之禮 甚久而不可變也 國家之法 莫大於祭祀 祭祀之禮 莫大於郊天 法守舊章 此其先務也 由是言之 我朝祭天之事 求之先世 則更歷千餘年 而氣與天通也久矣 高皇帝又已許之矣 我太祖又嘗因之而益致勤矣 臣所謂吾東方有祭天之理而不可廢者 蓋以此也

춘정은 중국 명나라에서 예부에 보내온 고향제의 조서를 근거로 하여 ‘고황제가 이미 허락하였다’고 하였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혼란(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sup>32</sup>

춘정은 유구한 전통을 가진 제천의례를 폐지할 수 없으며, 조선건국의 태조도 성심껏 제천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 3) 단군, 기자의 계승

춘정이 추구한 진정한 학문은 주자학이 아닌 성학이다. 춘정집의 글 속에서 성학이라는 호칭은 8회나 등장하지만 도학이나 성리학 혹은 유학 이학 주자학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스승의 문집인 『목은집』이나 『양촌집』이나 다른 성리학자들의 문집에는 나타나는 도학의 명칭이 모두 등장한다. 물론 성학도 넓은 의미의 주자학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춘정이 지향한 성학은 주자의 성학을 많은 부분에서 수용하고 있지만 그대로 답습하여 따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학의 완성자, 인극으로서의 성인과 춘정이 바라본 성인은 서로 다른 면이 있다.

성리학의 성학의 연원은 주돈이 『통서』에서 비롯된다. ‘배워서 聖人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sup>33</sup> 이 한 구절의 용어가 성학의 출발점이다. 공자의 유학에서는 학문과 수양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상은 군자이다. 즉 성인과 현인 중에 현인이었다. 반고의 한서에 등장하는 ‘고금인물표’에 인간을 9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최상위에 성인, 그 다음에 인인, 그리고 다음에 지인이 등장한다. 삼황오제와 삼왕·주공·공자·노자가 성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성인이 아니다.

<sup>32</sup>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7일 甲辰」, 高麗限山隔海 天造東夷 非我中國所治 爾禮部回文書 聲敎自由 果能順天意合人心 以安東夷之民 不生邊釁 則使命往來 實彼國之福也

<sup>33</sup> 周敦頤, 『通書』 「聖學」 제20, 聖可學乎 曰可



주렴계의 『通書』에서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언표는 「太極圖說」과 함께 성리학의 문을 열었던 획기적인 내용이다. 누구나 배워서 無欲하면 靜虛動直하고, 이를 통하여 明通公溥하면 성인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춘정의 성인은 조선의 왕에만 해당되고 있다.

이 마음을 확충해서 극도에 다다르면  
요순 시대 군민으로 만들 수 있다네<sup>34</sup>

춘정의 성학은 천명을 받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을 상징하는 한나라와 당나라의 왕들을 기롱하는 다음의 표현은 특이한 표현이다. 무엇을 의도하는 표현일까? 우리 임금의 한당의 임금보다 뛰어났다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우리 왕보다 못한 한당의 왕들 모두 천자로 행세 하는데, 이들보다 훌륭한 우리 왕께서는 당연히 천자의 예를 해야 한다. 결국 성왕을 모시는 ‘천자 나라의 관료’라는 표현하지 못하는 진심을 빚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바로 성학(聖學)의 덕을 공경하는 공부이자 천명의 터를 닦는 요점인데, 한(漢) 나라 임금들이나 당(唐) 나라 임금들이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체용(體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각(一刻)이라도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또한 근본을 수립하는 것이고, 일념(一念)이라도 살피는 것이 또한 용(用)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임금들이나 당 나라 임금들은 옛날 성인처럼 체용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sup>35</sup>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춘정은 동방의 시조이신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였다(吾東方 檀君始祖也 蓋自天而降焉).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自然合理하는 존재라는 뜻이요. 하늘의 마음인 인애의 마음으로 애민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하늘의 혈손으로 진정한 성왕이라는 의미이다. 춘정이 단군을 天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제천의례의 시행이 백성을 인애하는 정신과 통하기 때문이다. 단군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된 성인이다. 조선은 중국의 천자가 분봉해준 나라가 아니더라는 뜻은 무엇인가(非天子分封之也). 우리의 하늘로부터 내려

34 『春亭集』 卷1 辭, 「維天命辭」, 充此心以臻極兮 可堯舜其君民

35 『春亭集』 卷6 封事·上書,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基天命), 此迺聖學敬德之功 基命之要 而非漢唐諸主之所能也 雖然 人莫不有此心矣 有此心則必有此體用矣 一頃之存 亦所以立本也 一念之察 亦所以達用也 漢唐諸主 雖未能如古昔聖人體用之全

온 성인 단군이 우리 땅에 세운 ‘조선은 천자의 나라’라는 속마음이 감추어진 것이다.

기자는 무왕의 스승이다. 무왕이 그를 다른 곳에 봉하지 않고 우리 조선에 봉했으므로, 조선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친히 그 가르침을 받아, 군자는 대도(大道)의 요체를 얻어듣고 백성은 지치(至治)의 은택을 입을 수 있어서, 그 교화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우리 동방을 후하게 하여 어질고 착한 사람을 내려주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전(井田)의 제도와 팔조(八條)의 법금(法禁)이 해와 별처럼 밝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그 가르침에 따랐으니, 1천 년 뒤에도 그 당시에 사는 것과 같아서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sup>36</sup>

단군과 함께 조선 문화 창달에 공헌한 기자에 교화의 공적에 대한 춘정의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聖人の 특성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는 고려가 바로 본거지 도읍임을 주장하고 있어 고려인의 높은 자부심이 들어있다.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를 보니 그 신이(神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도읍이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sup>37</sup>

윗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인은 주렴계의 『통서』에 나타난 성리학적 성인이 아니다. 그리고 공자의 ‘不語怪力亂神’의 입장과도 다른 한국적 성인관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광개토왕릉비문」에서 나타난 주몽의 모습이며, 태어나면서부터 ‘聖德’을 지닌 존재로 표현되는 하늘이 보낸 성인이다.

<sup>36</sup> 『春亭集』卷12 碑誌, 「箕子廟碑銘」, 箕子者 武王之師也 武王不以封於他方 而于我朝鮮 朝鮮之人朝夕親炙 君子得聞大道之要 小人得蒙至治之澤 其化至於道不捨遺 此豈非天厚東方 畀之仁賢 以惠斯民 而非人之所能及也耶 井田之制 八條之法 炳如日星 吾邦之人 世服其教 後之千祀 如生其時 愀然對越 自有不能已者矣

<sup>37</sup> 『東國李相國全集』卷第三 古律詩, 「東明王篇(并序)」, 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紀 其神異之迹 踰世之所說者 然亦初不能信之 意以爲鬼幻 及三復耽味 漸涉其源 非幻也 乃聖也 非鬼也 乃神也 … 欲使夫天下知我國本聖人之都耳



## 4) 인정과 애민사상(민생의식)

주재자로서의 天의 마음은 바로 仁愛이다. 그러므로 천심을 누리고 천재지변의 재앙을 없애려면 덕을 닦는 공에 스스로 더욱 힘써야 한다. 춘정은 그가 聖君으로 불렸던 왕들에게 仁의 德을 닦는 일을 항상 유념할 것을 지속적 건의했다. 그는 주자의 「仁說」과 경서주석에 나타난 仁에 대하여 주자가 수용한 선현들의 해석을 철저히 수용한다. 즉 仁은 ‘天地生物之心’이며, ‘心之德 愛之理’이며, 동시에 ‘天地萬物一體’이다. 그리고 인과 애의 관계에 대하여 ‘仁은 愛之理’로 ‘愛는 仁之用’으로 보는 주자의 견해와 ‘仁主於愛’의 춘정의 견해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仁之實’인 事親에서 시작하여 인민과 애물로 사람은 물론이고 우주자연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춘정이 인정과 애민의 인애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최고의 공경대상인 하늘의 마음이 바로 인애이기 때문이다. 인애의 근거 또한 춘정의 하늘, 전통적인 단군기자의 인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知者樂水 仁者樂山’를 통하여 仁사상이 동이족의 산악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仁者壽’의 특성을 설파했다.<sup>38</sup> 나아가 ‘欲居九夷’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 대 경학자 許愼은 『설문해자』에서 다른 이민족들은 짐승에서 종족의 명칭이 비롯되었지만 東夷족은 사람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그들의 습속의 특징이 仁이며, 인자는 오래살기 때문에 仁하는 군자의 나라와 壽하여 죽지 않는 신비한 不死國이 있다고 하였다. 인은 공자의 사상이기에 앞서 동이족의 생활문화에 자리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군의 天과 기자의 仁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춘정의 주장하는 天心仁愛와 같은 것으로보여 흥미를 갖게 된다. 인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특히 동이족의 특성으로 보았다.<sup>39</sup>

덕을 닦는 공부만은 스스로 더욱 힘써서 천심(天心)을 얻어 재변을 소멸시켜야 한다. ... 인(仁)이라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으로서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니, 이른바 마음의 덕이자 사랑하는 이치입니다. 인은 사랑이 주체이고 사랑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의 실체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인(仁)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니, 친한 이를 친히 함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일체(一體)로 삼기 때문에 친한 이를 친히 한 뒤에 백성을

38 『論語』「雍也」,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9 『說文解字』「四篇上」, 羌 西戎 羊種也 唯東夷從大 大人也 夷俗仁 仁者壽 有君子 不死之國 孔子道不行 欲之九夷 乘桴於海 有以也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뒤에 만물을 사랑하여, 천지 안에 큰 것이나 작은 것, 새나 물고기, 동물이나 식물로 하여금 어느 것이나 나의 덕화(德化)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의 덕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까.<sup>40</sup>

춘정은 위와 같이 천심을 누리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밝히면서, 인의 유래와 내용을 설명한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민을 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살피듯이 하라.” 하였고 “민을 바라볼 때 나의 몸이 상한 것처럼 돌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 것이다.<sup>41</sup>

‘하늘은 민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민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민의 소원을 하늘이 반드시 따라 준다’고 한 말은 이를 두고 이른 것입니다.<sup>42</sup>

옛날 제왕이 천도(天道)를 받들어 민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오곡을 심어서 몸을 기르고 또 그 고유한 의리(義理)를 바탕으로 삼아 開導하여 마음을 닦도록 하였다.<sup>43</sup>

천지의 마음은 오로지 만물을 생육하는 것이고, 제왕의 도는 백성을 편안히 기르는 데에 있다. 하늘과 사람이 다르지만 그 지극한 이치에 가서는 하나이다.<sup>44</sup>

위의 내용은 천과 왕의 관계와 천과 민의 관계 그리고 천과 인애의 관계에 대하여 춘정이 설명한 여러 예이다. 한결같이 왕의 의무는 애민에 있으며, 이때의 하늘은 모두 ‘주제자로서의 천’이다. 그러므로 정천애민의 사상의 발현으로서의 仁政도 전통 사상의 계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春亭集』卷7 封事·上書, 「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 惟修德之功 則宜益自勉 以享天心 以消災變. …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得以生者 所謂心之德而愛之理也 仁主於愛 而愛莫大於愛親 故曰仁之實事親是也 又曰 仁者 人也 親親爲大 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故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使天地之內 洪纖巨細飛潛動植 無一物不在吾德化之中 然後已焉 仁之爲德 其至矣乎

41 『春亭集』卷6 封事·上書,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厚民生), 天之立君 蓋爲民也 故有曰如保赤子 視民如傷言其愛民之心也

42 『春亭集』卷9 表箋, 「請上太上王尊號箋」,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故民之所欲 天必從之 此之謂也

43 『春亭集』卷8 教書, 「諭對馬州 宣旨」, 古昔帝王 奉若天道 教民稼穡 樹藝五穀 以養其形 因其固有之義理而開導之 以淑其心

44 『春亭集』卷8 教書, 「有旨教書」, 天地之心 專於生育萬物 帝王之道 在乎安養斯民 天人雖殊 其致則一



## 5. 나오며

춘정은 여말선초 성리학의嫡傳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그는 성리학자답게 『四書』를 경학의 기초로 삼았으며, 당시 학자들과 같이 시문을 익히고 과거를 통하여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의 생애 대부분은 관료로써의 삶이었으며, 관직의 대부분은 文衡과 같은 文翰職이었다. 관료로 살았던 그의 사상은 철학적 사유에서 성숙하였다기보다는 국가사업의 수행 속에서 정리된 것이다. 그리고 60여년의 생애에 개혁과 창업과 수성의 변화를 몸소 겪었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현실적, 실천적, 실용성을 강조하는 조화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춘정사상의 바탕에는 천자의 나라 고려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으며, 그 근원은 단군과 기자의 사상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춘정철학의 기본체계는 주자학이며, 가장 중시한 경서는 ‘中庸’이다. 그는 주자학을 배우면서 그 속의 體用論을 활용하여 자신의 성리학을 체계화하였으며, 현실을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한 구체적 사안에서는 ‘權道’를 활용하였다.

‘聖人心法’으로서의 中이 강조되고, 중을 잡는 정과 일은 성인상전의 心學이라고 한다. 그리고 ‘聖學始終’으로서의 敬을 중시한다.

춘정은 주자의 ‘理法天’과 다른 ‘주재자로서의 천’의 관념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太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성리학자와 달리 이학이나 도학의 명칭대신 ‘聖學’을 강조하였다.

주재자로서의 ‘천’과 성학의 ‘성인’은 성리학 외에 단군 기자부터 유래된 고대전통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리학자들 중에서 제천의례 시행을 가장 강조한 인물이 춘정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춘정이 공경한 하늘은 단군이 내려온 바로 그 하늘인 것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며, 그 속에는 ‘조선천자’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천심의 실체는 인애 이다 하늘의 마음을 받아서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민생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천’의 자부심을 간직하면서도, ‘외천’을 근거로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현실적 실용주의를 따른다.

결론적으로 춘정은 선진적인 주자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고, 전통적인 단군기자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상을 원융조화하고, 경천애민의 정신으로 민생의

실용을 우선시하여, 조선을 ‘요순의 君民’의 나라로 이끌고 ‘朝鮮風化의 美’를 세계만방에 드날리고자 하였던 한국 성리학자라고 하겠다.







춘정 변계량의 인재 양성 정책



이 종 목 / 서울대학교





# 춘정 변계량의 인재 양성 정책

이종묵(서울대 국문학과)

1. 머리말
2. 인재의 선발과 재교육 정책
  - 1) 인재의 선발 정책
  - 2) 문신의 재교육 정책
3. 정책 수행 과정의 리더십
  - 1) 개인적 능력과 세종의 신임
  - 2) 공정성과 추진력
4. 맺음말

## 1. 머리말

1418년 8월 11일 근정전에서 즉위 교서 반포와 함께 세종이 즉위하였다. 1392년 7월 17일 조선이 개국한 이래 불과 26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세종이 즉위하였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인재의 부족이었다. 국가의 고급 관료들은 모두 고려 왕조에 출사한 인물들이었다. 여말선초 혼란기에 인재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니, 조선 개국 이후 한 세대가 지나자 인재가 부족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인재의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종은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을 재상으로 기용하였다.

변계량은 자가 거경(巨卿), 호가 춘정(春亭)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공민왕 18년(1369) 밀양의 구령리(龜齡里)에서 태어난 변계량은 유관(柳寬)에게 수학하여, 우왕 때 진사시와 생원시, 문과에 차례로 합격하고 벼슬길에 올랐다. 조선 개국 후 태조가 벼슬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태조 6년(1397) 교서감승(校書監丞) 지제교(知製敎)로 조선 왕



조에 출사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형 변중양(卞仲良)이 정도전(鄭道傳)의 일파로 몰려 참살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그 자신은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

변계량은 태종대에 본격적으로 관각(館閣)의 중임을 맡게 되어 예문관(藝文館)과 수문전(修文殿)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체교를 맡았다. 특히 태종 9년(1409) 예문관 제학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하여 관각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이후 태종 17년(1417) 예문관 대제학(大提學) 겸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문형(文衡)을 잡았는데 조선시대 본격적인 문형의 시발이 바로 그에게서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조판서까지 겸하였으니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교 책임자가 된 것이다.

변계량은 1418년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세자에서 폐위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을 세자로 삼을 것을 계청하였다. 세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한 데 큰 공을 세웠다 하겠다. 세종은 즉위한 그날 첫 번째 인사에서 변계량을 예조판서 겸 동지경연사에 임명하였다. 예조판서 변계량은 세종 2년(1420) 집현전(集賢殿) 설치하도록 건의하였고 집현전이 설치된 이후 대제학을 겸하여 태종대부터 거의 20년 동안 문형을 놓지 않았다. 1430년 4월 24일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세종실록』(12년 4월 24일)에는 다음과 같은 생애의 총평이 보인다.

변계량이 문형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맡아서 대국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교제하는 사명(詞命)이 그 손에서 많이 나왔고, 시험을 주장하여 선비를 뽑는 데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하여 전조(前朝)에서 함부로 부정하게 하던 습관을 다 고쳤으며, 일을 의논하고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 이따금 다른 사람의 상상 밖에 나오는 일이 있었다.

생애를 총평하는 졸기(卒記)에서 변계량이 문형으로서 첫째 중국과의 사대외교, 일본과의 교린외교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의 작성에 주도적인 일을 하였고, 둘째 인재 선발을 공정하게 하여 뛰어난 인재를 많이 양성하였으며, 셋째 임금을 보좌하여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변계량은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그의 경세사상과 함께 중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문형으로서 변계량이 인재의 선발과 재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히 세종대의 문교 정책을 보좌하는 재상으로서 변계량이 어떻게 국가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는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인재의 선발과 재교육 정책

### 1) 인재의 선발 정책

세종은 즉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1418년 10월 7일 처음으로 열린 경연(經筵)에서 세종은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참다운 인재를 얻으려 함인데, 어떻게 하면 선비로 하여금 부화한 버릇을 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계량은 이지강(李之剛)과 함께 다음과 같이 답한 기록이 이 날의 『세종실록』에 보인다.

초장(初場)에서는 의의(疑義)로 경학의 심천을 보고, 종장에서는 대책(對策)으로 그 사람의 포부를 보는 것이 당초에 법을 만든 뜻입니다. 근자에 학생이 실학에 힘쓰지 않으므로, 초장에서 강경(講經)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영민하고 예기 있는 쓸 만한 인재가 모두 무과로 달려갔습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때문에 세종은 첫 번째 경연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조선이 처음 개국된 후 정도전은 태조의 짧은 즉위교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제도의 개혁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정도전은 성균관에서 주관하는 초장에서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강경(講經)을 시험하도록 하고, 예조에서 주관하는 종장에서 표장(表章)과 고부(古賦)를 시험하며, 종장은 책문을 시험하는 3단계의 문과 시험 틀을 제정하였다. 이는 첫째 고려의 좌주 문생 제도에 의하여 인적 재원이 학맥에 의하여 사당화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요, 둘째 불교를 숭상하는 고려 왕조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하는 조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명분과 함께 고려가 문화적인 능력 중심으로 관리를 등용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가경영에 필요한 실용적 유학을 과거 시험의 중심에 두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개국한 급진적인 개혁세력들은 사서오경의 학습을 특히 강조하였다. 조선이 개국되기 이전 조준(趙浚)이 올린 시무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서오경을 읽고 사장은 읽지 못하게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sup>1</sup> 정도전 역시 국가의 근본을 논하는 자리에

<sup>1</sup> 趙浚, 『松堂集』, 6-427, 『陳時務第二疏』. 이하 문집류는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본의 권수와 면수를 밝힌다.



서, 한갓 사장만 일삼는다면 배운 것이 도리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 심한 경우 면전에서 아첨하는 무리들만 신임하며 놀고 즐기는 일만 좋아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sup>2</sup> 정도전이 국자감시(國子監試)를 폐지하게 하였는데 이 역시 문학을 누르기 위한 방책이었다. 국자감시는 조선시대의 진사시(進士試)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없앴으로써 문교정책의 방향을 고려 이래의 문학 중심에서 유학 중심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변계량은 문과의 초장에서 강경을 시험 보이자 이를 어렵다고 여겨 인재들이 모두 무과로 가버렸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의의(疑義)를 부활하자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의의는 원나라에서 비롯하여 고려시대 시행된 것으로, 의(疑)는 사서(四書)를 대상으로 하고 의(義)는 오경(五經)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대목의 뜻풀이에 대한 글을 지어 제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의는 제술(製述)이라고도 하였다.

세종은 변계량의 견해에 찬성하였다. “강경은 가장 어려운 일이니, 지금 비록 변계량으로 하여금 강론케 한다 하여도 어찌 다 정통할 수 있겠는가?”라 하면서 경전을 외우는 일은 변계량조차 힘든 일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세종은 즉위 교서에서 “일체의 제도는 모두 태조와 우리 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 할 것이며, 아무런 변경이 없을 것이다.”라 한 대로, 상왕 태종이 있는 상태에서 선뜻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후 변계량은 문과 초장에서 강경을 제술로 바꾸는 정책을 꾸준히 개진하였다. 처음 논의가 있던 날로부터 두 달 여 지난 후 변계량은 다시 강경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세종 원년 12월 13일 『세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신이 과거를 두 번이나 관장하였는데, 강경의 법은 실상 옳지 못합니다. 지금의 선비들은 구두(句讀)의 구속을 받아 한갓 읽어 외우는 것으로만 업을 삼는 까닭으로 그 기가 막혀 사부(詞賦)에 능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시관(試官)이 과거보는 선비를 면대(面對)하게 되니, 어찌 사심이 없겠습니까? 고려 때에 봉미(封彌)의 법을 만든 것은 이 때문입니다. 권근(權近)이 항상 이 폐단을 걱정하여 글을 올려 폐지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이 청을 좇았습니다. 정유년(1417)에 한두 사람의 문신의 계책을 써서 다시 이 법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활 쓰는 것은 장난의 일로서 사람들이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안의 자제들이 문과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여 모두 무과에 쏠리게 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3</sup>

<sup>2</sup> 鄭道傳, 『三峯集』, 5-415, 『朝鮮經國典』, 「定國本」.

<sup>3</sup> 『세종실록』 세종 원년 12월 13일.

변계량은 강경으로 인하여 문학이 멀쳐지지 못하고 강경할 때 시관을 직접 만나게 되므로 사사로운 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변계량의 견해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처음 정도전이 입안한 과거제는 태조의 즉위교서를 반영한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수록되어 국가의 법이 되었다. 권근은 이 제도에 신랄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바로 그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권근은 경전의 자구를 읽고 해석하며 이를 암송하는 데만 주력하다보니 경전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경학에 걸출한 인재가 나온 적도 없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문학적 재능을 갖춘 인재조차 고갈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sup>4</sup>

당시 중국과의 사대외교에서 시학(詩學)이 매우 중요하였다. 중국에서 온 사신은 시를 잘하는 사람 중에 선발된 만큼 그를 맞는 조선의 원접사(遠接使) 역시 시에 매우 능하여야 하였고, 시를 잘 주고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작은 일이 중국 사신의 뜻에 차지 않더라도 책망하지 않을 정도였다.<sup>5</sup> 이러한 현실 때문에 권근은 중국에서 온 사신과 시를 주고받다가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고까지 하였다.<sup>6</sup> 태종은 권근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속대전(續大典)』에는 문과 초장에 의의를 시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술의 문제점 역시 작지 않았다. 태종 11년(1414) 5월 8일 황희(黃喜)가 강경을 폐지한 것이 잘못이라 하였고 다른 신하들도 그 의견에 찬성하였다. 강경을 폐지하다보니 유생들이 모두 초집(抄集)한 다이제스트본만 익히고 경서 원문에는 마음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태종 17년(1417) 1월 19일에는 유생들이 경학과 문학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식년(式年)에 강경과 제술을 교대로 시험을 보게 하자는 절충론이 채택된 바 있다.

변계량이 거듭 강경을 폐지하고 제술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상왕인 태종이 위에 있는 데다 황희 등이 변계량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세종은 선뜻 강경을 폐지하려 않았다. 세종은 즉위한 지 10년 된 1428년 독자적인 정치를 해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문과 초장에서 제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술의 폐단은 태종대부터 이미 지적된 대로 유생들이 다이제스트본을 만들어 공부하는 폐단이 생겼다. 이에 세종은 2

4 권근, 「論文科書」(『陽村集』 7-280)와 같은 내용이 『朝鮮王朝實錄』, 태종 7년 3월 24일에도 실려 있다.

5 『중종실록』 31년 12월 8일의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보인다. 중종 때의 기사지만 그 앞선 시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6 권근, 「論文科書」(『陽村集』 7-280)



월 22일 그 보강책을 물었는데 김자(金緒)는 성균관에서는 강경을 주로 하고 과거에서는 제술로 시험을 보이자는 절충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변계량은 이러한 절충론조차 부정하고 강경을 아예 폐지하자고 나섰다. 이러한 뜻으로 4월 23일 장문의 글을 올렸다.<sup>7</sup> 이 글에서 변계량은 강경으로 시험을 치르는 데 거의 1개월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많으며, 직접 대면해야 하므로 사사로운 정이 개입된다는 점 등을 폐해로 들면서, 어려서 암송과 훈고를 익히고 장성하여 제술을 배우며 늙어서 책을 저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문의 단계이므로 문과 초장에서는 제술의 단계가 옳다고 하였다. 또 “예전에는 권근이 나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권근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정도전의 말을 들어 권근의 유학이 정도전보다 뛰어나므로 권근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암송과 훈고에만 힘을 쏟는 강경을 하게 되면 뜻과 기가 막히고 좁아져서 성리의 온축을 알지 못하고 문제 역시 시원찮게 된다 하여 권근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이숭인(李崇仁) 등이 강경을 통해 선발된 것이 아님에도 유학과 문학에 모두 뛰어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기도 했다.

변계량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세종은 조정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권진(權軫), 안순(安純) 등 비교적 중진의 관료들은 변계량을 편들어 제술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예문관 제학 윤희(尹淮), 집현전 교리 권채(權採)와 수찬 이선제(李先齊) 등 관각의 핵심 관료들은 강경만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황희, 맹사성(孟思誠), 신상(申商) 등 원로들은 제술과 강경을 번갈아 시행하는 절충론을 내놓았다. 그런데 제술 또한 경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에도 강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술을 경학과 무관한 조충전각(彫蟲篆刻)의 기술로 보았다. 특히 이선제는, 제술을 채택하면 조충전각의 기술만 익혀 과거의 명성을 요구하게 될 뿐 아무도 성리학에 전심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 비판하였다.

세종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술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변계량의 제안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렇지만 강경을 강조한 문인들은 문학의 확대를 우려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거에서 제술을 시험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에 세종은 강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듭 지적한 다이제스트본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변계량으로 하여금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제술 참고서를 만들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

7 변계량, 「請科制罷講經用製述疏(戊申四月)」(『春亭集』 8-169). 『세종실록』 10년 4월 23일에도 같은 글이 실려 있다.

결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11년 5월 28일 다음과 같은 글을 내렸다.

유생이 사서와 오경, 『삼장문선(三場文選)』, 『원류지론(源流至論)』 등의 책을 능히 익혔다면, 제술로서 과거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서두르지 않고 오로지 여러 사람들이 제술한 것만 모아서 초집을 하였으므로, 혹 유사한 제목을 만나게 되면 표절하여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 근일에 성균관에 행차하여 전문(箋文)을 제술하게 하니, 모두 권맹손(權孟孫)이 도시(都試)에 장원한 「진빈풍도(進邇風圖)」의 전(箋)을 표절하여 쓴 까닭으로 내가 이를 취하지 않았다. 비록 평상시의 제술일지라도 초집을 표절해 쓴 것은 진실로 도리를 아는 유생들의 할 바가 아니거늘 하물며 내가 친히 와서 선비를 시험하는 때이겠는가. 내가 엄격히 금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금지시킬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판부사 변계량에게 의논하라.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서와 오경 외에도 중국의 유명한 초집과 동국 명유들이 제술한 표전(表箋), 책문(策問) 등을 인쇄하여 반포하고 비루 졸렬한 글은 모두 금하노라. 정도에 의하지 않고는 과거에 합격하는 길을 막게 할 것이다. 만약 간사한 무리들이 전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도외시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옳을 것이니, 이를 아울러 의논하라.

세종은 다이제스트본으로만 공부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아예 모범이 될 만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글을 가려 뽑은 책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변계량에게 맡겼다. 세종은 14년(1432) 3월 11일에도 비슷한 하교를 내렸다.

지금 응시하는 유생들이 다만 경서와 사서(史書)를 깊이 연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류지론(源流至論)』, 『책학제강(策學提綱)』, 『단지독대(丹墀獨對)』, 『송원파방(宋元播芳)』 등 과거장에서 존중하여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고문(古文)까지도 전연 본뜨려 하지 않고, 오로지 여러 사람의 저술을 베껴 한결같이 그대로 도습하여 요행으로 과거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신진 선비의 뜻이 일찍부터 비루하여서 취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지금부터는 옛글을 익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지은 것을 뽑아 기록하여 표절하거나 펴보는 자는 중외의 교관과 시험을 관장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수색하고 검열하게 하라. 성균관 안에 가지고 와서 펴보는 것이 발각된 자는 1식년(式年)을 기한으로 하고, 시험장 안의 수색과 검열에서 발각된 자는 2식년을 기한으로 하여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켜 학문의 방법을 바로잡게 하라.

변계량이 과거를 통하여 인재를 선발할 때 제술을 중심에 두고자 한 제안은 이렇게 하여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삼장문선』, 『원류지론』, 『책학제강』, 『단지독대』, 『송원파방』 등이 제술의 교과서로 간행되어, 후대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8</sup>

그러나 변계량의 이러한 정책은 세종 12년(1430) 4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된다. 그해 8월 13일 당시 편찬하고 있던 『육전(六典)』 안에 “문과에는 강경과 제술을 번갈아 쓴다.”는 조문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이 바로 나왔다. 이에 대해 세종은 “법을 시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금석과 같이 굳어야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 하면서 제술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허조(許稠)가 강경의 폐지로 인하여 성균관 대사성에 책임자가 없어 황현(黃鉉)으로 하여금 행대사성(行大司成)으로 삼았고 종학박사(宗學博士)의 직임을 감당할 자도 몇 명에 불과한 실정이라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황현은 같은 해 8월 22일 강경을 폐하고 제술을 채택한 일의 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강경의 폐치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사부만을 공부하느라 경서를 팽개치게 되었으며, 강경 이외의 의의, 책문 등은 경서 공부와 무관하게 초집한 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문장에 능한 자는 조정에서 칭송을 받지만 경학을 하는 자는 결국 평생을 교수로 늙어 버리기 때문에 그 자제들이 문사에만 마음을 두고 경학에 뜻을 주지 않을 뿐더러 부지런히 독서하는 자가 있으면 친구들에게 도리어 멸시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후 거듭된 강경의 폐지에 반대하는 문인들의 의견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세종 25년 문과에서 강경이 채택되었으며 이듬해 황희의 주장에 따라 진사시도 혁파되었다.<sup>9</sup> 이리하여 성균관시, 한성시, 향시, 문과에서 모두 초장에는 경학을 시험하고, 중장에는 문사를 시험하며, 종장에는 時務를 시험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sup>10</sup>

## 2) 문신의 재교육 정책

과거를 통하여 선발된 고급 인력을 실무에 맞게 재교육하는 방안 역시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기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를 위한 제도가 완비되었다. 그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변계량의 역할이 컸다.

8 특히 『삼장문선』은 元의 문인 劉仁初가 科賦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발하여 비평을 붙인 책을 1454년(단종 2) 조선에서 간행한 것이 규장각에 전한다. 『원류지론』, 『송원파방』 등도 지금 전하는데 『策學提綱』과 『丹墀獨對』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9 『세종실록』 26년 1월 17일.

10 조선 전기 강경과 제술을 둘러싼 논의는 필자의 「조선 전기 문예정책과 관각문인의 문학사상」(『한국유학사상대계4-문학사상편』(한국국학진흥원, 2006)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조선 전기 문신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네 가지가 있었다. 월과(月課), 춘추과시(春秋課試), 사가독서(賜暇讀書), 전경(專經) 등이 그것이다.<sup>11</sup> 이 중 월과와 전경은 성종 때 제정된 것이므로<sup>12</sup>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두 제도는 모두 변계량과 관련이 있다.

첫째, 춘추과시는 춘추중월저술지법(春秋仲月著述之法)이라 하는데, 태종 7년 8월 25일 처음 중월부시(仲月賦詩)에 관한 법을 시행하였는데, 권근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변계량은 태종 17년(1417) 예문관 제학으로 있으면서 박은(朴崧)과 함께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봄가을에 제술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제술하는 기한이 3일을 지나감은 너무 늦은 듯합니다. 백관(百官)이 조회하여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는 아일(衙日) 중 2월과 8월에 하루를 정하여 예문관과 교서관, 의정부, 중추원 등의 고급 관원이 의정부에 모여 오시(午時)까지 율시(律詩)를 짓게 하고, 고시(古詩)도 같은 방식으로 짓게 하시고, 표(表)와 전(箋)은 미시(未時)까지 한정하여 짓게 하신 다음, 그 권축(卷軸)을 거두어 들여 그 고하를 매기소서. 3품에서 4품까지는 예문관의 조방(朝房)에서, 5품 이하는 성균관의 조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sup>13</sup>

권근의 건의에 의하여 채택된 춘추과시법은 자신의 집에 가서 시문을 지어오면 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 변계량은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그 기한이 너무 길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다음, 시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sup>14</sup>

둘째, 변계량은 조선시대 문신 재교육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인 사가독서제를 제안하였다.<sup>15</sup> 세종은 2년 3월 16일 이름뿐이던 집현전을 재정비하였다. 집현전을 대궐 안

11 『중종실록』 3년(1508) 2월 6일의 기사에 영의정 柳洵이 올린 건의문에 문신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12 월과와 전경은 『續大典』에 그 제도가 설명되어 있다. 월과는 대제학이 홍문관의 당하관이나 문명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매년 네 차례 제목을 지어 글을 짓게 하고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가하였다. 전경은 네 차례 經書를 펴놓고 그 뜻을 시험하는데 문신은 37세 이하, 무신은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13 『태종실록』 17년 2월 12일.

14 『태종실록』(9년 9월 4일)의 기사에 따르면, 춘추과시의 결과를 가지고 관직의 승진이나 좌천에 연계하지는 않았다.

15 조선시대 사가독서제에 대해서는 줄고, 「賜暇讀書制와 讀書堂에서의 문학활동」(『한국한시연구』 8집, 2000)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에 두고 문관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정식 관원으로 임명하여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제도 자체가 변계량의 아이디어를 따른 것이며, 집현전의 신진학자를 선발할 때 변계량이 그 대부분을 추천하였다.

변계량은 집현전에 선발된 젊은 학자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사가독서제를 제안하였다. 변계량은 태종에게 나이 젊고 배울 만한 한두 사람의 유생을 선택하여, 공무를 보지 않게 하고 고요한 곳에서 독서하게 하여 정통하면 크게 쓸 것을 청하였다. 태종 때 유명무실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집현전 관원 중에 슬기롭고 민첩한 1, 2인을 골라서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집석(輯釋)과 혹은문(或問)을 연구하게 하되, 그 중의 한 사람으로는 권채가 좋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태종은 두 책만을 오래 읽으면 필경 다른 글은 공부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 견해에 따르지 않았다. 세종이 즉위하자 변계량이 다시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세종 역시 태종과 같은 우려를 하였지만, 변계량이 학문에 정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sup>16</sup> 사가독서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세종 8년이다. 『세종실록』(8년 12월 11일)의 기사를 보인다.

집현전 부교리 권채(權綵)와 저작랑(著作郎) 신석견(辛石堅), 정자(正字) 남수문(南秀文) 등을 불러 명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집현관(集賢官)을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읽혀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로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독서에 전심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집현전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어 성과를 나타내어 내 뜻에 맞게 하고, 글 읽는 규범에 대해서는 변계량의 지도를 받도록 하라.”

나이가 장래성이 있는 젊은 관원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휴가를 주어 공부를 하게 하는 사가독서제를 실시하면서 변계량이 그들의 지도를 맡았다. 또 사가독서제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그 규범 역시 변계량이 마련한 것이었다. 변계량이 마련한 사가독서제의 규범이 남아 있지 않지만, 세종 12년 5월 27일 집현전에서 문신의 勸學條件을 보고한 것이 변계량의 뜻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문신으로서 3품 이하에서 9품까지 대간을 제외하고 문예가 있는 수십 사람을 골라 품계에

16 『세종실록』 10년 3월 28일의 기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따라 집현전에 겸직하게 하여, 무릇 중국에 보내는 표전(表箋)과 본국의 문서를 지제교의 예에 의하여 제술하게 하며, 집현전 녹관(祿官)은 사간원 내제(內製)에 의하여 반드시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겸관(兼官) 열 사람은 외제(外製)를 겸임하게 하여, 본사(本司)에 일이 없는 날에는 날마다 집현전에 나아가서 강학하고, 또 사서오경과 여러 역사서, 한류(韓柳)의 문장 등의 서책을 적당한 대로 스스로 맡아서 보고 읽으며, 사중월(四仲月)마다 표전과 시문 등의 한 글제를 내어, 녹관과 겸관으로 하여금 일시를 한정하지 말고 제술하게 하고, 당상관이 본전에 모여서 그 등급의 고하는 매기지 말고 다만 평점만을 더하며, 2품 이상 문신은 집현전 당상으로 적당하게 더 임명하여 그 직함을 가지게 하고, 그 녹관과 겸관은 경연을 번갈아 맡게 하여 우대하고 장려하는 것을 보이소서.

이에 대하여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이조판서 권진(權軫), 참판 정흠지(鄭欽之) 등이 “집현전 녹관은 사간원 내제(內製)의 예에 의하여 지제교의 벼슬을 갖게 하고, 외제(外製) 10인은 예전대로 선택하여 직함을 가지게 하며, 모든 중국에 보내는 표전과 월과는 일체 집현전 녹관의 예에 의하여 제술케 하고, 나머지 조건은 시행하지 마소서.”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4월에 변계량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변계량이 당초 계획한 사가독서의 규범이 이렇게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집현전 관원의 보고에 따르면 사가독서에 선발된 사람은 사서오경과 역사서, 한유의 문장을 주로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계량이 태종 때 처음 사가독서제를 청할 때 『중용』과 『대학』의 흑문을 공부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그러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세종이 두 책만 읽었을 때의 문제점을 변계량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한 것은 변계량이 경학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이라 여긴 듯하다. 권체가 사가독서를 하면서 사서와 오경을 읽었다고 하자 세종은 두보(杜甫)의 시,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글도 함께 읽을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 세종이 사가독서제를 실시한 기본적인 의도는 문학의 흥기에 있었던 것이다.<sup>17</sup>

변계량이 인재의 양성을 위해 가장 힘쓴 것은 피폐해진 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계량이 문과의 초장에서 제술을 강하게 고집한 것도 사실은 글을 잘 짓는 문인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경의 문제점을 들 때 경학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

17 『필원잡기』에는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학하는 선비를 모아서 수십 년 동안을 양성하여 인재가 많이 나왔으나, 오히려 아침에는 관청에 나가고 저녁에는 숙직하여 공부에 전념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나이가 젊고 재주와德行이 있는 몇 사람을 뽑아서 휴가를 주어 산에 들어가 글을 읽게 하고, 관청에서 그 비용을 공급하여 經史와 百家, 天文과 地理, 醫藥과 卜筮 등을 마음껏 연구하여 학문이 깊고 넓어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함으로써 장차 크게 쓰일 기초가 되게 하였다.



할 뿐만 아니라 문학 또한 피폐해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과거제에서 진사시(進士試)에 해당하는 감시를 혁파한 바 있는데, 권근을 이어 변계량은 세종 1년 2월 7일 허조와 함께 진사시를 다시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변계량이 문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기에, 강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술 또한 경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에도 경학과 무관한 조충전각의 기술로 보았다. 특히 강경만을 시험과목으로 하자고 주장한 이선제는, 제술을 채택하면 조충전각의 기술만 익혀 아무도 성리학에 전심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 비판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거니와, 이선제와 의견을 같이한 황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당의 이상은(李商隱)과 송의 유균(劉筠) 등이 문장만을 숭상하여 서곤체(西崑體)라는 하나의 문체를 이루자 당시 과거에 응시하던 중국 선비들이 이를 높이 신봉하고 답습하였는데, 송의 윤수(尹洙), 매성유(梅聖俞) 등이 그 문체를 변경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가 그 후 구양수(歐陽脩)가 지공거(知貢舉)로 있으면서 그 병폐를 싫어하여 배격함으로써 송대에 인재가 융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시부와 사장은 유자의 말기에 불과하여 정치와 교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역설하면서 주자가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서 이른 “세속 선비들의 사장을 공부하는 것은 그 공력이 『소학』보다 갑절이나 되지만 실제로 쓸 데가 없다”라는 말을 예로 들었다.<sup>18</sup>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계량이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의 양성을 강조한 것은 사대외교라는 현실 때문이었다. 권근이 제술을 주장할 때 중국에서 사신이 와 수창할 때 웃음거리가 된다고 주장한 데서, 이미 사대외교를 위한 문학에 뛰어난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것이다. 정승으로 있던 황희, 맹사성도 변계량 생전에 강경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고려의 구재도회과시법(九齋都會科詩法)을 본받아 오부학당(五部學堂)의 생도에게 시부를 시험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sup>19</sup> 이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6월마다 사부 학당의 생도들에게 시를 지어 올리게 한 관례가 생기게 되었다.<sup>20</sup>

이선제 등과 함께 강경을 주장하였고 사사건건 변계량과 대립하였던 윤회 역시 변계량이 자신을 이어 후임 문형으로 삼고자 하였던 신장(申樞)과 함께 “표전 문자는 사대하는 일에 있어 절실한 일인데, 우리나라 초학의 선비들이 의의와 논책 등에만 오로

18 『세종실록』 12년 8월 22일.

19 『세종실록』 11년 1월 3일.

20 『세종실록』 11년 5월 28일.

지 힘써 대우와 성률의 글은 알지 못하고, 노성한 자에 이르러서도 글의 골격은 이루어도 글자를 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전조에서 선비를 뽑던 제도는 취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팔각(八角)과 고부(古賦)로 시험하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릴 때부터 대우에 힘쓰는 기풍이 일고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 선비들이 배출되었습니다.”라 하면서 초장의 의의를 팔각으로 대신하고 중장의 논을 고부로 대신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sup>21</sup>

또 윤회를 이어 집현전 대제학에 오른 이맹균(李孟詢) 역시 경학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지만 시를 말기로 보아 시학을 전폐한 관계로 대소 문사들이 시법을 알지 못하여 일신의 재주가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공무에 결함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이맹균은 시학의 진흥이 최급선무라 여겨서, 문과의 중장에서 논 대신 부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를 시험하자고 하였으며 경학을 기본으로 하는 성균관 생원에게도 여가에 『초사(楚辭)』, 『문선(文選)』이나 이백(李白), 두보, 한유, 유종원, 구양수, 왕안석(王安石), 소식(蘇軾), 황정견(黃庭堅) 등 역대 제가의 시를 익히게 하고 봄가을에 시를 짓게 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또 조정의 문신들도 이백, 두보, 한유, 유종원의 시를 익히게 하여 예문관으로 하여금 읽은 권수를 조사케 하고 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서연관(書筵官)까지도 시를 배워서 지어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시학은 청소년 시절에 공부해야 하므로 진사과를 회복하여 부와 배율십운시로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사대의교라는 실용성이 세종의 시대정신을 관류한 것이라 하겠다.

### 3. 정책 수행 과정의 리더십

#### 1) 개인적 능력과 세종의 신임

변계량이 제안하여 실시한 인재의 선발과 문신 재교육 정책은 문학을 중시하는 것이었으므로, 경학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관료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극복하여 하였다. 변계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이었다.

변계량은 조선시대 문형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첫 번째 문형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다.<sup>23</sup> 문형은 중요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다. “우리

<sup>21</sup> 『세종실록』 13년 4월 12일.

<sup>22</sup> 『세종실록』 17년 6월 26일.

<sup>23</sup> 『芝峰類說』(卷四 官職部 學士)에 洪暹의 詩 “季淮蹠趾舟恒正, 魚達成勸溉哀容. 老讓國昌申鄭忍,



나라의 문형은 모든 사대와 교린의 표장(表章)과 문사(文詞)가 일체 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문장에 능한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 조선시대 일반적인 인식이었다.<sup>24</sup>

문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질은 뛰어난 문학적 능력이다. 스스로 “4세에 고시 대구 백 수를 외웠고, 6세가 되어 구절에 맞추어 시 짓는 것을 배웠으며, 17세에 과거에 합격하였”<sup>25</sup>라고 스스로 자부한 적도 있다. 변계량이 29세 때인 1397년 조선 개국 후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 첫 벼슬이 지제교였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적 능력이 널리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니와, 이후 응교, 직제학 등 예문관의 핵심적인 직책을 맡았고, 1407년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제1인으로 합격한 후 예조참의에 올라서도 지제교의 직책은 계속 겸하였다는 점에서도 그가 국가의 중요한 외교문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륜(河崙)과 권근, 성석인(成石因) 등 관각의 최고위직 인사들이 예문관에서 모여 3품 이하의 관원에게 사흘의 기한을 주어 집에서 시와 표를 지어 바치게 하는 중월부시법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변계량이 제일 을 차지하였으니, 여기서도 그의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변계량은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문형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과거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문학적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변계량은 문학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뛰어난 아이디어도 정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변계량이 인재의 선발과 문신의 재교육과 관련하여 제안한 제도 역시 상당한 논란을 거쳐 수용되었다. 정책적인 아이디어는 유사한 전례가 있을 때 정당성을 쉽게 확보한다. 변계량이 인재 양성을 위해 제안한 제도는 변계량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 유사한 사례를 현실에 맞게 제도입한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두루 꿰뚫는 학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제안한 집현전이나 사가독서의 아이디어 역시 전례가 있었다. 종종 때 대제학으로 있

吉忠淳愼貴無窮,”이라는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조선 초기 역대의 문형을 나열한 것으로, 곧 卞季良, 尹淮, 權躋, 鄭麟趾, 申叔舟, 崔恒, 徐居正, 魚世謙, 洪貴達, 成俔, 金勘, 申用溉, 南袞, 李荇, 金安老, 蘇世讓, 金安國, 成世昌, 申光漢, 鄭士龍, 洪暹, 鄭惟吉, 朴忠元, 朴淳, 盧守愼, 金貴榮 등 26인의 이름을 한 자씩 연결하여 이 시를 지었다.

<sup>24</sup> 『중종실록』(26년 12월 19일)에서 덕이 부족한 金安老를 문형에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정승과 판서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시대 문형 제도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전기 館閣文學의 性格과 文藝味」(『국문학연구』 8호, 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sup>25</sup> 변계량, 「永樂十九年月日封事」(『춘정집』 8-100).

던 김안로(金安老)는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나이 어린 사람 가운데서 학문에 가장 우수한 선비를 뽑아서 궁중에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궁중의 서적을 마음대로 찾아보도록 하여 장래에 쓰려 하였다. 광록시(光祿寺)에서 술과 성대한 밥상을 공급하고, 태자와 친왕들이 번갈아가며 그들을 접대하였다. 황제가 때로 친히 와서 논란을 벌이고는 백금과 말·의복 등의 물건을 내렸으니, 이들에 대한 융성한 은총이 일찍이 옛날에는 없던 것이었다. 우리 왕조 세종이 비로소 이 제도를 모방하여 서생들에게 특별히 휴가를 주어 독서하도록 하였으나, 거기에 선발된 사람은 전후 삼사 명에 불과하였다.<sup>26</sup>

김안로는 세종 때 만들어진 제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명의 제도를 응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집현전 자체가 과거의 뛰어난 제도를 연구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기관이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도 변계량의 의한 것이었으니, 변계량이 명의 제도를 응용하여 사가독서제를 만든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변계량은 권근의 문하생으로 조선 초기 학계의 적통을 이은 인물이고 그가 내세운 정책의 기반 역시 권근의 의견을 계승한 것이 많았다는 점도 그의 리더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계량은 이처럼 뛰어난 개인적 능력을 갖춘 재상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변계량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임금의 자문에 의하여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태종은 13년 6월 신하들에게 선정을 베풀기 위한 방안을 듣고자 하였는데, 이에 변계량은 “자문을 널리 받을 것[廣咨訪]”과 “신하들을 잘 통솔할 것[御群臣]” 등을 강조하였다.

대체로 영명한 임금은 뛰어난 자질, 해박한 학문, 초월한 지략이 억조 중생보다 몇 만 배 뛰어난데다가, 또 존귀한 제왕이 되어 천하를 손바닥처럼 움직이므로 안중에는 이미 신하들이 없습니다. 대체로 자문을 받는 목적은 들어 보지 못한 바를 들어 보기 위해서이고 모르는 바를 알기 위해서이니, 이는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요점입니다. (중략) 신은 듣건대, 임금의 직책은 정승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면 백관(百官)과 만사가 제각기 타당성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훌륭한 사람을 얻으려고 노고하다가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편안히 앉아서 장구한 치세와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옛날에는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할 수 없습니다. (중략) 신은 삼가 생각건대, 권력은 천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이고 이익은 천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므로, 권력과 이익의

26 『중종실록』 중종 28년 3월 4일에도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칼자루는 하루라도 아랫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임금의 외롭고 신하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권력과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아래로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중략) 그러나 더러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권력과 이익의 칼자루가 권신에게 넘어갔거나 주위의 신하에게 넘어갔을 경우, 저 천하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하고 권력만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므로 임금의 권력을 흠쳐 권 사람이 이익으로 피고 권력으로 위엄을 부리면 형세상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27</sup>

변계량의 재상관이 집약된 글이다. 여기서 변계량은 권력뿐만 아니라 이익까지 임금이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하를 통제하는데, 이때 재상은 임금의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변계량은 다른 신하들과 중요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지나칠 정도로 고집을 부렸지만, 임금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자문에 대해 충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임금이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계량은 재상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한 데다, 문교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세종 8년 사가독서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그 성과는 자신의 뜻에 맞게 하되 그 규범은 변계량의 지도를 받도록 명한 바 있다.<sup>28</sup> 특히 문과 초장에서 제술과 강경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세종 연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변계량과 의논하도록 하였다.

예조참판 유영(柳穎)이 계하였다. “신이 들건대, 성균관에서는 근년 이래로 제술만 전용하고 강경은 시험하지 않으므로, 생도들이 오로지 초집하는 일만 일삼고 경학에는 힘쓰지 않는다고 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컨대 구재(九齋)의 예에 따라 고강하여 차례대로 승진시킨다면 학생들이 자연히 학업에 부지런할 것이며 관(館)에 있을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다만 성균관뿐만 아니라 외방의 향학(鄉學)도 또한 그러하니, 변계량과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sup>29</sup>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말하였다. “건의하는 자가 동당(東堂)의 강경법(講經法)을 다시 세우려고 하나, 이미 숙의하여 행한 것이니 다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학자들이 경서를 읽지 않고 한갓 초집한 것만을 익히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다. 과거장에 책을 끼고 들어가거나 짝을 지어 말하는 자는 모두 금지하고, 만약에 이를 범한 자는 퇴장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경서를 통하는 자는 그 제술도 반드시 본지와 합할 것이요, 능하지 못한 자

27 변계량,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춘정집』 8-85). 민족문화추진회 번역본을 따른다.

28 『세종실록』 8년 12월 11일.

29 『세종실록』 10년 2월 12일.

는 이와 반대일 것이니, 이것을 예조에 내려서 변계량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sup>30</sup> 허조가 아뢰었다. “과시(科試)의 법이 하루가 아닌데, 동당의 금령은 다소 엄하고 감시(監試)는 다소 너그러운 법입니다. 어제는 협서(挾書)를 수색함이 너무 엄하여 거자(擧子)들이 모두 고생을 하였습니다. 생원은 시험으로 취하여 바로 임용하는 사람이 아니요, 장차 성균관에 기거하면서 독서하게 하려는 자이오니, 이같이 엄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내 뜻도 역시 그러하다.” 하였다. 우대언 허성(許誠)에게 명하여 “판부사의 말이 그러하니 판부사(判府事, 변계량)에게 말하라.” 하였다. 변계량 역시 아뢰었다. “성상의 하교하심이 지당합니다. 마땅히 예조로 하여금 전대로 협서를 수색하게 하되, 너무 엄하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sup>31</sup>

강경을 주장하는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든, 제술만을 취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종은 늘 변계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여 그에게 일을 맡겼다. 한성시(漢城試, 監試)에서 시험장에 책을 끼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엄격하게 수색하는 폐단을 지적한 허조의 제안에 대해서도 세종은 변계량에게 최종적인 뜻을 물었을 정도다.

물론 변계량은 문학을 진흥시키는 것이 당대의 급무라 여긴 세종의 뜻을 받들었기에 이러한 절대적 신임이 있게 된 것이다. 변계량은 과거 시험장에서 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세종의 뜻이 그러함을 알고 자신의 뜻을 쉽게 굽혔다. 세종은 가장 뛰어난 재상에게 절대적 신임을 보여 이를 통하여 재상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요, 변계량으로서는 세종의 뜻을 존중하되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라 하겠다.

## 2) 공정성과 추진력

변계량은 도덕적 결함이 있었다. 실록의 줄기에는 “처음에 칠원부사 권총(權總)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가 버리고, 오씨(吳氏)에게 장가 들었다가 오씨가 죽자, 다시 이촌(李村)의 딸에게 장가 들었지만 몇 달 만에 버리고, 또 도총제 박언충(朴彦忠)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아내에게 장가 들었다는 일로서 유사들의 탄핵을 받았다.”라 되어 있다. 변계량이 이촌의 딸과 혼인하여 계실(繼室)로 삼았는데, 부부의 예로 대접하지 않고 간섭이 너무 심하여 방 가운데에 가두어 두고 창구멍을 내

30 『세종실록』 10년 12월 6일.

31 『세종실록』 11년 1월 18일.



어 음식을 통하게 하고 오줌을 누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촌이 노하여 변계량을 욕하고 그 딸을 빼앗아 가고, 드디어 사헌부에 소송하였다고 한다. 변계량이 이를 인정하고 사직하자 “비록 성인이라도 작은 허물이 있는 것을 면치 못하거든, 하물며 그 아래 가는 사람이겠는가? 만일 지금 변계량을 파직하면 문한(文翰)의 임무를 누가 감당하겠는가?”라 하여, 태종은 그의 능력을 들어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sup>32</sup>

변계량이 이런 개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였다. 조선 초기 대부분의 재상에게서 발견되는 뇌물 등 공무와 관련된 부정은 저지르지 않았다. 변계량은 특히 인재를 선발할 때 매우 공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계량은 인재의 선발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여겼다. 태종은 7년(1407) 4월 18일 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친시(親試)에서 변계량은 시무책(時務策)을 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재의 선발을 정밀히 하는 것을 들었다. 인재의 선발을 정밀히 하려면 요행히 불법으로 진출하는 길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3</sup> 변계량이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문한의 직임을 맡게 된 계기가 된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인재의 선발을 정밀하게 할 것을 들었으니, 인재의 공정한 선발이 변계량의 정치 행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계량은 예조에서 시행하는 문과를 다섯 번 관장하고, 사마시(司馬試)를 세 번 관장하였으며, 친시에서 두 번 독권관(讀券官)을 관장하였는데 그 때마다 매우 공정하였다. 1414년 남재(南在) 등과 함께 회시(會試)를 관장하여 조서강(趙瑞康) 등 33인을 뽑았는데, 이때 태종이 “권도(權蹈), 성개(成概), 이하(李賀), 이수(李隨)는 모두 조사(朝士)인데 아무도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으니, 가히 시험을 관장한 공정성을 알겠다.”라 하였다. 특히 권도는 곧 권제(權蹊)로 변계량의 스승인 권근의 아들이었으니 변계량의 공정한 태도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제자 정척(鄭陟)이 지은 행장에서 “선비를 취함이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였다. 그리고 과장 주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응시하는 사람들의 부정을 금하여 고려조의 어지러운 습속을 혁파하고 만대에 이어갈 과장의 법을 바르게 하니, 선비들이 모두 복종했다.”고 적고 있다.<sup>35</sup>

<sup>32</sup> 『태종실록』 12년 6월 26일.

<sup>33</sup> 변계량, 「存心出治之道立法定制之宜」(『춘정집』 8-107).

<sup>34</sup> 『태종실록』 14년 2월 26일. 성개 역시 스승인 成石因의 조카이자 成石琿의 아들이며 성삼문의 조부인데, 조선 초기 대표적인 명문가로 꼽힌다. 이수는 훗날 대제학에 오른 인물이다.

<sup>35</sup> 『춘정집』(8-162)에 실려 있다. 정척은 변계량의 시 “春園曾見士如林, 萬萬花容有淺深. 李白桃紅都自取, 天工造化本無心.”을 들고 변계량의 엄정한 태도를 이 시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변계량은 과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도를 제안하였다. 태종 14년 7월 17일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친시에서 시무에 대한 책문을 요구하였는데 유씨(酉時) 초일각(初一刻)까지 시권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것이 조선시대 백일장(白日場)의 시초다. 이때 변계량이 시권을 걷는 일을 하면서 백일장이 공정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임을 알았던 듯하다. 그래서 변계량은 태종 17년 윤 5월 9일 백일장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백일장은 낮에만 시험을 보는 것으로 등불이나 촛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태종이 이인복(李仁復)을 예로 들어 경서를 늘어놓고 오랫동안 지었지만 글이 매우 좋았다고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지만 변계량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경복궁 친시에서 부정이 있었다 하여 끝까지 백일장을 고집한 바 있다. 임금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변계량이었지만 공정한 시험의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 5년 3월 13일 시행한 문과 초장에서는 백일장을 시행하였다.

과거 제도가 설치된 지 오래이니, 향리에서 인재를 선발해 올리는 법이 폐지되면서부터 과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저 백의의 서생으로서 하루아침에 지척의 사이에서 임금의 얼굴을 우러러 대하여 자신의 포부를 펼치는 것은 실로 세상에 드문 영광이라 할 만합니다. 그 영광이 지극하므로 그 선택이 정밀해야 하고, 그 선택이 정밀해야 하므로 그 법을 세움이 엄합니다. 과장의 둘레를 가시나무로 막고 등축(燈燭)을 금하는 것[棘圍禁燭]은 밖으로부터의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고, 시권의 신원이 적힌 부분을 봉하고 바친 시권을 서리가 주필(朱筆)로 베껴 쓴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封彌易書]은 안에서 공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선비를 취하는 법이 제대로 되어 사람들이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까닭으로, 『고려사』에 “당시 의논이 어지러워 비로소 중국에서 행하는 ‘봉미와 역서’의 법을 썼다.”는 말이 있으니, 봉미와 역서는 실로 과거의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고자 하니 되겠습니까. 이른바 어떤 사람은 알기 쉬운 글로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통하기 어려운 뜻으로 시험하여 사사로운 뜻에 끌려 분명하지 않게 시험하여 취한다고 하는 것이 대개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는 것에 또한 무슨 사사로움이 깰 것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중장(中場)과 종장(終場)에는 또 어찌 봉미와 역서의 법을 쓰는 것입니까. 봉미와 역서는 고금 천하가 다 같이 하는 것이니, 얼굴을 마주 대하여도 사사로움이 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것이 망녕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중략)

문과의 초장, 중장, 종장에는 모두 취사가 있습니다. 중장과 종장에는 다만 시권을 가져다가 서리가 주필로 베껴 써서 그것으로 그 우열을 매기기 때문에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는 자취가 드러나지 않아 학자들이 편하게 여기는데, 만약 초장에 강경을 하게 된다면 면전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므로 부끄럽고 두려움이 참으로 권근이 말한 바와 같은 점이 있을 것입니



다.<sup>36</sup>

변계량이 문과 초장에서 강경의 부당성을 지적한 글이다. 변계량은 잡인의 출입을 엄금하기 위하여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시험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하여 촛불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채점 과정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가리고 필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들이 답지를 옮겨 쓰도록 하는 등 고려 이래의 엄정한 과거 규정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채점관과 얼굴을 마주하고 경전을 외우는 강경이 공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에 변계량은 제술을 시험보이고자 한 것이다. 시관이 강경할 때에 사정을 봐주는 일이 자주 있어 시험 보는 자가 자기의 친족일 경우에는 강을 비록 적절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덮어 비호하여 주는 일이 있었음을 변계량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였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집에 가져가서 글을 지어오게 한 권근의 춘추부시법을 개정하면서, 글을 지을 시간을 제한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짓지 못하도록 한 것도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게 한 조치다.

변계량은 과거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일장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태종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변계량은 재상은 임금의 뜻을 존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신하의 자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임금의 조건임을 함께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필원잡기(筆苑雜記)』(권1)에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문숙공(文肅公) 변계량은 고집스런 성품이었다. 선덕(宣德) 연간에 흰 꿩을 하례하는 표(表)에 ‘유자백치(惟茲白雉)’라는 어구가 있었는데, 문숙공이 “자(茲)는 중행(中行)<sup>37</sup>으로 해야 한다.” 하였다. 여러 공들은, “임금과 관련한 것이 아닌데, 왜 중행이라 이르는가.” 하였다. 문숙공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였다. 제공들은 임금에게 문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세종께서는 여러 공들의 의견을 옳다고 하였다. 이에 공이 다시 아뢰었다. “농사짓는 일은 남 자종에게 물을 것이요, 길쌈하는 일은 여종에게 물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하는 일이라면 문효종(文孝宗)의 무리에게 묻는 것이 마땅하오나, 사명(詞命)에 이르러서는 노신에게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오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하였다. 세종이 부득이 그의 의견을 좇았다.

흰 꿩은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것이 임금의 덕과 연결되기에 변계량은

36 『세종실록』 10년 4월 23일.

37 임금과 관련한 글자는 새로운 행에 쓰는 법을 이른다.

“이 흰 꿩(玃白雉)”부터 새로운 행에 써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변계량의 고집을 꺾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학문이 깊은 세종의 권위를 빌고자 하였다. 그러나 변계량은 세종의 해석조차 거부하였다. 글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고 그 자문에 따르는 것이 임금의 바른 태도로 한 것이다.<sup>38</sup> 변계량의 시호는 문숙인데 실록의 줄기에 따르면, 배우기에 부지런하고 문기를 좋아함이 문(文)이요, 마음을 굳게 잡고 일을 결단함이 숙(肅)이라 한다. 변계량의 리더십은 뛰어난 학문과 과단성에 있었음을 시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맺음말

변계량은 인재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의 수행에 큰 공을 세웠다. 변계량은 과거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또 사가독서제를 만들어 선발된 관료의 재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고급 관료가 되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학적 자질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수시 평가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계량이 문학을 강조한 것은 당시 문물제도의 정비와 사대교린에 필요한 문예 외교에 문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유학적 소양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실용성이라는 세종의 시대정신과 잘 부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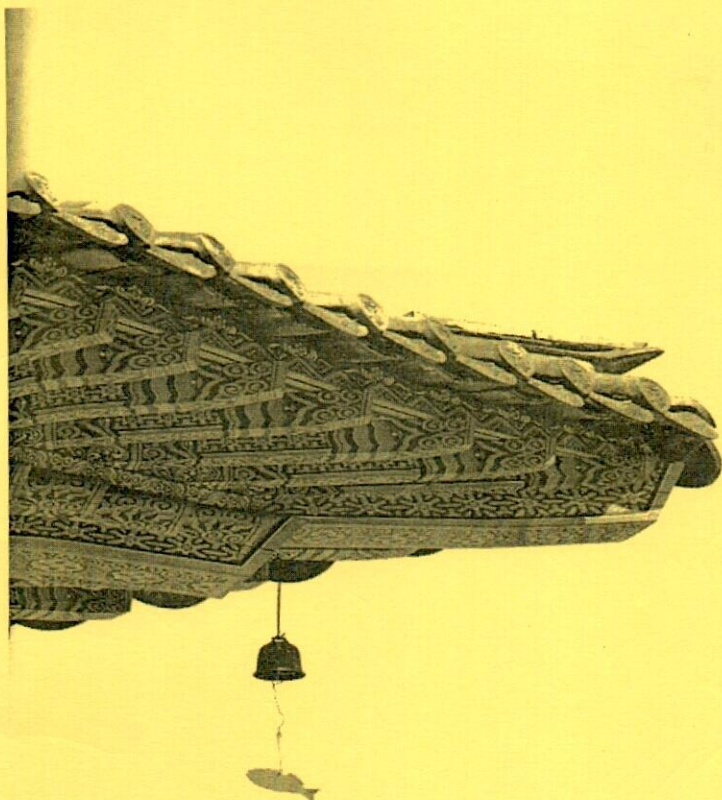
변계량은 자신의 뛰어난 학문적·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였고 세종은 능력을 갖춘 변계량을 전폭적으로 신임하여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변계량은 공정함과 엄격함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의 실행이 원만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 성공에 이를 수 있게 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변계량이 통치권자인 세종을 잘 보필하여 개국의 와중에서 고갈되었던 인재를 풍

<sup>38</sup> 변계량은 문과 초장에서 제술만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앞서 명나라 조정의 사신으로서 술을 만드는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이란 실로 국가에서 빛는 것이지만 국가에서는 반드시 內資寺와 內膳寺의 노숙한 酒婆에게 물어야만 그 방법에 대한 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文忠公 權近은 과장에 있어서 참으로 노숙한 주파에 비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술을 만드는 방법을 짓고자 한다면 반드시 노숙한 주파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과거를 논하면서 권근의 의논을 따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라 하였다(『세종실록』 10년 4월 23일). 여기서도 임금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재상의 자문을 받아들여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하게 양성할 수 있었다. 집현전의 핵심적인 신진관료가 대부분 그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되고 재교육되었기에 세종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많은 업적을 낼 수 있었고, 세조, 성종으로 이어지는 문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춘정 변계량의  
표전(表箋) 제작과 대외관계



이 은 영 / 이화여자대학교





# 춘정 변계량의 표전(表箋) 제작과 대외관계

이은영(이화여대 국문학과)

1. 들어가며: 선초 표전 사건과 문형(文衡) 변계량
2. 춘정 변계량 표전의 서술 특징: 명분(名分)과 실리(實利)의 경계에서
  - 1) 명분의 수용과 변려문의 전략적 사용
  - 2) 과식과 극찬, 그 이면의 수사적 코드
  - 3) 실리와 소통의 명분(名文) <청면금은표(請免金銀表)>
3. 춘정 변계량 표전의 의의: ‘화국(華國)’과 ‘해범(楷範)’의 문장

## 1. 들어가며: 선초 표전 사건과 문형(文衡) 변계량

명분상 제후국으로 간주되어 왔던 우리나라는 정례적으로, 또는 특별한 때를 기하여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왔고 그 때마다 표문(表文), 전문(箋文), 주문(奏文), 자문(咨文) 등의 이름으로 된 외교 문서를 가지고 갔다. 이 중에서 표문과 전문은 각각 중국의 황제와 황태후, 황태자에게 경하(慶賀)나 사은(謝恩), 진정(陳情), 청권(請勸) 등의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 국왕의 이름으로 올리던 글을 말한다.<sup>1</sup> 표전은 국익 또는 생존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대(事大) 외교의 부산물로, 자주외교와 균형외교를 지향하는 현대적 관점에서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내용상 대국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표현상 상대방에 대한 필요 이상의 칭송과 자국에 대한 지나친 겸사가 자칫 아유로 비추어지기도 한다는 점, 문체상 일정한 규범에 의해 틀에 박힌 듯이 지어짐으로서 작가적 개성이 발휘될

<sup>1</sup> 황제에게 올리는 기존의 표문(表文) 이외에 황태후 황태자에게 올리는 전문(箋文)을 따로 두어 쓰게 한 것은 명나라에 와서 생긴 제도이다. 따라서 전문(箋文)의 경우 통상 우리나라 국왕에게 올린 상서류(上書類) 문장 전문(箋文)과 구분이 필요하다.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은 그간 역사적인 관점에서나 문학적인 견지에서 유의미한 접근을 막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표전의 존재는 역사적 실상이었으며, 나랏글 쓰는 것을 소임으로 삼았던 관각 문인들에게는 중요한 문학적 역할이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표전의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멀리는 삼국시대부터 가까이는 고려 말까지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부터 상례적으로 지어졌던 표전이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명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해준 데 대한 사은표 속에 업신여기는 언사가 섞여 있다는 것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여<sup>2</sup> 1년 뒤 하정표문에 “경박희모(輕薄戲侮)”의 문구가 있다고 하여 하정사로 파견된 유구(柳駒)와 정신의(鄭臣義)를 억류하고 찬자로 정도전(鄭道傳)을 지목하며 압송을 요구하는 1차 표전 사건<sup>3</sup>, 같은 해, 국왕의 고명과 인신을 청하러 온 주청(奏請) 표문에 은나라의 紂의 일을 문장에 인용했다고 하여 사신으로 간 정충(鄭攄)을 억류하고 역시 찬문 교정에 관여한 인사를 압송하도록 요구한 2차 표전 사건<sup>4</sup>, 천추사(千秋使) 유호(柳灝)가 가져간 표문에 부당한 문자가 사용되었다고 유호가 억류되고 찬문자인 공부, 윤규, 윤수 등이 압송되게 된 3차 표전 사건<sup>5</sup>을 연이어 일으키며 조선을 압박한다.

명나라가 트집을 잡았다고 하는 표전의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이나 『명사(明史)』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태조 2년의 사건에 한해 태조 2년 3월 갑인조에 실려 있으나 어느 부분이 ‘업신여기는 언사’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요동 정벌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생트집이었다는 설, 출신에 대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던 주원장이 광범위하게 일으킨 문자옥(文字獄)<sup>6</sup>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설, 군사력에 의한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명이 예제의 문제를 통해 원이 점하고 있던 우위를 확보하여 했다는 설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표전 사건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명의 의도가 표면화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7</sup>

2 『태조실록』, 태조 2년 3월 갑인

3 『태조실록』, 태조 5년 2월 정유

4 『태조실록』, 태조 5년 3월 병술

5 『태조실록』, 태조 6년 12월 병신

6 명태조 주원장이 군주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공포 정치의 한 수단이다.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문인들을 진압하겠다는 뜻에서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한 때 승(僧)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흥건적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연상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였다.

7 선초 표전 사건과 관련한 연구로는 박원호, 명초 문자옥과 조선표전문제, 『사학연구』 제25호, 한국사학회, 1975 : 박원호, 명초 조선의 요동정벌 계획과 표전문제, 『백산학보』 제19호, 1975 : 심재



그러나 조선 측의 대응은 의외의 방향에서 마련되고 있었다.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문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장 강화 측면에서 해결을 모색하려 한 것이다. 우선, 국가 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의 위상을 강화<sup>8</sup>하고 역량 있는 문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안해 내었다. 대우와 성률 교육을 강화하여 과거 시험에 반영하였고, 의주(儀注)를 제정하거나 중국의 유명 초집(抄集)과 동국 명유들이 제술한 표전, 책문 등을 인쇄 배포하여 글공부의 자료로 삼았다. 표전을 담당하는 승문원의 관원을 다른 임무에서 제외하여 맡은 직책에 전력하도록 하는가 하면 매달 두 번, 표전 50자 이상을 쓰게 하여 포폄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둘째, 승문원과 예문관이 함께 간여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문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표전의 경우 수미(首尾) 부분은 승문원의 제술관이 짓고 본문은 예문관의 지제교나 대제학이 제술하도록 하는 이원적 제술 방식을 도입하고, 제작 책임을 문형이 지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문서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자극하여 외교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회피자양(回避字樣)의 문제에 신중을 기하였다. 문서 중에 회피해야 할 자양을 일러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이 회피자 정보를 얻어 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온 사신에게 먼저 물어 보기도 하였고, 황제에게 전달하기 직전 실무 관리에게 미리 보여주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명 측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 사신이 직접 적거나 고친 문안을 다시 보내는 등 편법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명나라가 반포한 표전식(表箋式)을 수용, 능동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였다. 표전식은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표전을 지으라는 요구로, 들어갈 내용은 물론 행과 글자크기, 종이 등 형식적 조건까지 규격화시킨 것을 말한다. 표전식의 수용은 획일적이고 상투적인 작품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적어도 시비의 요소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sup>9</sup>

이러한 시기에 큰 역할을 한 관료 문인이 변계량이다. 변계량은 태종-세종대까지 20여년 간 문형을 잡고 있으면서<sup>10</sup> 문물제도의 정비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국

권, 조선의 대명청 문서로 인한 갈등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34호, 2009 등이 있다.

<sup>8</sup> 박홍갑, 「조선 초기 승문원의 성립과 그 기능」, 『사학연구』제62호, 2001

<sup>9</sup> 당시 조선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시대 표전 연구(1)-보국과 화국의 역할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회연구 제48호, 한국한문학회, 2011)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sup>10</sup> 심상규가 쓴 「춘정선생문집중간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문형이 변계량이다. 그는 “선생보다 예문관과 성균관의 장을 먼저 겸임한 분은 권양촌이지만 문형의 이름이 불게 된 것은 춘정 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國朝館閣 藝文館最先設 而成均任教習 故藝文大提學 兼長國子 是爲典文



가사업에 있어서 문장의 중요성을 간파, 강경 위주의 과거 관행에서 제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고<sup>11</sup>, 그 스스로 표전, 책문, 각종 의례문 등 나라의 중요 문서를 도맡아 지어 관각문의 전범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변계량이 탄핵을 당했을 때 태종이 “만일 지금 변계량을 파직하면 문한의 임무를 누가 감당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적극 비호했다는 일화<sup>12</sup>나 표문의 자구 띄어 쓰는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가 변계량이 “사명(司命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에게 맡겨야 하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따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세종이 편을 들어 주었다<sup>13</sup>는 일화는 유명하다.

## 2. 춘정 변계량 표전의 서술 특징: 명분(名分)과 실리(實利)의 경계에서

『춘정집』에는 32편의 표전이 수록되어 있다.<sup>14</sup> 이 가운데 18편은 사은표(謝恩表)로, 황제의 하사품 또는 부의를 받고 올린 것이 대부분이고, 체류된 백성을 돌려보내주었을 때, 책봉을 해 주었을 때 사례의 의미로 올린 것도 있다. 10편은 하표(賀表)로, 절일(節日)에 상례적을 올린 것 외에 명이 변방의 반란을 평정하거나 태평성세의 증거라고 하는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났을 때, 황태자의 등극을 즈음하여 올렸다. 나머지 5편은 청표(請表)이다. 선왕의 시호를 청하기 위해 올린 「청시표(請諡表)」 두 편과 금은 조공을 면제해 달라고 올린 「청면금은표(請免金銀表)」 「청면금은전(請免金銀箋)」 등 두 편이 남아 있다.

사은표와 하표는 대체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통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틀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육금침(四六金鍼)』을 지은 진기년(陳其年)은 하표(賀表)의 체제로 과제(破題)- 송성(頌聲)- 술의(述意)의 순서를 제시한 바 있는데<sup>15</sup> 이 공식은 하표 뿐 아니라 표전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이다. 사은 및 하례의 이유와 함

衡 陽村權文忠 雖先先生兼拜藝文成均 而文衡題名 則先生實首之 專典文枋 號爲文衡 其始自先生]” 고 적고 있다.

11 『세종실록』 세종 10년 2월 12일

12 『태종실록』 태종 12년 6월 26일

13 『필원잡기』 제11권, 『연려실기술』 제2권

14 『춘정집』 제 9권과 추보에 수록되어 있다.

15 진기년의 설은 심경호, 『한문 산문의 미학』, 고려대 출판부, 1998, 387쪽에서 재인용. 표전은 일정한 양식을 구비해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역대 문체론과 문장론에서는 양식성과 전형성을 작품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께 황제를 향한 칭송과 송축, 제후국으로서의 다짐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명나라가 표전식을 반포하고 조선이 이를 수용하면서 변용의 여지는 더욱 더 줄었는데 그런 면에서 변계량의 작품 또한 독창성 면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점은 없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규범화 양식화되어 있을 글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었던 민감한 문체, 표전을 어떻게 요령껏 운용하였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1) 명분(名分)의 수용과 변려문의 전략적 사용

표전식의 제작을 직접 주도한 명태조 주원장은 변려문의 유행으로 촉발된 화려한 문사와 이에 따른 내용의 부실, 문풍의 쇠미함을 들어 사록문 대신 산문을 쓰라고 주문하였다. ‘쓸데없이 글이 번잡하고 장황하게 되어 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폐단’, ‘글이 번용(繁冗)하여 경력이 있는 노련한 관리가 아니면 능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소한 무리들이 글을 가지고 농락할 수 있는 가능성’, ‘화려한 문사가 내용을 가리거나 포장, 또는 왜곡하게 될 위험성’<sup>16</sup>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표전식의 내용과 체제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형식에 한해서만은 변려문을 고집하였다. 특히 변계량은 의례적 성격이 강한 사은표와 하표 모두를 변려문으로 지었다.

사신이 이르러 좋은 소식을 전하고, 황제의 거듭된 은총이 두루 친속들에게 미치었습니다. 한없이 감격하여 뼈가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용렬한 신이 다행히 좋은 때를 만나 제후의 도리를 부지런히 하였으나 털끝만큼도 보필하지 못하였는데, 여러 차례 성상의 사랑을 입어 영광스러운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sup>17</sup>

삼가 생각건대, 신이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 태평 성대를 만났습니다. 몸이 조선에 얽매어 있어 경축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화축(華祝)보다 정이 더 깊어 하례의 시를 바치고자 합니다.<sup>18</sup>

16 주원장이 도합 5차에 걸쳐 표전식을 반포하면서 내건 이유이다. 『백도백과(百度百科)』 ‘표전지화(表箋之禍)’ 항목에서 발췌 번역하였다.

17 『춘정집』 제9권, 「謝恩表」, 使命聿至。昭布德音。皇恩沓臻。遍加親屬。佩銘無已。糜粉難酬。竊念猥以譴材。幸逢熙運。祇勤侯度。裨益乏於絲毫。屢被聖慈。榮輝溢於筐篚。

18 『춘정집』 제9권, 「賀瑞象白鳥甘露醴泉天花圓光浙江潮緩滌河水退表」 “伏念猥將庸質 幸際昌辰 迹滯箕封 雖阻駿奔之列 情深華祝 願廣虎拜之詩”



앞의 예문은 황제의 선물을 받고 보낸 사은표의 서두 부분이고 뒤의 예문은 명나라에 서상(瑞象), 백조(白鳥), 감로(甘露), 예천(醴泉) 등 상서가 나타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보낸 하표의 마무리 부분이다. 흔히 표전에서 주체인 조선의 임금은 늘 ‘자질과 역량이 보잘 것 없고’ ‘덕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효를 거두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제잠(鯉岑)” “접역(鰈域)” “폐방(弊邦)” “한번(漢蕃)” “폐봉(弊封)” “동표(東表)” “소방(小邦)” “봉강(封疆)” “황예(荒裔)” “하예(遐裔)” “황복(荒服)” 등 표전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칭의 표현들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겸사와 비칭이 대부분이다.

변계량이 사은표와 하표에 변려문을 고집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주원장이 변려문을 금지했던 이유와 일치한다. 대우와 전고, 미사여구를 특징으로 하는 변려문이 야말로 장식적 심미적 기능이 우세한 미문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과식(過飾)과 찬사, 비칭과 겸사가 맞물려 서술되는 이러한 표현 전략은 일차적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심미적 효과를 가져온다. 미사여구의 활용 빈도가 높을수록, 겸사와 찬사의 상대적 진폭이 크면 클수록 심미적 효과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표전의 목적이 양국의 명분관계를 엄격히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제후국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대의 도리를 밝히는 데 있을진댄, 변체가 포함하고 있는 장식적 기능은 ‘사대(事大)’라고 하는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변계량은 같은 형식의 비슷한 내용의 문장을 구사하면서도 똑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를테면 ‘뼈가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은 “揆分踰望 銘骨何忘” “揆分踰涯 粉骨圖報” “對揚惟謹 糜粉難酬” “優渥非常 糜粉難報” “佩銘曷已 糜粉難酬” “撫竊知感 銘骨何忘” “感極涕洟 報期糜粉” “撫躬知感 銘骨難忘” “佩銘無已 糜粉難忘” “揆涯分而實踰 誠糜粉而難報” “拊躬知感 銘骨難忘” 등으로 다채롭게 구사하였고, ‘보잘 것 없는 사람(나라)이 태평성대를 만나 황제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상투적 내용 또한 “猥將庸陋 叨荷生成” “竊念顧惟小邦 幸逢熙運” “遂令駑鈍 獲被鴻私” “故令簪履之賤微 仰銜乾坤之生育” “屏資荐蒙殊錫” “遐裔獲被洪私” “遂令瑣末之資 獲受保釐之寄” “遂令陋質 獲荷寵光” “遂令弊封 獲蒙洪造” “伏念臣猥將庸質 幸際昌辰” 등으로 다양한 변용을 꾀했다. 이는 표전에서 내용 자체보다는 적절한 표현 전략과 능란한 구사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면서 문장가 변계량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 2) 과식과 극찬, 그 이면의 수사적 코드



삼가 생각건대, 폐하의 총명은 순 임금과 같고 공적은 요 임금과 비슷합니다. 이제(二帝)가 옛날 봉한 곳에 남시자 큰 고을이 새로워졌고, 삼왕(三王)의 지극한 치세(治世)로 오르시자 하늘과 짝이 되었습니다.<sup>19</sup>

삼가 생각건대, 강건중정(剛健中正)하고 제성광연(齊聖廣淵)한 폐하께서 문치(文治)를 크게 펼치어 이제삼왕(二帝三王)을 계승하여 표준을 세우시고, 무예의 공을 이룩하여 구주(九州)와 사해(四海)를 일가(一家)로 만드셨습니다.<sup>20</sup>

삼가 생각건대, 신이 분수 넘게 제후의 위치에 있으면서 다행히 태평성대를 만났습니다. 본손(本孫)과 지손(支孫)의 번창을 노래하는 주아(周雅)에 화답하고, 기주(箕疇)처럼 장수하고 부유하시기를 항상 축원하겠습니다.<sup>21</sup>

칭송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명나라 황제에 대한 묘사이다. 변계량의 표전에서 황제는 요순(堯舜)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당대는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의 시대로 표현된다. 도와 합치되는 태생적 완결성, 요·순·우·탕과 같은 인격적 완벽성을 구비하고, 만이나 이적 등 복종하지 않는 나쁜 무리에 대해서 성스러운 무력을 떨쳐, 온갖 상서가 이르고 환호성이 천지에 넘치는 전형적인 성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포착해야 하는 단서가 있다. 미사여구와 과다한 칭송 속에 내포된 또 다른 수사적 코드이다.

황제는 성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극찬되지만 전혀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경전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전고를 활용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할 따름이다. “강건중정(剛健中正)”은 『주역』 「건괘」에서 성인의 덕을 지닌 천자에 대해 언급할 때 쓴 구절<sup>22</sup>이다. “제성광연(齊聖廣淵)”은 주(周) 성왕(成王)이 성탕(成湯)을 찬미한 말로, 『서경』 「미자지명(微子之命)」에 나온다. 표전의 마지막 대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축원의 문맥에서 사용된 “주아(周雅)”는 『시경』 「대아(大雅)」의 문왕편(文王篇)을 가리킨 말로, 주(周) 문왕(文王)의 자손(子孫)이 번창함을 칭송한 시이다. “기주(箕疇)”는 기자(箕子)가 지었다고 하는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열거된 오복(五福), 즉 장수, 부

19 『춘정집』, 제9권, 「賀駕幸北京表」, “欽惟聰明齊舜 文思協堯 就二帝之舊封 式新大邑 登三王之至治 克配皇天”

20 『춘정집』, 제9권, 「節日賀表」, “欽惟剛健中正 齊聖廣淵 文德誕敷 繼二帝三王而立極 武功耆定 奄九州四海以爲家”

21 『춘정집』, 제9권, 「賀皇太子正位箋」, “伏念叨居侯服 幸際昌辰 載賡周雅之本支 恒祝箕疇之壽富”

22 『주역』 「건괘」 “大哉乾乎 剛健中正 純粹精也”



(富), 건강하고 안녕함[康寧], 덕을 좋아하는 성품[攸好德], 천수를 누리고 죽음[考終命]을 일컫는다. 그밖에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남산수(南山壽)” “강릉수(岡陵壽)” “호배지성(虎拜之誠)”<sup>23</sup>등도 모두 『시경』과 『서경』에 등장하는 말이다. “화봉지축(華封之祝)” “중윤지사(重潤之辭)” “숭악지호(嵩嶽之呼)”<sup>24</sup> 등도 예부터 관습적으로 써오던 표현들이다.

경구와 전고, 관습적 표현의 활용은 글에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하고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간에 심리적 공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표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대상과 사안에서 사실성 개별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맥락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대상을 이념화 보편화 한다. 즉 전고를 통해 묘사된 황제는 살아 숨 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전범화된 유가 이념 속 ‘성군(聖君)’이다. 그가 다스리는 시공간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적 현실’이자 ‘이상 세계’이다. 따라서 요순으로 추앙하는 것은 곧 요순이 되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무(聖武)를 예찬 하는 것 역시 생명을 죽이거나 약소국을 짓밟는 무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담고 있다. 태평성대에 대한 구가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을 사해에 배 풀어 하늘의 뜻을 구현하라고 하는 강한 규제이다. ‘사대(事大)’라고 하는 표면적인 주제 이면에는 천자국의 책무, 즉 태평성세를 지속시켜야 하고 사해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자소(字小)’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를 한껏 추앙하는 표현 방식에서 굴종이나 아유 이상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 3) 실리와 소통의 명문(名文) 「청면금은표(請免金銀表)」

변계량이 남긴 32편의 표전 가운데 유일하게 산문체로 지어진 작품이 있다. 「청면금은표(請免金銀表)」, 「청면금은전(請免金銀箋)」이다. 이 두 작품은 금은을 공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의 요구에 조선의 입장을 호소하고 갈등을 수습해야 할 목적으로 지

<sup>23</sup> “南山壽”와 “岡陵壽”는 임금에게 장수를 축원하는 말로서, 『詩經』「小雅 天保」에 나온다. “虎拜”는 만년토록 강녕한 복을 받을 천자라는 뜻으로 『시경』「大雅 江漢」에서 “召虎가 엎드려 절하고 천자의 만년을 빌었다.[虎拜稽首 天子萬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sup>24</sup> “華封之祝”은 華封人이 堯 임금에게 壽와 富와 多男을 기원했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며, “重潤”은 漢나라 光武帝의 태자를 위하여 바친 樂章 가운데 하나로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嵩嶽之呼”는 漢나라 武帝가 嵩山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때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들렸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백성들이 임금을 찬양하여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함을 말한다.



어진 청표(淸表)이다.

삼가 생각건대, 하늘은 사람을, 아버지는 자식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람이나 자식이 정말 다급한 사정과 괴로운 고통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황급히 하늘이나 아버지를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천하의 상리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아버지처럼 사해의 안팎에 임하시어 만물로 하여금 모두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필부필부로 하여금 자신의 구실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도 혼자 걱정하고 답답해하면서 채 위에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폐하를 하늘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한 번 말씀드리는 바이니, 폐하께서는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소방이 토질이 척박하여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고황제 홍무 5년 10월에 중서성에서 하교를 받았는데, 그 하교에 “예로부터 멀리 변방에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바치는 것은 예물로 정성을 표시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그들이 조공하러 올 때는 그 지방에서 나는 배 3, 5對를 넘지 않게 하여 편리하게 성의를 표하게 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지고 오지 말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정월 초하룻날에는 배만 받아들이고 그 밖에 금은의 그릇은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는 대체로 고황제께서 만 리를 훤히 내다보아 우리나라에 금은 이 생산되지 않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임금께서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신 의의와 똑같은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옛날의 성인이나 후세의 성인이 그 제도는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당시에는 원 나라 상인들이 장사 목적으로 가지고 온 금은이 얼마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방에서 옛날처럼 바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간에 쓸 대로 다 써 버려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났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온 나라 가정에 소장된 금은이 하나도 없으니 사세가 몹시 궁핍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이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고충을 피력하여 천자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이 또 스스로 생각해 보니, 신의 할아버지 강헌왕께서 특별히 고황제의 은총을 받아 이미 왕작을 허락받았고 또 나라의 이름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신의 아버지 공정왕과 신도 잇달아 고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3대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융성한 총애와 빈번한 포상이 내리지 않은 해가 없고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으니, 사서를 상고해 봐도 소방이 오늘날처럼 성은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성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도 잊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있는 금은이 없다고 핑계 대면서 늘 바치는 조공을 폐하고자 폐하를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이 말은 실로 충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황천의 상제와 산천의 귀신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곁에서 주시하고 있는데 신이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신의 번거로운 말을 용서하시고 신의 절박한 심정을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멀리서 우 임금의 좋은 제도를 상고하고 가까이서 고황제의 유훈을 계



승하시어, 천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인을 본받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마음을 미루어 특별히 은혜를 내려 금은의 조공을 면제하는 대신 토산물을 바치게 해 주소서. 그러면 어찌 신과 일국의 신민, 부모만 성화의 가운데서 환호하고 기뻐 춤추겠습니까. 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명령도 구천에서 감읍할 것이고, 신의 자손 대대로 천만세까지 깊은 자애와 후한 은택을 영원히 입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제폐하께서는 조금이라도 살피주소서<sup>25</sup>

정례적 사은표(謝恩表)나 하표(賀表)가 미사여구와 대우, 전고를 활용한 정제된 변려문 형식으로 지어져, 상대를 기쁘게 하고 안정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갈등 상황에서 조선의 입장을 호소하거나 소통과 공감을 유도하여 원하던 외교 목표를 얻어내야 했던 특수한 경우,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표현 전략을 필요로 했다. 제법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글에서는 의례적 인사나 과장된 칭송을 볼 수 없다. 대신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황 설명과 감성적 호소가 두드러진다.

변계량의 서술 전략은 부자 관계의 설정에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늘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급한 사정과 고통을 말하듯 지금 어려운 형편을 말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아뢰는 자식의 마음이라는 설정이다. 그리고는 어려운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 말한다. 우리나라는 토양이 척박하여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 고황제 역시도 성의를 표하는 배만 받아드리고 금은 그릇은 모두 돌려보낸 적이 있고, 이는 우임금이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으로 조공을 바치게 한 의의와 똑같다는 것, 지금까지 그

25 『춘정집』, 제9권, 「請免金銀表」, “竊惟天之於人 父之於子 仁愛之至也 故人之於天 子之於父 苟有窘迫之情 疾痛之苦 則必疾呼而求救者 天下之常理也 欽惟皇帝陛下天覆父臨於四海之內之外 使萬物咸遂其生 匹夫匹婦 皆獲自盡 而臣有無可奈何之事 徒自憂戚鬱悒 而不以上達 則是不以天與父母望陛下也 臣試陳之 伏惟陛下垂察焉 竊念小邦 土地褊薄 不產金銀 天下之所共知也 故太祖高皇帝洪武五年十月 中書省欽奉聖旨 節該 古來藩邦遠國 其所貢獻 不過納贊表誠而已 今後將來的方物 只土產布匹 不過三五對 表意便了 其餘的都休將來 至七年正朝 只受布匹 其餘金銀器皿 並皆發回 玆蓋高皇帝明見萬里 灼知小邦之不產金銀也 實與神禹任土作貢之義 脗合無間 豈非所謂前聖後聖其揆一也者乎 第緣其時元朝客商與販到 些少金銀猶有存者 小邦進獻仍舊 遂至于今 數十年間 用度罄盡 公藏已竭 以至家抽戶斂 舉國陪臣之家 無有蓄金銀器者 事窘勢迫 此臣所以不敢含默 敷陳心腹 仰觸天威者也 臣又自念 臣祖先臣康獻王諱 特荷高皇帝之眷佑 既許王爵 且賜國名 臣父先臣恭定王諱及臣諱連受誥命 凡三世將四十年于茲矣 寵異之隆 賞賚之頻 殆無虛歲 不可殫記 稽諸書史 小邦之昵被聖恩 未有如今日者也 臣之所以欲圖報聖恩於萬一者 未嘗頃刻而忘于懷 又安敢以有爲無 欲廢常貢 以欺天聽也哉 臣之此言 實出至情 皇天上帝 山川鬼神 臨之在上 質之在旁 臣敢誣哉 臣敢誣哉 伏望皇帝陛下恕臣辭煩 憐臣情迫 遠稽神禹之令典 近述高皇帝之大訓 體天地愛人之仁 推父母保子之心 特降俞音 許免金銀之貢 代以土地所產 則豈惟臣與一國臣民父老權欣鼓舞於聖化之中也哉 臣祖若父之靈 亦且感激於冥冥之中 而臣之子子孫孫 永被深仁厚澤於千萬世之無期矣 欽惟皇帝陛下小垂憐焉”



나마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원나라 상인이 장사 목적으로 가지고 온 금은이 남아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조선은 선조 대부터 명의 고명을 받고 성은을 입었는데 감히 평계대면서 속일 수 있겠느냐는 것 등이다.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하늘이나 아버지를 불러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천하의 상리(常理)라는 말 속에는 이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어야 하는 하늘과 자식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하는 아버지의 ‘상정(常情)’이 전제되어 있다. 홍무연간 고향제가 내린 하교의 내용을 직접 인용 형태로 제시하여 증빙 자료로 삼고,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으로 조공을 바치게 한 우임금의 사례를 끌어들이며 “옛날 성인이나 후세의 성인이나 그 제도는 같다.”는 논리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성인[우임금]도 그랬고 그대의 조상[고황제]도 그랬다는 문맥 속에 지금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적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정치하고 간절하다[精切]”는 평가와 함께 금은으로 바치던 공물을 영구히 없애도록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충분하고도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설득력을 확보하고,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진정성과 간절함을 전달하려 한 표현 전략이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춘정 변계량 표전의 의의: ‘화국(華國)’과 ‘해범(楷範)’의 문장

변계량은 「영락십삼년육월일봉사(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에서 “신사대(愼事大)”라는 제목으로 사대(事大)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임금과 신하간의 분수는 마치 높은 하늘과 낮은 땅처럼 문란할 수 없는 것이니 대국을 섬기는 예를 정말 신중히 지키지 않을 수 없고, 대소(大小)의 형세는 마치 뒤섞일 수 없는 흑백과 같은 것이니 대국을 섬기는 예 또한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 인의(仁義)를 가진 사람은 일의 시비를 분별한 뒤에 실행하고, 지모(智謀)를 지닌 인사는 일의 이해를 살펴본 뒤에 도모하는 법입니다. 요동을 공격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하는 것인데 옳은 일이겠습니까. 소국으로 대국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로울 수 있겠습니까.<sup>26</sup>

26 『춘정집』 제6권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 “臣竊謂君臣之分 如天尊地卑之不可紊也 則事大之禮 固不可以不謹矣 大小之勢 如白黑之不可以相混也 則事大之禮 亦不容於不謹矣 … 且仁義之人 辦事之是非而行之 智謀之士 審事之利害而圖之 攻遼之舉 以下逆上 得爲是乎 以小圖大 得爲利乎”



1388년(우왕 14)에 시도되고 1398년(태조 7)에 다시 논의된 요동 정벌을 언급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요공 공격을 ‘군신의 분수’와 ‘대소의 형세’를 어기는 것으로 보았다. 이념적 명분 뿐 아니라 현실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논리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후 문장에서 조선의 요동 정벌에 대해서 명나라가 보였을 태도를 상상으로 풀어내고 있어 흥미롭다. 즉 변계량은 아마도 명나라에서 조선의 요동 정벌 소식을 듣고 즉각 정벌하자는 측과 정벌하지 말자는 측으로 갈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조그만 나라가 사신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병력의 기세가 대단한 이 기회에 취하자는 주장이 있었을 것이고, 제왕이 변방을 대할 때의 예(禮)를 거론하며 내버려두자는 주장이 또 하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후자의 논리 속에 그는 “그들(조선)이 작지만 예의를 아는 나라”이고 “전투에 능하여 수양제와 당태종이 친히 정벌에 나섰으나 안시성에서 곤욕을 치르고 살수에서 패배를 당하여 천하 만세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사실”도 언급할 것이라고 하였다.<sup>27</sup> 이는 명분과 형세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외교 관계의 특성상 부득이 사대를 택할 수 밖에 없지만 변계량의 의식 속에 조선은 예의를 알고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라는 자부심 또한 강하게 있었음을 시사한다.

명분과 형세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표전 제작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중화주의적 세계질서와 명분·의리·예 등의 유교적 이념, 전통적 한문문체인 표전의 양식적 조건 뿐 아니라 명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반포한 표전식(表箋式)까지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념과 규범의 수용은 조선이라는 신생 국가가 명이라는 대국과의 관계에서 외교 갈등을 막고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었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 조선의 입장을 호소하고 소통과 공감을 유도하여 원하던 외교 목표를 얻어내야 했던 특수한 경우, 서술전략을 바꾸어 보다 설득력을 강화하고 진정성과 간절함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변려문과 산문을 적절히 운용해 가며 이루어낸 그의 표전 작품을 아유와 굴종의 사대문서로 치부해 버릴 수

27 『춘정집』, 앞의 글 “臣又思之 夫有事於我國 帝必無是心也 若勸之征者 則必有之矣 然勸之勿征者 亦必有之矣 勸之征者則必曰 蕞爾小國 介在山河 其俗輕矯 嘗殺朝廷之命吏矣 嘗欲舉兵而攻遼矣 今不取 必爲中國憂 幸今四海乂安 天兵所指 望風奔潰 遣一良將 帶甲百萬以討之 且以水陸挾攻 則囊中之物 進退無所據矣 勸之勿征者則必曰 帝王之待夷狄 來則撫之 去則勿追 羈縻不絕而已 雖或有罪 置之度外可也 其國雖小 其地甚阻 其俗知禮義 且長於戰鬥 隋煬帝唐太宗 皆親舉玉趾 率百萬之衆而攻之 困於安市 敗於薩水 爲天下萬世之笑矣 雖舉兵而攻遼 尋卽回軍 雖殺命吏 非其國主之心也 朝聘往來 無敢或愆 因撫而有 順且無事 爲此言者 其知安中國待夷狄之道乎 帝惟無心於我國 故勿征之說 得以行焉 混一以來 垂四十年 彼此晏然”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계량의 표전 문장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중국 문사들로부터 명문장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는 변계량이 활약하던 태종-세종 연간이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기로 접어들고 국내 정세 또한 창업기에서 수성기로 옮겨가는 추세와 관련하여 따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 외교적 긴장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표전 등의 외교 문서가 양국 간 소통을 매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문화권의 동문(同文)<sup>28</sup> 의식을 공유하고 문화적 역량을 드날리는 화국문장(華國文章)으로 기능하는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명 황제가 조선의 표문을 보고 두 번 세 번 감탄하면서, “문사(文詞)가 순리하고 글 지은 솜씨도 매우 훌륭하니, 조선(朝鮮)에 문인(文人)이 있도다. 근일 교지국(交趾國)에서 올린 표문이 매우 좋았는데, 이번에 온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은 더욱 좋다”고 하였다는 일화<sup>29</sup>는 표전이야말로 같은 이념과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같은 글자[한자]로 짓는 동문(同文) 의식의 산물로서, 인근 변방들과의 비교선상에서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안지(安止)는 『춘정집』 발(跋)에서 중국 문사들로부터 탄복을 자아낸 변계량의 사대 표전(事大表箋)을 두고 “후인들의 해범이 될 만한 화국문장[華國之文章 宜爲後人之楷範]”<sup>30</sup>이라고 일컬은 바 있다. 실제로 변계량의 표전 작품은 거의 전부가 실록에 수록되어 ‘해범(楷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국가 문서가 실록에 수록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문서의 전범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선초의 특수한 조건과 변계량의 문장이 지닌 비중이 맞물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계량의 표전에서 보이는 서술방식과 전고, 표현 전략 등은 이후 표전으로 계승되고 있다. 대명 관계가 안정화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표전은 다분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글로 변모해 가지만 이후 표전 제작에 있어서도 변계량이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sup>31</sup> 표전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위태로웠던 시

<sup>28</sup> 『중용』에 “지금 천하를 보건대, 수레는 바퀴를 같이하고 글은 문자를 같이하고 행동은 윤리를 같이 한다.[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라는 말이 있다. 흔히 중화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이 제도와 문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조선 후기 외교 자료집 『동문회고(同文彙考)』도 바로 『중용』의 ‘동문(同文)’ 개념에서 제목을 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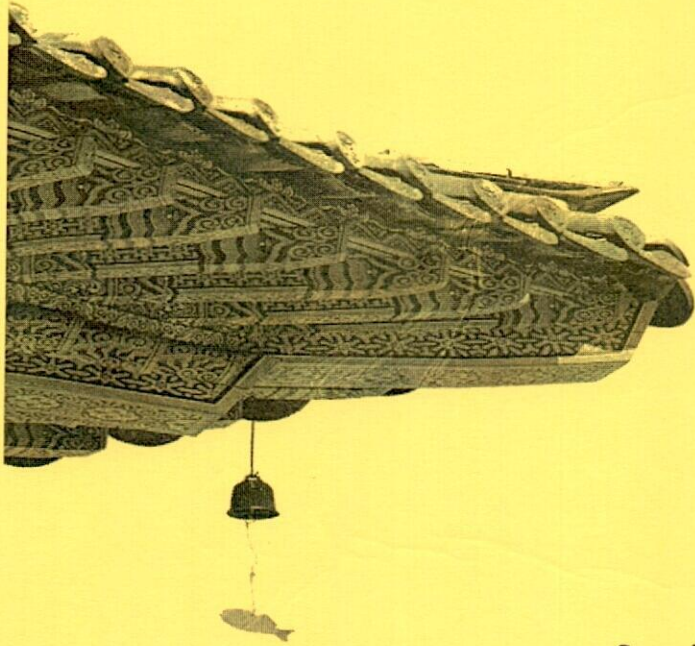
<sup>29</sup> 『세조실록』, 세조 5년 11월 기묘, “等詣禮部 郎中孫茂語之曰 … 皇帝取汝國所進表文詳覽 再三歎曰 詞意順 作文甚好 朝鮮有文人矣 近日交趾國上表甚好 今來表箋尤好 說與宰相知道”

<sup>30</sup> 『춘정집』, 안지, 「舊跋」, “況邇來事大表箋 皆出其手 尤爲精切 中朝文人 亦見而歎之 可謂華國之文章 宜爲後人之楷範 ”



기, 명분과 실리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표전이라는 양식적 틀 안에서 문학적 기교와 수사적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면서 保國과 華國의 문장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외교문서의 전범을 만들어 후대에 전한 변계량의 업적은 그런 면에서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1 『광해군일기』 광해6년 6월 19일 기사에는 사헌부에서 금은 공물과 관련한 건의를 하면서 변계량의 표문을 예로 들어 논리적 근거를 피력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변계량의 표전이 이후 문인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발표자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후 표전 또한 변계량의 표전을 위시하여 선초에 마련된 양식을 다소 변용하는 형태로 지어지게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연려실기술』의 기록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침예부에서 매년 일정한 양식을 반포하였는데 조선만이 매년 문사를 바꾸기 때문에 자구 사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후로는 내각이 편찬한 표전성식(表箋成式)에 의거하여 번거로운 글을 생략하도록 하라”는 자문을 보내왔다는 내용이다. 후대에도 여전히 조선은 ‘늘’ ‘하라는 대로’ ‘똑같이’ 표전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계량이 그러하였듯 국가적 자존심과 문장력에 대한 자부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춘정 변계량의 시대와 문학



김 남 이 / 부산대학교





# 춘정 변계량의 시대와 문학

김남이(부산대 한문학과)

1. 들어가는 말
2. 고려 말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
  - 1) 경세(經世)의 의지와 중흥(重興)의 기대
  - 2) 혹한(酷寒)과 살기(殺氣)의 동토(東土)
3. 수도[京]의 정경에 대한 시적 형상화와 인식
4. 맺는 말을 대신하여

## 1. 들어가는 말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 1369;공민왕18~1430;세종12)은 ‘화국(華國)의 대수필(大手筆)’이라고 일컬어진다. 그의 문학과 학술의 역량은 나라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내는 지중한 역할을 했다는 뜻일 터이다. 특히 조선에 들어 작성한 사대외교의 문서를 비롯한 여러 문장들, 왕정을 빛내는 시, 악장(樂章)들은 그 훌륭한 예증이다. 이 발표에서는 특히 춘정이 쓴 한시(漢詩)들에 주목한다. 춘정의 한시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29세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출사 이전의 작품들이 참신한 의경과 단련된 시어와 정신의 긴장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파생된(공명의식 같은 것들)과 갈등하며 ‘맑음과 무욕의 인생 이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이 머물러 있던 절친한 벗의 출사’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에 들어선 ‘고려인’들의 출사의 과정은 춘정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순조로운 행로만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며 조선적인 전제왕권이 실현되



어 가는 상황에서 사대부들의 경세 포부는 때로 현실 정치의 장에서 충돌하거나 실현될 수 없었다. 춘정 또한 관리로서의 느긋한 심정, 현실의 장에서 자신의 포부와 지조가 충돌하면서 고뇌하거나 때로 심각한 성찰보다는 정신적 긴장 또한 이완을 추구하기도 했다.<sup>1</sup> 특히 왕과 관리들과 관련된 관각문자들이 『춘정집』 권3~4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데, 관료로서의 생활 속에서 ‘왕정에 대한 찬양’ 동료 ‘관료들에 대한 칭찬과 애정’이 담긴 시도 지어다. “여말 시인들의 시에 충만한, 세계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이러한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은 (조선조 들어 출사한 얼마 뒤) 춘정의 시에서 이제 소진된 것이다.”<sup>2</sup>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다 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춘정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려의 망국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격변을 오롯하게 격어낸 시대의 지성들이 걸어가는 역사적 행로, 역사적 맥락이 그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춘정의 한시가 이룬 관각 문학의 성과에 보다 주목할 필요도 있다. 특히 춘정이 작성한 각종 국가 공식의 비문, 악장, 외교문서, 공공 건축물에 부친 서발과 기문 등은 ‘엄격한 격식과 전아한 문체를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순수 미학적 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sup>3</sup> 즉 ‘화국(華國)의 대수필(大手筆)’이었던 것이다. 「근정전(勤政殿)」과 같은 시는 신도(新都) 한양, 그 장려한 궁궐과 궁궐의 행사를 묘사하면서 새 정권 또는 왕정을 상징하는 한편, 그 중간에 군주에 대한 ‘경계’를 삽입함으로써 무게를 시에 부여했다. 여기에서는 漢代의 賦의 다양한 전고들을 點化하는 방식을 취했다. 물론 아주 생동하는 비유와 참신한 시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각문학의 문학적 전통은 바로 이러한 문학적 전통의 요소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잘 배치하는가를 중시하였다.<sup>4</sup> 건국의 창업과 수정에 이어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문학을 창작하는 것이 이 시기 관각문학의 시대적 임무이자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춘정의 작품은 그와 같은 관각문학의 역량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구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조정에 있는 관료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었던 궁정 행사에 대한 묘사 같은 것도 관각 문학의 특징이다. 관각풍의 시는 “뚜렷하게 인정된 전고를 사용하며” “다양한 수사적 장치를 개발해야 하고” “잘 짜여진 時空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고, 변계량에게는 이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sup>5</sup> 그

1 유희진(2003), 56~57쪽.

2 유희진(2003), 53쪽.

3 김성언(2009), 253쪽.

4 김성언(2009), 257쪽.

럼에도 춘정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관각 문인과 관각 문학이 그 시대적 의미와 역량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평가받았던 것은 왜일까. 우선 그것은 조선 500년의 역사를, 전적으로 성리학과 사림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평가했던 문제 때문이다.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이전의 사대부들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엄혹/엄정했던 것, 그리고 이와 같은 16세기 이후 사림들의 시각을 근/현대의 연구자들이 그대로 채용해왔던 일종의 평가 관습이 있었던 것이 그런 작용을 했던 것이다. 다만, 최근의 연구는 그와 같은 시각의 편향성을 조정하고, 각 시대마다의 역사적 맥락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인다. 춘정의 사상과 학문 문학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에 대한 평가 또한 그에 힘입어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 대략 거칠게나마 살펴본 춘정의 문학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춘정의 문학은, 예를 들면 29세가 되었던 1396년(태조2)을 기점으로 삼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둘째, 조선전기의 문인/학자/관료로서 춘정이 이룬 문학적 성취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치밀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관각문학으로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공차간의 생애의 중요한 국면과 그때 쓰여진 작품들을 연계하여 춘정의 내적 행로와 가치관,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몇 개의 야사(野史) 잡록(雜錄)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내내 재생산되었던 춘정에 대한 치우친 평가를 넘어서, 조선 전기의 지식인으로서 그의 상(像)을 온전히 재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연대가 확인되는 한시를 중심에 놓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면들을 맞이하여 쓴 작품들을 살피면서 춘정의 내면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발표에서 다루는 자료는 『춘정집』에 실린 한시들이다. 한시는 『춘정집』 권1~4에 410제가 실려 있는데<sup>6</sup> 대체로 출사하기 이전의 한시는 『춘정집』 권1~2에, 출사한 이후의 작품은 권3~4에 실려 있다<sup>7</sup>고 말해지기도 한다. 이런 기왕의 지적을 참조하면서 『춘정집』을 검토하여 연대가 확인된 작품들만을 가지고 권별로 창작 시기의 상하한선을 추정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권1: 고려후기(1385년,우왕11) 춘정 17세 이후 ~ 1426년(세종8) 춘정 58세

권2: 고려후기(1385년,우왕11) 춘정 17세 이후 ~ 1405년(태종5) 춘정 37세

5 김성언(2009), 262쪽.

6 『춘정집』 속집에는 「謹次朴松隱 天翊 畫象韻」와 「次朴忍堂 昭 居官自警韻」이 실려 있다

7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유호진(2003)도 지적한 바 있다.



권3: 조선초기(1392년,태조1) 춘정 24세 이후 ~ 1422년(세종4) 춘정 54세

권4: 조선초기(1398년,태조7) 춘정 30세 이후 ~ 1426년(세종8) 춘정 58세

물론 이는 대체적인 경향과 창작 시기를 추정 가능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편집 편차의 격레에 따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일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권1~2는 1385년(우왕11) 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쓴 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권3~4는 젊은 시절부터 58세 때까지의 시를 고루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그 중 권2는 춘정의 20~30대 중반까지의 젊은 날의 시작(詩作)이 집중적으로 실린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와 같은 편차의 문제, 작품 배열의 질서의 문제는 추후에 더 명확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미루어 둔다.

## 2. 고려 말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

### 1) 경세(經世)의 의지와 중흥(重興)의 짧은 기대

다음에 인용하는 두 편의 시는 권1 서두의 辭를 제외하고 가장 앞에 있는 것인데, 매헌(梅軒) 권우(權遇;1363~1419)와 용헌(容軒) 이원(李原;1368~1429)에게 준 작품이다. 매헌과 용헌, 그리고 춘정은 1385년(우왕1) 같은 해에 정몽주(鄭夢周)가 지공거를 맡은 문과에서 함께 급제했다. 이렇게 문과에 급제하고 본격적인 환로에 들기 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포부와 생각을 동년인 매헌과 용헌에게 써서 보낸 것이다.

먼저 가장 먼저 실려 있는 매헌에게 준 시부터 살펴보자. 인용하지는 않으나, 시의 전반부는 안동 권씨 가문이 뛰어난 내력을 가지고 ‘태산북두와 같은 권양촌’을 낳았으며, 이어 ‘영웅들의 우두머리인 권우’를 배출했다고 칭송했다. 아울러, 포은 정몽주의 문하생으로 일시에 급제한 자부심 또한 드러냈다. 이어 춘정은 당시를 ‘국보(國步)가 평탄해진’ 시기로 표현했다. 근신하는 군주가 위에서 어진 신하를 구하고 있으니, 은거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은거하는 사람은 종당에 아무런 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춘정은 매헌에게, 이런 태평한 시대에 함께 좋은 지위에 올라,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하는 ‘장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동년의 벗인 매헌과 다짐했던 것이다.

「권 중려{우}에게[贈權中慮{遇}], 『춘정집』 권18  
(……)

|                        |           |
|------------------------|-----------|
| 다행히 지금 나라의 운수가 맑고 평탄하여 | 幸今國步政清夷   |
| 성상께선 근신하면서도 오히려 염려하여   | 聖上翼翼猶慮危   |
| 밤낮으로 노고하며 안일하지 않으시고    | 宵衣旰食不自逸   |
| 어진 신하 나라 터전 닦으려 하신다네   | 思得碩輔圖邦基   |
| 하늘이 천하 위해 장부를 냈는데      | 天生丈夫爲天下   |
| 고반이나 하제는 결국에 뭐를 했나     | 考槃荷蕢終何爲   |
| 시대가 맑을 때에는 요직에 서야 하니   | 時清要須立要津   |
| 후일에 손을 잡고 궁궐 계단 오르세나   | 他日共當携手升玉墀 |

아래의 시는 앞의 매현에 이어, 용현에게 준 것이다. 전반부는 앞서 매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암(李崐)에서 이어지는 철성(鐵城;固城) 이씨 가문의 쟁쟁한 문학과 학술의 내력을 썼다. 그리고 이어 펼쳐지는 춘정의 정경(情景)은 2월 한창 흐드러지는 봄빛에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화사한 계절의 흐름을 언급하는데, 서둘러 흘러가는 무상한 세월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날을 한껏 누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탕(遊蕩)한 데로 흘러가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고원(高遠)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군주를 돕는 간성과 같은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으로 이어졌다.

「양곡의 시운에 따라[次陽谷韻]」, 『춘정집』 권1

(……)

|                       |         |
|-----------------------|---------|
| 이월이라 봄빛이 바야흐로 절편하니    | 春光二月政浩蕩 |
| 계곡 꽃 들판 풀이 앞다투어 번영하네  | 幽花野草爭敷榮 |
| 좋은 계절 덧없이 안 머물고 가 버리니 | 冉冉良辰逝不留 |
| 방준에 술 있을 때 술잔을 기울이세   | 芳罇有酒須同傾 |
| 다시금 노력해서 고원에 도달하여     | 更須努力致高遠 |
| 명철한 군왕 도와 간성이 되어야지    | 左右明主爲干城 |

처음에 춘정이 매현에게 시를 주면서 ‘지금의 국보(國步)가 청이(淸夷)해졌다’한 시대에 대한 인식은, 그가 동년들과 함께 현명한 군주의 어진 신하가 되어야하겠다는, 출사와 경륜의 포부를 갖게 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듯하다. 다만, 이런 시대인식이 조선의 건국 이후의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세 사람은 1385년 급제한 이후

8 이하 이 발표문에서 인용하는 춘정의 한시는 모두 『국역 춘정집』 12, 송수경(1998)/김홍영·조동영 번역(2001),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전재하였다. 발표자가 약간의 수정을 가한 부분도 있다.



신진 문사가 받는 낮은 직질의 관직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사를 시작했다. 우왕-창왕-공양왕으로 숨가쁘게 이어지는 폐위와 옹립의 과정 속에서 그나마 공양왕의 즉위는 이들에게 ‘동방에 다시 윤이 트이는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1389년에 11월 15일, 공양왕의 즉위날에 쓴 시를 살피기로 한다. 『고려사』에도 공양왕의 즉위가 이해 11월로 기록되어 있으니, 틀림없는 사실을 가지고 쓴 시이다.

「기사년 11월 15일 밤, 무송 윤공의 형제가 찾아와 유숙하다.[己巳十一月十五日夜 茂松尹公兄弟來宿], 『춘정집』 권2

|                        |         |
|------------------------|---------|
| 아이 불러 자리 펴고 등불까지 걸어 놓고 | 呼兒展席復張燈 |
| 선생과 마주 앉아 명하신 바 받들었네   | 坐待先生命是承 |
| 밤 들어 단란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 入夜團樂多少語 |
| 기쁘게도 동국의 중흥을 만난 거지     | 喜逢東國見中興 |

{이 날 임금의 즉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是日 上即位故云]}

시의 정경은 어둔 밤, 단란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 펼쳐지고 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시의 결구(結句)와 주석을 통해 드러난다. 공양왕이 즉위함으로써, 동국의 중흥을 맞이했다는 기쁨과 기대가 그것이다. 중흥은 재창(再昌)의 비전으로도 표출되었다.

공양왕이 즉위한 뒤의 역사적 국면을 형상화한 시는 조금 더 있다. 앞의 「기사년 11월 15일 밤에…」와 함께 『춘정집』 권2에 배치되어 있는 두 편의 작품이다. 이 시는 『고려사』의 「공양왕」 조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데, 1389년 11월 15일, “대소 종척(宗戚)·신료·한량(閑良)·기로(耆老)들이 ‘공민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뒤 권신 이인임(李仁任)이 세운 신우(辛禡) 부자는 사실 다른 성씨여서 왕씨(王氏)의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다.’하고, 왕실의 정맥(正脈)인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 왕요(王瑤)를 왕으로 세웠다.” 11월 16일에는 정전에서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고, 11월 26일에는 명나라 조정에 이를 알리는 주문(奏文)을 조반(趙胖)등을 명에 보내어 올렸는데 이날이 마침 동지(冬至)라 망궐례를 행했다.<sup>9</sup> 춘정은, 공양왕이 즉위한 뒤 있었던 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한시로 남겼다. 세 개의 시가 모두 권2에 실려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기사년 11월 15일 밤에…」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 편차 상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작품의 배치에서 연월일에서 순차가 일관되거나 정연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우선 위의 역사 기록에 근거하여 세 작품을 일련의 것으로

9 『고려사』 「世家」 권 제45 ‘공양왕(恭讓王)’ 원년 11월.

보아도 좋을 듯하다.

|                                                    |         |
|----------------------------------------------------|---------|
| 「주상이 즉위한 다음날 아침, 조정의 하례를 받다.[上即位明朝 受朝賀]」, 『춘정집』 권2 |         |
| 천명과 인심이 주상에게 돌아가니                                  | 天命人歸在嗣王 |
| 분연히 일어나 남쪽 보고 앉으셨네                                 | 勃興垂拱正當陽 |
| 강후가 난리 평정 새 업을 열어 놓으니                              | 絳侯撥亂開新業 |
| 한 나라가 그 때부터 다시금 번창했지                               | 漢室從茲獲再昌 |
| 문무관은 뜨락의 좌우에 도열하고                                  | 文武分行庭左右 |
| 면류관 차림으로 중앙에 임하셨네                                  | 冕旒臨下殿中央 |
| 종사가 안정된 건 누구의 힘이겠나                                 | 永安宗社伊誰力 |
|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를 못하리라                                  | 應使斯民竟不忘 |

천명과 인심의 귀부는, 『고려사』의 즉위 주문에도 나와 있듯 ‘왕씨의 정맥을 이은 정창군의 즉위’라는 명분에서 나온다. 강후(絳侯)는, 한(漢) 나라 주발(周勃)이다. 유방(劉邦)을 따라 의병을 일으키고 그 공로로 강후에 봉해졌다. 그 뒤 여후(呂后) 때에 여씨(呂氏)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여후가 죽자 주발이 진평(陳平) 등과 같이 여씨들을 죽이고 문제(文帝)를 왕으로 추대하였다.<sup>10</sup> 강후의 비유는 공양왕을 추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원을 했던 이성계를 의도한 것으로 읽힌다. 다음의 시는 역시 공양왕이 즉위하고 약 열흘쯤 뒤인 11월 26일 동지일의 정경이다.

|                               |         |
|-------------------------------|---------|
| 「동짓날 이른 아침에[冬至日早朝]」, 『춘정집』 권2 |         |
| 길거리에 장식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 金碧輝輝映道周 |
| 구중궁궐 자격루는 시간을 재촉하네            | 九門寒漏促更籌 |
| 계인이 새벽 알려 대궐문이 열리자            | 鷄人報曉開天闕 |
| 뜨락의 신하들이 임금님께 절하엿네            | 鸞鷺盈庭拜冕旒 |
| 구름은 용상 위에 오색으로 분리되고           | 雲近御牀分五色 |
| 천천세를 외치며 장수를 축원했지             | 山呼聖壽獻千秋 |
| 아름다운 계절에다 양기가 태동하니            | 佳辰況是陽初動 |
| 춤추며 태평가로 스스로 즐기었지             | 蹈舞歌時敢自休 |

아름다운 계절과 상서로운 기운으로, 모처럼 충만한 정경이 그려졌다. 비록 32개월의 재위 기간에 그칠뿐더러, 곧 망하게 될 운명의 고려의 마지막 왕이 즉위하는 것이었고, 동상이몽의 거사이기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려의 ‘중흥’과 ‘재창’을 외치

<sup>10</sup> 『漢書』 卷40 「周勃傳」



며, 상서로운 기운을 담은 시를 쓰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이라는 일견 우리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였던 역사적 전환이, 실은 고려 500년 왕조를 지탱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저항 속에서 무겁게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새삼 환기하게 된다. 긴박했던 고려 말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춘정이 토로하는 것처럼, 당시의 지식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중흥(重興)’의 희망을 가졌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명한 임금을 도와 간성과 같은 신하가 되어보자는 신진 문사와 그 벗들의 다짐으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 2) 혹한(酷寒)과 살기(殺氣)의 동토(東土)

그러나 고려 말의 역사에 대한 춘정의 인식은, 그 급박했던 역사만큼이나 급박하게 변화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맞을 듯도 하다. 다음은 『춘정집』 권2에 비교적 인접하여 실려 있는 작품들이다. 「소감이 있어[有感]」는 특별한 수식이나 기교가 없다. 직설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시대에 대한 현실을 직설하고, 그 사이 ‘책’과 ‘관복’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처지를 서술함으로써 위중한 나라의 현실과 문사로서의 괴로움을 교차 배치해 놓았다.

「소감이 있어[有感]」, 『춘정집』 권2

국사가 근년 들어 급해지고 있으니

國事年來急

유도가 점차로 현실과 멀어지네

吾儒道漸迂

서책을 펼쳤다가 다시금 덮어 놓고

開書還自廢

술잔을 들고서 장탄식을 하였다네

舉酒却長吁

살기가 동방에 불어오고 있는지라

殺氣吹東土

떠도는 유언비어 백성이 동요하네

浮言動萬夫

나는야 대의를 잊을 수 없는지라

未能忘大義

관복 입고 날마다 구구하게 나간다네

袍笏日區區

춘정은 위의 시에서 ‘위급해 지는 국사’를 말하고 있다. 그 위급함은 ‘유도(儒道)와 멀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공부를 하려다가도 이내 책을 덮고 술잔을 잡는다는 서술은, 그런 현실 속에서 책을 붙잡고 시대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낸다. 그 다음의 서술은 더욱 엄중하다. ‘살기(殺氣)가 동토에 불어오고 있다[殺氣吹東土]’는 것이다. 유언비어가 무수한 사람들을 뒤흔드는 상황을 이어서 썼다. 그런

중에 자신은 ‘도포에 홀을 들고 구구하게 관직에 나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쓰여 있다. ‘대의(大義)’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활해지는 유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말하면서, 춘정 자신은, 유가의 대의의 정신을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큰 벌레의 비유로 고려 말의 현실을 비유한 시이다. 비유를 쓰고 있지만, 「소감이 있어[有感]」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명징한 비유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쓰고 있다. 조선에 출사하면서, 태종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작된 관각문학의 풍격과는 상당히 다른 시풍이다. 젊은 문사의 강개한 정신이 강건한 시풍으로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큰 벌레[巨蠹]」, 『춘정집』 권2

|                         |         |
|-------------------------|---------|
| 큰 벌레야 큰 벌레야 어디에서 왔기에    | 巨蠹巨蠹從何來 |
| 동방에 찾아와서 재앙이 되었는데       | 來此東國爲國災 |
| 송백과 가래나무 옷나무 남김없이 먹고 나니 | 食盡松柏與梓漆 |
| 산야가 텅 비어 쭉대만 남았구나       | 山空野闊惟蒿萊 |
| 아아 큰 벌레가 쉬지 않고 파먹으니     | 嗟爾巨蠹食不厭 |
| 백성들이 쩡그리며 탄식만 하였다네      | 萬姓疾首徒哀哀 |
| 어찌하면 장사 얻어 단번에 제거하여     | 安得壯士一去之 |
| 다시금 국중에 좋은 재목 기른다지      | 再使國中多良材 |

춘정은 큰 벌레가 동국에 와 온 산야의 재목(材木)들을 침식(侵蝕)하는 비유를 수련-합련에 썼다. 산야가 텅비어 쭉대만 남았다는 것은 동량(棟樑)-인재는 모두 좀먹힌 상황을 비유한다. 그렇게 온 산야에 동량이 사라진 시국의 문제는, ‘백성들이 근심하는 현실’의 문제로 이어졌다. 군주의 근심보다 백성의 고통을 언급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여기서 춘정은 이 큰 벌레를 단번에 제거할 만한 씩씩한 인물[壯士]를 꿈꾼다. 자신이 그런 장사가 되겠다는 선언보다는, 누군가 이런 상황을 해소해 줄 상황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대목이다. 그러나 이것은 ‘큰 벌레’라는 다소는 ‘불가항력의 존재’에 대한 얼마간의 두려움과 무기력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춘정 개인의 삶은 어떠했을까? 엄혹한 추위와 함께, 그 추위 속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던 춘정의 모습, 심경이 드러나 있는 시를 아래에 인용한다. 신미년은 1391년(공양왕3)이다.



「신미년 혹한[辛未年苦寒]」, 『춘정집』 권2

|                      |       |
|----------------------|-------|
| 눈 쌓이자 강물이 모두 다 얼어붙고  | 積雪千江凍 |
| 강풍 일자 만물이 제각기 소리내네   | 嚴風萬竅號 |
| 새들은 굶주려서 사경을 헤매고     | 鳥鳶飢欲死 |
| 우마는 추워서 웅크리고 있구나     | 牛馬縮寒毛 |
| 해변에서 여러 해 동안 수자리 섰는데 | 滄海經年戌 |
| 석양 거친 산에서 뿔나무도 하였다네  | 荒山落日樵 |
| 어머님 편안히 계신지 궁금해라     | 慈堂安穩未 |
| 뒤돌아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네   | 回首意切切 |

앞서 공양왕이 즉위하던 날 춘정이 쓴 시를 살핀 바 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밤의 단란한 담소를 서술하고 ‘동토의 중흥에 대한 기대’를 담박하게 그러나 명징하게 표현했었다. 그 이후 춘정의 관직 생활은 ‘해변에서 여러 해 동안 수자리 섰는데[滄海經年戌]’라는 시구에서 드러나듯, 추위가 더욱 엄혹하게 느껴지는 외방의 그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3. 수도[京]의 정경에 대한 시적 형상화와 인식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변화의 격변기를 살아간 문인이자 지식인으로서 춘정이 형상화한 시적 대상 중 비록 다수는 아니라 해도 의미 있는 시적 소재는 바로 망한 나라 고려와 새로 일어선 나라 조선의 ‘수도’일 것이다. 관련 작품이 매우 많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격변기에서 온 생애를 보낸 춘정의 심회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들은 젊을 때의 강개한 시풍의 작품들과 또다른 풍격을 드러낸다.

우선, 고려시대의 인재양성 기관이었던 연영전을 읊은 시이다. 연영전은 고려 초기의 기구로, 문신 중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게 하는 홍문관·수문관과 같은 관서 중의 하나였다. 1136년(인종 14) 집현전으로 고쳐졌고, 그 뒤 집현관(集賢館)·진현관(進賢館)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제관전으로는 연영전 이외에 홍문관·수문관(修文館 : 右文殿) 등이 있었다. 지은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재를 양성하고 올곧게 양성했던 고려에 대한 회상을 ‘연영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투영했다.

「연영전[延英殿]」, 『춘정집』 권2

영재 맞기 위해서 누각을 지었는데  
하늘을 쳐다 보니 창공에 의지했네  
사방 문 활짝 열어 준걸을 초빙하니  
삼대를 만회하여 태평을 이루었지  
섬들의 곧은 대는 거울에도 푸르렀고  
담장의 해바라긴 해 향해 기울었네  
경박이나 방종은 비루하게 여겼는데  
도화 버들 처마가에 오도록 놔 두겠나

起樓元自爲延英  
俯仰乾坤倚紫清  
大關四門招俊乂  
挽回三代致昇平  
貞心階竹經冬翠  
衛足牆葵向日傾  
輕薄顛狂曾所鄙  
肯教桃柳近簷楹

수련은 ‘영재를 맞이한다’는 건물의 이름을 그대로 풀이했다. 창공까지 솟은 우뚝한 위용을 묘사하고, 이어 인재를 초빙하여 ‘삼대의 태평치세를 이룩했다’고 했다. 곧은 대와 향일(向日)의 해바라기는 인재들의 지조와 충심을 비유한다. 미련은 경박하고 방종함을 비루하게 여기는 기풍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처럼 춘정은 ‘연영전’을 통해 인재를 우대하고 바르게 키웠던 고려의 역사를 회고했다. 물론, 춘정 자신도 그렇게 성장한 ‘고려의 인재’였다.

다음의 시 또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도(新都)’라는 언급과 함께 개성-임진의 여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수도가 된(될) 한양으로 가는 여정에 쓴 것으로 보인다.

「신도(新都)에 가기 위해 새벽에 구하역에서 출발하여 임진 도중에서[將赴新都 曉發邱河驛 臨津途中]」, 『춘정집』 권2

쉴새해라 결국에 누구에게 의탁하나  
거침없이 동서로 왔다 갔다 떠돌았네  
구름과 산악이 진실로 사랑할 만하나  
속세에서는 서로 용납하지 않으니  
구하역은 아득히 모습이 사라지고  
화악 봉우리 망망하구나  
가다 말고 자꾸만 되돌아 보이니  
말 위의 내 마음 천 근으로 무겁네

落落竟誰托  
飄飄西復東  
雲山眞可愛  
塵世不相容  
縹緲邱河驛  
蒼茫華岳峯  
行行却回首  
馬上意千重

아마도 멀리 강 건너 한양을 바라보며 쓴 듯하다. ‘누구에게 의탁해야 할까’를 물으며 동서로 떠도는 존재는 춘정 자신에 대한 비유일터이다. 제목의 ‘신도’는, 그런 말을 하는 춘정의 상황을 암시한다. 새로운 수도에서, 자신은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다. 돌아보니 떠난 구하역은 아득해지고, 눈 앞의 화악(삼



각산)은 망망하기만 할 뿐이다. 자꾸 돌아보는 마음은, 떠나온 고려를 향한 것이고, 그 마음은 무겁다.

다음의 시는 한양에 있다가 다시 개성으로 가면서 쓴 시이다.

「옛날의 도성에 들어가[入舊京], 『춘정집』 권3

|                      |         |
|----------------------|---------|
| 수구문 앞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 | 水口門前斜日時 |
| 춘풍 속에 혼자서 옛 도성 향해 가네 | 春風獨向舊京歸 |
| 대지에 가옥들이 뻥뻥이 깔렸으나    | 縱然撲地間閭在 |
| 길거리에 오가는 거마는 드물구나    | 終是長途車馬稀 |
| 몇 군데 살구나무 붉은 꽃 졌는데   | 幾處杏花紅寂寂 |
| 성 안의 버들은 예전처럼 푸르네.   | 滿城烟柳綠依依 |
| 가련하이 오백 년 그동안 일들이    | 可憐五百年間事 |
| 부질없이 행인의 시 한 수에 부치었네 | 空屬征人一首詩 |

수구문은 조선 사소문 중의 하나로 동남쪽 문 광희문을 가리킨다. ‘혼자서’ 간다[獨向]하여 ‘독’ 한 글자로 자기의 심경과 처지를 드러냈다. 개성이 오백년 왕조의 수도였음을 증명하는 뻥뻥한 가옥들은, 인적 드문 거리에 대한 묘사와 합쳐지면서 더할 수 없이 을씨년스럽게 그려졌다. 청홍와 꽃과 버들에 대한 서술에 이어, 결국 오백년 역사가 이제 한 사람 나그네의 시에서나 읊어지고 있음을 대비했다.

한양에 들어온 이래 춘정의 행적을 자세히 다 재구하지는 못했지만, 산재한 시들을 따라 거칠게나마 추적해 보면 남산에 오르기도 하고, 한강 제천정에 가서 묵은 이색의 시에 차운하면서 그의 뛰어난 문학적 경지를 회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남산에 올라가 지은 시이다.

「남산에 올라[登南山], 『춘정집』 권2

|                       |         |
|-----------------------|---------|
| 도심 거리 말발굽에 티끌이 충천하니   | 輪蹄九陌漲紅塵 |
| 눈앞에는 명리에 급급한 사람일레     | 滿目紛紛名利人 |
| 떠도는 백 년 신세 모두 다 꿈 같아라 | 浮世百年渾似夢 |
| 올라가 바라보면 그 때마다 속상하네   | 一回登眺一傷神 |

九陌으로 표현된 도성의 거리는 말발굽 먼지 가득한 곳이고, 그 안의 사람들은 명리(名利)를 추구하며 분분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남산에서 한양을 내려다 보는 춘정의 심정은 그러했던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한

다'며, 부정적인 심사를 토로했다.

그런 한편, 춘정은 자기의 책무를 시대에 다한다는 의식을 가졌다. 태종대부터는 더욱 열정적으로 직무에 임했고, 그런 만큼 문한(文翰)의 분야에서 거둔 성취가 컸다. 그에 대해서는 역사와 정치, 철학 등의 분야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 춘정은 한시를 통해서도 자신이 참여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에 대한 비전을 의미화하는 일을 거듭했던 듯하다. 아래는 경복궁 「근정전」을 읊은 시이다. 근정전은 신도 한양의 궁궐로 1395년 개창된 경복궁의 중심 건물이자 조선 왕실의 상징이다. 춘정은 근정전을 소재로 하여 '근정(勤政)'의 의미,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과 그 집약으로서의 '경(敬)'의 가치를 제시했다. 좀 길지만 전문을 인용한다.

「근정전. 2수[勤政殿]」, 『춘정집』 권4

오로지 하늘만 주야로 운행하니  
지극히 강건하여 스스로 쉬지 않지  
오로지 성인만 이것을 본받아서  
근면에 주력하여 밥 먹을 겨를 없지  
상제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지만  
백성의 의도도 헤아리기 어렵다네  
서민들이 생업을 잃었을까 염려되고  
관료들은 혹시라도 직무를 유기했나  
털끝도 정말로 삼가지 않는다면  
창생들도 대부분 참람해진다네  
천년토록 오래오래 남기는 비난거리  
그 잘못은 경각간에 저지른 것이라네  
오늘이 가고 나도 또다시 오늘이라  
온갖 정무 베짖 때 복실처럼 복잡하지  
그러기에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삼가고 삼간다네  
전 이름을 근정으로 붙이고 나서는  
날마다 남시어 해 지도록 계신다오  
사대문을 열어 놓고 어진이를 초빙하여  
쉬지 않고 서로가 경계를 해야 하오  
지성을 간직하여 탐욕을 절제하고  
널리 배워 많이 안 걸 바탕으로 삼는다오  
애궁(哀矜)으로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고  
농사 짓는 괴로움도 생각을 해야 하오

惟天運晝夜  
至健自無息  
惟聖乃時憲  
克勤不遑食  
帝心固靡常  
輿意亦難測  
匹夫恐失所  
庶僚或曠職  
毫忽苟不謹  
兆民多僭忒  
貽譏千百年  
厥失在頃刻  
一日復一日  
萬機紛如織  
所以崇敬畏  
小心惟翼翼  
名殿以勤政  
日御至中昃  
進賢關四門  
亶亶相戒勅  
存誠節嗜欲  
博學資多識  
欽恤慎刑罰  
艱難念稼穡



|                    |       |
|--------------------|-------|
| 바라오니 이 마음을 굳건히 가지어 | 願言堅此心 |
| 고훈을 길이길이 법으로 삼으소서  | 古訓永爲式 |
| 엄숙과 공순은 무일을 본받고    | 嚴恭體無逸 |
| 자신의 경계는 억억을 보옵소서   | 箴儆觀抑抑 |
| 공경으로 시종을 한결같이 유지하여 | 敬哉一終始 |
| 만년토록 백성들의 표준이 되옵소서 | 億載作民極 |

|                       |         |
|-----------------------|---------|
| 찬란한 금전 빛이 칙칙 산을 비추는데  | 煌煌金殿照層巒 |
| 수목이 푸르러 경관이 여윌롭네      | 琪樹葱籠景氣閒 |
| 구천의 창문에서 일월 모습 드러나자   | 閭闔九天開日月 |
| 선비들은 오정에 집현전에 모이었는데   | 衣冠五夜集鳳鸞 |
| 인심은 작은 일로 향배가 달라지니    | 衆心離合分毫忽 |
| 역대의 흥망성쇠 거울로 삼아야지     | 百代興衰可鑑觀 |
| 정무 처리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 裁決萬機猶未罷 |
| 해 기울자 꽃 그림자 난간으로 올라왔네 | 日斜花影上欄干 |

칠언으로 쓴 부분은 「근정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집현전의 정경을 언급하고 있다. 잘 알려진바 춘정은 1420년(세종18) 궁궐 내 기관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건의했고, 이것이 세종대 최고 엘리트 문사 집단을 양성하는 집현전의 설치로 구현되었다. 이어 시의 끝에서 춘정은 이런 상서로운 기운 속의 충만함이 아주 작은 일로도 어긋날 수 있음을 경계했다. 표현은 간결하고 짧지만, 여윌롭고 충만한 정서로 유장한 시를 이어왔던 만큼, 긴장을 담은 경계의 자리가 의례적이지 않다.

다음은 태종과 관련된 낙천정을 읊은 시이다. 춘정은 1419년(세종1) 낙천정과 관련하여 「낙천정기[樂天亭記]」<sup>11</sup>를 남긴 바도 있다. 태종이 짓고, 박은(朴崧)이 『주역』에서 ‘낙천’ 두 글자를 따서 이름을 올리니, 춘정에게 글을 짓게 한 것이다. 기문은 ‘음양 오행의 원리와 氣稟의 차별에 근거하여 왕의 모든 언행과 행실이 천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칭송하는 데서 시작하여 고려조 말년의 긴박했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결과로 우뚝하게 솟은 낙천정의 상서롭고 풍요로운 기운, 군주의 풍성한 은택을 칭송하며 이를 선경에 비견하는, 관각문학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낙천정에 쓰다.[題樂天亭]」, 『춘정집』 권3

|                    |         |
|--------------------|---------|
| 낙천정에 쾌청한 가을이 또 왔는데 | 樂天亭上又清秋 |
| 성군이 계신 곳에 가기가 떠오르네 | 地戴明君佳氣浮 |

<sup>11</sup> 『춘정집』 권5; 세종실록 1년 기해 9월 4일(병오).

|                       |         |
|-----------------------|---------|
| 부슬비 속 백구는 마포 어귀 날고    | 疎雨白鷗麻浦曲 |
| 지는 노을 기러기는 한산 위로 날아가네 | 落霞孤鷺漢山頭 |
| 호탕한 자애 기풍 사람들이 휩쓸리고   | 仁風浩蕩草從偃 |
| 뻗어 가는 성상 은택 홍수처럼 질펀하지 | 聖澤瀾漫水共流 |
| 정사 보고 난 여가에 사물을 감상하니  | 宵旰餘閒觀物象 |
| 인간의 그 선경을 어디서 또 구하라   | 人間仙境更何求 |

왕의 정경뿐만 아니라 한양 궁궐에서 관료로서 경험하는 일상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용헌, 매헌과 함께 세 사람이 궁궐에 모였을 때이다. 두 사람은 춘정이 젊은 날부터 시를 거둬 수창한 친우들이지만, 세 사람이 한 곳에 모인 장면을 읊은 시는 많지 않다. 이 발표문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한 해에 동년 급제하며 명군(明君)의 양신(良臣)이 되기를 기약했고 공양왕의 즉위와 함께 ‘중흥’의 기대 또한 컸지만,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세 사람의 행보도 한동안은 갈라져 있었다. 그러다 세 사람이 궁궐에서 관료로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대략 1401년(태종1) 이후부터이다. 춘정이 이때 성균관 학정 지제교로 시작하여 예문관(1405, 1406), 예조 우참의(1407), 예문관 제학(1409)으로 관직 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원은, 나중에 춘정도 언급하지만 춘정보다 일찍 관직에 나아가, 1401년에 대사헌이 되었고, 금성군에 봉해졌다. 이 무렵 권우는 이조, 호조, 병조 등의 정랑으로 관계(官階)의 순차를 밟아나가고 있었다. (중려는 권우의 초자(初字)이다.)

「양곡·중려가 궁중에 모였는데 중려가 시를 지었기에 그 시운에 따라 짓다[陽谷·中慮會于禁內 中慮有詩 次韻]」, 『춘정집』 권1

|                      |       |
|----------------------|-------|
| 공관이 가장 맑고 한적하니       | 公館最淸閒 |
| 단란하게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네    | 團樂足可歡 |
| 무릎을 바싹 대고 시구를 읊다가    | 吟詩相促膝 |
| 술잔을 기울이면 눈가에 미소 띠지   | 把酒好開顏 |
| 지는 잎은 바람 따라 날아가기 쉽지만 | 落葉隨風易 |
| 성근 숲은 햇빛을 가리기 어려워이   | 疎松蔽日難 |
| 고요하게 세상의 일들이 사라지니    | 蕭然機事息 |
| 속세와 가깝지 않은 것 같군그래    | 不似近塵寰 |

위의 시는 젊은 때부터의 벗들과 궁궐에서 시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을 선연하게 읊었다. 문사들의 이런 장면을, 속세와 완연하게 구별되는 ‘선경’에 비기는 것



은 관각문학의 일종의 특징이기도 하다. ‘청한(淸閑)’한 공관에서 정경을 잘 그려냈다. 다음의 시는 ‘예문관’에서의 숙직을 읊었으니, 아마도 예문관원 생활을 시작했던 1405년(태종5) 이후에 지은 것일 듯하다.

「비 내리는 밤 궁중에서 맹 사관과 같이 자며[禁中雨夜, 同孟史官宿, ], 『춘정집』 권1

|                       |       |
|-----------------------|-------|
| 늦은 시각 적막한 예문관에 앉았다가   | 寂寞藝臺晚 |
| 그대와 만나니 배나 더 기쁘구먼     | 相迎喜倍加 |
| 술 소리는 가을밤에 유난히도 잘 들리고 | 松聲秋更響 |
| 빗줄기는 밤이 되자 더욱더 거세지네   | 雨氣夜偏多 |
| 물시계는 계속해서 시각을 재촉하고    | 漏滴仍催箭 |
| 타다 남은 등 심지는 저절로 떨어졌지  | 燈殘自落花 |
| 단란하게 정담을 마음껏 나누니      | 團樂情話足 |
| 술잔 들고 노래하는 것보다 낫고말고   | 却勝共樽歌 |

위의 시 역시, 비내리는 소리가 또렷하다 못해 거세지는 가을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적막하고 쓸쓸할 만도 하지만, ‘단란한 정담’이 그 고적함을 덜어내고 있다. 전형적인 관각 문자로, 『춘정집』 권3~4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데, 관료로서의 일상의 장면을 경물과 유연한 정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허도(許衡)에게 준 시로 보인다. 허도는 부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녀(童女)에게 의학을 가르치도록 건의하기도 했거니와, 의약 등 제 분야에서 해박했던 춘정의 교유 범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아래의 관직 명으로 보면 허도가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로 있던 1406년(태종6)<sup>12</sup> 무렵 쓴 것으로 보인다.

「허 한성의 시권에 쓰다.[題許漢城詩卷], 『춘정집』 권3

|                     |       |
|---------------------|-------|
| 내 성질은 본래부터 사슴과 같은지라 | 我本麋鹿性 |
| 그윽한 절경을 사랑해 왔었으나    | 江山愛幽絕 |
| 오고 갈 때 명리의 굴레에 얽매이어 | 謁來被名羈 |
| 세상의 티끌에 파묻혀 버렸다네    | 乃爲紅塵沒 |
| 기쁘게도 백정옹을 만나 뵈오면    | 喜見柏亭翁 |
| 가슴속에 절로 사물이 사라지지    | 胸中自無物 |
| 소원은 오로지 창생을 구제하여    | 所願唯濟生 |

<sup>12</sup>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6일 병오 1번째기사

|                      |       |
|----------------------|-------|
| 오한과 발열을 잘 치료하는 것뿐이지  | 善治寒與熱 |
| 약재로 온갖 초목 남김없이 채취하여  | 收藥盡百草 |
| 뜸질을 시작해 혈맥을 뚫었었지     | 下灸洞諸穴 |
| 한 시대의 사람을 모두 다 치료한 뒤 | 醫了一世人 |
| 나와 함께 나루터 달이나 읊어 보세  | 共咏漁磯月 |

전반부는 전원에 있고 싶으나 명리에 얽매었음을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는 ‘백정옹’이라 표현된 허도와의 만남 속에서 ‘외물의 개입이 없는 경지’를 경험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것은 ‘병든 창생의 오한과 발열을 잘 치료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온갖 약초 다 구해서 막힌 혈맥을 뚫는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고서야 멈출’ 경세의 의지인 것이다. 기교나 수식 없이 소졸(疏拙)하다 싶은 정도로 담박하게 자신의 의지를 읊어내려갔다. 고려의 문과에서 고려의 인재로 급제하고 10년쯤의 시간의 시간이 지난 이 즈음, 춘정이 조선이라는 새 나라에서 각인하고 있던 자기의 책무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야행(莘野行)」(『춘정집』 권4) 또한 은나라 탕 임금의 제상인 이윤(伊尹)을 노래하며, 그가 탕을 도와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세운 일을 백성을 학정(虐政)에서 구하고, 임금이 성군이 되도록 도운 신하임을 환기하고 있다. 하나라에서 은나라로의 역사적 전환이, 신하로서 군주를 멸망케한 일이지만, ‘학정의 불꽃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말함으로써 그 고통을 끝내야 할 역사적 책무과 더 컸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 끝에서 ‘이 아득한 후세에도 그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여, 자신의 가치와 이상을 이윤에 투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야행(莘野行)」, 『춘정집』 권4

|                        |         |
|------------------------|---------|
| 신야에 어느 한 늙은이가 있었는데     | 有莘之野有一老 |
| 농사를 지으면서 은거하고 있었지      | 身荷耒耜於焉藏 |
| 세 차례 초빙하자 마음을 바꿔 먹고    | 幡然動心三聘餘 |
| 사해를 당우처럼 만들려고 하였었지     | 欲令四海如虞唐 |
| 다섯 번 결왕 만나고 군왕으로 안 여기니 | 五就桀兮非吾君 |
| 학정의 불꽃이 천지 속에 타올랐지     | 虐焰閃鑠燒乾坤 |
| 불쌍한 백성들이 못살겠다 아우성들     | 哀哀蒸民沸煎熬 |
| 불에 타는 옥석도 비유가 안 되었네    | 奚啻炎火玉石焚 |
| 자신이 수렁으로 밀어넣듯 민망하여     | 慙惻若已推納溝 |
| 탕왕을 도와서 하늘 대신 처벌했지     | 相湯謀訖天之誅 |



|                       |         |
|-----------------------|---------|
| 동해를 끌어다가 물 뿌려 구제하니    | 能傾東海手注之 |
| 백성들이 쳐다보고 앞다투어 환호했지   | 引領萬口爭歡呼 |
| 결국에는 어린 임금 보좌하여 성군 되니 | 終輔幼沖致仁義 |
| 평생 동안 천지를 책임지고 살았다네   | 平生自任以天地 |
| 구름처럼 흘러가 까마득한 후세에도    | 雲行杳邈百世下 |
| 그런 뜻을 가진 선비 어찌하여 없겠는가 | 豈無儒者志其志 |

#### 4. 맺는 말을 대신하여

『춘정집』에는 약 410제의 시가 전한다. 그중 오늘 발표에서는 아주 일부를 살폈다. 역사의 격랑 속에서 고려의 ‘중흥’과 ‘재창’을 기대했고, 그런 만큼 경세의 의지를 활짝 펴보려고 했던 고려 말 지식인으로서의 춘정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한시의 독법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여말선초의 지성사에서 춘정의 문학이 갖는 시대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계기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춘정이 ‘취했을 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더할 수 없이 각성된 의식을 보여준 시를 인용한다. 이 시를 통해 춘정은,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가 비록 그 시대에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성공적으로 전파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들이 목탁이 되어 전하는 소리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춘정은 그렇기에 ‘유가는 만고에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갖는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취한 심정’에 담아 ‘미친 노래’를 부른 것은, 그런 마음이 그만큼 격렬하게 춘정에게 격동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공자와 맹자 이래 긴 역사의 격랑 속에서 희미한 형태로나마 동일하게 전지되는 마음에 대한 신뢰와 기대, 혹은 자기 선언과 확인은 역사의 격변을 헤쳐 나갈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취했을 때 노래 2수[醉時謠 二首]」, 『춘정집』 권2

|                     |         |
|---------------------|---------|
| 희농이 멀어지고 문무 정책 쇠해지니 | 義農邈矣文武衰 |
| 위태로운 천하를 그 누가 부지하나  | 天下汲汲誰能持 |
| 선부는 옥 가지고 팔지를 못하였고  | 宣父韞玉不見售 |
| 맹자는 유세해도 시행하지 못하였지  | 鄒叟遊說終無施 |
| 흔들면 입 열리며 묘한 소리 났는데 | 搖中開口揚妙音 |
|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네    | 空有遺響留至今 |
| 미친 노래 지어서 공맹을 부르니   | 我作狂歌叫孔孟 |

우리 유가 만고토록 이 심정 똑같다네

吾儒萬古同此心

# <참고문헌>

- 김성언,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의 관각풍(館閣風) 한시(漢詩)에 대하여」,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38권0호 (2007), pp.247-267
- 박병련, 「春亭 卞季良의 정치사상과 정치적 활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동양정치사상사』 8 (2009), pp.127-144
- 유호진, 「변계량 시의 변모와 그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4권 (2003), 한국시가학회, pp.29-61
- 이경수, 「변계량 시의 "입신"과 "출처"」,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작가연구』 2권 (1996), pp.421-456
- 이은영, 「삶과 글을 통해 본 卞季良의 女性 認識」,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4 (2003), pp.95-121
- 이종목, 「卞季良의 인재 양성 정책」, 진단학회, 『진단학보』 105 (2008), pp.141-163
- 이한수, 「조선초기 변계량의 시대인식과 권도론」, 원광대 채문연구소, 『역사와 사회』 27 (2001), pp.77-113
-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정치사상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